

최 인 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등학교 2학년 영어(I) 교과서 비교 분석

-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2004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이 미 애

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현행 고등학교 영어(I) 교과서를 제 7차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근거하여 비교 분석하였고, 수업현장에서의 효율적인 활용도를 알아보기 위해 교재에 대한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는 7차 교육과정에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영어(I) 교과서 8종을 선택하였으며 각 교과서의 단원구성방식, 언어기능 및 활동, 의사소통기능, 언어재료(문화, 소재 및 언어형식), 보충심화 학습을 비교 분석하였고, 현 교과서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교사 48명과 학생 3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연구의 객관성을 얻고자 하였다.

제 1장 서론에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내용, 연구의 대상, 연구의 제한점을 기술하였다.

제 2장 이론적 배경에서 제 7차 교육과정의 내용과 특징, 의사소통능력, 교재의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제 3장 본론에서 고등학교 2학년 영어(I)교과서 8종의 단원구성방식, 언어기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및 활동, 의사소통기능, 언어재료(문화, 소재 및 언어형식), 보충심화 학습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 4장에서 서울시내와 경기도의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영어(I) 8종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 5장에서 결론 및 제언으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교과서 단원 구성 및 기본체제: 제 7차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지침에 따라 8종의 교과서는 다양한 구성과 내용으로 의사소통능력의 배양과 유창성을 바탕으로한 현 교육과정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었으며 합리적인 구성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언어기능 및 활동: 본문내용과 관련하여 언어 네 기능의 영역은 대체로 각 기능의 다양한 활동과 구성으로 제 영역에 충실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교과서가 각 기능의 영역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였고, 언어활동으로는 듣기활동이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 읽기, 말하기, 쓰기 순으로 나타났다. 각 교과서가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위해 다양하고 흥미로운 활동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기는 하나, 각 언어활동에 대해 교사와 학생은 낮은 호응으로 학습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설문결과를 고려한다면 실제적인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활동량과 수준, 내용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의사소통기능: 대부분의 교과서가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의사소통 예시문을 골고루 잘 반영하고 있었다. 교과서마다 제시하고 있는 양의 차이는 있지만, 각 단원에서 언어의 네 기능의 활동이나 다양한 과제를 바탕으로 의사소통기능을 소개, 학습자의 유의미적인 언어학습이 되도록 제시되어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의사소통기능의 전체 항목 중 ‘지적태도변화’의 제시가 가장 높은 비율로 ‘도덕적 표현’이 가장 낮은 비율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언어재료(문화, 소재 및 언어형식): 7차 교육과정에 추가된 문화영역은 지학사와 법문사 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가 문화고정란을 두어 문화와 언어학습을 연계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정보에 대한 양과 질에서는 학습자가 문화의 다양성과 차이점을 이해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에 있어서는 크게 다섯 가지의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학교 생활에 관련된 소재, 둘째, 정보화 시대에 관련된 소재, 셋째, 문화의 다양성을 다루는 소재, 넷째, 건전한 사고와 합리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소재,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양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의 소재를 다루고 있다. 언어형식에서는 위계적이고 점층적인 난이도의 구성의 제시는 미흡했으나 반복이나 심화의 형태로 단원마다 연계성 있는 제시와 함께 예시문 안에서 내용을 다루고 있어 문법위주의 교육이 아닌 의사소통을 고려한 실질적인 학습이 되게 하였다.

5. 보충·심화학습 및 모둠활동: 각 교과서는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소집단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문제해결 학습의 접근 형태로 모둠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현 교육과정에서 중요시하는 학습자의 수준별 학습을 고려하기 위하여 언어의 네 기능을 바탕으로 한 보충·심화학습에서는 쓰기와 읽기 영역에 편중되어 제시되고 있다. 학습자가 제 언어 영역에 충실하고 완전한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각 언어기능에 고루한 분포의 보충·심화학습의 제시가 요구된다.

6. 설문조사분석: 본 논문에서는 영어(I) 8종 교과서의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역별 문항을 선정하여 논문의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주관적인 선호도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설문 결과와 논문의 결과가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학습자 중심의 현실성 있는 다양하고 유의미적인 언어활동과 학생들의 지적호기심을 끌 수 있는 소재의 내용을 다룬 교과서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일치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이 분석한 고등학교 영어(I) 8종 교과서는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으나, 몇몇 교과서는 특정 부분에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이 교과서 선택에 도움이 되고, 각 교과서가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교과서 편찬에 있어 개선점을 찾고 영어학습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교과서가 나오길 기대한다.

목 차

논 문 개 요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대상	2
3. 연구내용 및 분석기준	3
4.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6
1. 7차 영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6
1.1 성격 및 특징	6
1.2. 7차 교육과정 내용체계	9
1.3. 영어(I) 교과목의 목표와 학습내용	13
2. 의사소통 능력	15
3. 교과서 평가 기준	19
III. 제 7차 영어(I)교과서 내용 비교 분석	23
1. 단원구성방식 비교 분석	23
2. 언어기능 및 성취기준(활동) 분석	31
1) 듣기	31
(1) 이론적 배경	31
(2) 듣기 구성 및 활동 분석	33
2) 말하기	41

(1) 이론적 배경	41
(2) 말하기 구성 및 활동분석	44
3) 읽기	54
(1) 이론적 배경	54
(2) 읽기 구성 및 활동 분석	55
4) 쓰기	63
(1) 이론적 배경	63
(2) 쓰기 구성 및 활동분석	65
4. 의사소통 기능 분석	75
5. 언어재료 (문화 및 소재, 언어형식)	80
1) 이론적 배경	80
2) 문화 분석	83
3) 소재 분석	89
4) 언어형식	94
6. 교수학습활동(보충·심화학습)	101
7. Skierso 분석 기준에 따른 제 영역 분석 결과	106

IV. 설문조사 분석 및 결과 111

V. 결론 및 제언 126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영어(I)단원 구성방식	25
(표 2) 영어(I)교과서 듣기 구성방식	34
(표 3) 영어(I) 교과서의 듣기 활동	40
(표 4) 영어(I) 말하기 구성방식	44
(표 5) 영어(I) 교과서의 말하기 활동	51
(표 6) 영어(I) 교과서의 읽기 활동	60
(표 7) 영어(I)교과서의 쓰기의 구성	64
(표 8) 영어(I)교과서의 쓰기의 활동	71
(표 9) 고등학교 2학년 영어(I) 교과서의 언어활동	73
(표 10) 고등학교 2학년 영어(I)교과서 의사소통기능 분석	75
(표 11) 의사소통기능의 항목별 제시율 비교	77
(표 12) 고등학교 2학년 영어(I)교과서의 문화란 분석	86
(표 13) 단원별 소재 분석	90
(표 14) 고등학교 2학년 영어(I)교과서의 언어형식의 구성	95
(표 15) 고등학교 2학년 영어(I)교과서의 교수학습활동	102
(표 16) Skierso 분석기준에 따른 제 영역 분석 결과 점수표	106
(표 17) 영어(I) 단원 구성방식관한 교사의 응답	112
(표 18) 영어(I) 단원구성 방식관한 학생의 응답	112
(표 19) 영어(I) 언어기능(의사소통활동)에 관한 교사의 응답	114
(표 20) 영어(I) 언어기능(의사소통활동)에 관한 학생의 응답	115
(표 21) 영어(I) 언어재료에 관한 교사의 응답	118

(표 22) 영어(I) 언어재료에 관한 학생의 응답	118
(표 23) 영어(I) 보충·심화 학습에 관한 교사의 응답	120
(표 24) 영어(I) 보충·심화 학습에 관한 학생의 응답	120
(표 25) 영어(I) 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의견	122
(표 26) 영어(I) 교과서에 대한 학생의 의견	123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세계화, 정보화라는 말이 무색해질 만큼 우리의 현실은 너무도 빨리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정보화 사회에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며 정보교환을 하는데 있어 국제어로서의 영어의 자리는 매우 크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볼 때 영어교육이 국가적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영어교육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표현 중심의 언어 능력을 길러 주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영어교육은 대부분이 교실환경에서 교과서를 통해 영어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나라와 같은 EFL 환경에서 영어교과서는 수업 과정에서 학습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며, 추상적인 언어 교육이론이나 언어 정책을 실제적인 학습현장에 연결시키는 중재자이므로 영어교육 영역에서는 매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영어교과서를 분석하는 일은 교과서의 선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함과 더불어, 영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어교과서의 목표와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본 후 고등학교 영어(I)교과서가 이에 기초하여 각 교과서의 내용들이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현 영어교과서는 어떠한 내용과 교수학습 활동으로 학습자의 영어 학습을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의 분석을 통해 차후 새로운 교과서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

색해 보고자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7차 고등학교 영어교육 과정이 지향하는 목표에 근거하여 고등학교 영어(I)교과서의 구성과 내용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각 교과서의 내용을 비교 분석을 통하여 교과서의 특징과 문제점을 발견하며 셋째, 7차 영어과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수준별 학습,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이들 교과서가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넷째, 이를 토대로 영어교과서가 영어교육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나라 영어교육에 있어 영어교과서의 제작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고 더 바람직한 교과서의 제작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현 고등학교 영어(I) 교과서 8종을 선별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고, 영어교사(48명)와 학생(337명)에게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 교과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지도방법과 교과서 개발에 대한 제언을 얻고자 하며, 본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분석 교과서 8종)

A.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김충배 외
B. 지학사	이맹성 외
C. 금성출판사	김덕기 외
D. 법문사	박영식 외
E. 한국 교육미디어	이흥수 외
F. 대한 교과서	이민호 외
G. 두산	김성곤 외
H. 시사 영어사	신정현 외

3. 연구내용 및 분석기준

본 논문은 이론적인 배경에서 7차 교육과정의 특징과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영어교육의 목표에 근거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 교과서 분석의 기초가 되는 평가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교재의 구성 및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분석기준은 Skierso(1991)을 바탕으로 한다. 교과서 분석에 있어서는

첫째, 단원 구성 면에서 각각의 교과서의 구성상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살펴본다.

둘째, 각 교과서가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언어의 네 기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이론과 내용을 적절하게 담고 있는지 알아보고 아울러 각 교과서의 언어기능의 다양한 활동도 비교 분석한다.

셋째, 의사소통 기능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을 바탕으로 각 단원마다 어떠한 의사소통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한다.

넷째, 문화에서는 문화내용과 자료가 현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여 내용이 충실하게 담겨 있는지를 알아보고 아울러 다루고 있는 문화내용이 학습자의 흥미를 끌기에 적절한 것인지를 알아본다.

다섯째, 소재를 통해서 각 교과서의 공통된 소재 및 색다른 소재를 살펴보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알아본다.

여섯째, 언어에서는 각 교과서가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시문과 함께 언어형식의 종류와 내용이 현 교육과정에 맞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일곱째, 각 교과서는 교수학습 활동으로 7차 교육과정에서 중시하고 있는 보충/심화학습, 모둠 활동을 언어의 네 기능에 걸쳐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여덟째, 고등학교 영어(I)교과서를 교실현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서가 바람직한 내용과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교과서에 대한 의견과 개선점을 알아본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연구의 범위는 고등학교 영어(I) 교과서 8종을 선별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각 학년간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전반적인 고등학교 영어 교육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무리가 있다.

둘째, 교과서의 교수과정에서의 현실적인 타당성과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의 대상이 서울시내와 경기도내로 분석 대상 교과서를 사용하는 고등학교 현직교사와 학생들로 한정되어 설문조사의 일반화와 객관화가 다소 결여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7차 영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1.1 성격 및 특징

교육부(1997)는 영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을 세계화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인재양성 측면에 맞추고 있고 이를 위해 학습자들이 개인의 능력에 맞게 학습할 수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학생이 같은 수준이거나 거의 같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내용의 구조화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이 보다 체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 조직하는 적정화, 체계화에 관심을 가지고 개발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제 7차 교육 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 과정의 구성 방향은 다음과 같다.

- 가.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 기본 교육의 충실
- 나. 세계화, 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
- 다.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
- 라. 지역 및 학교 교육 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 확대

이상과 같은 기본 방향의 틀 안에서 제7차 개정 영어과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이 약속할 수 있다.

- 가. 개인차를 고려한 학생 중심의 영어교육
 - 나.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하는 영어교육
 - 다. 활동과 과업 중심의 영어교육
 - 라.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영어교육
 - 마. 국가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하는 영어교육
 - 바. 생활 영어 및 실무 영어 중시
 - 사. 성취 기준의 명료화 및 상세화
 - 아. 과학적인 접근을 통한 내용 선정
 - 자. 열린 교육 체제의 정착 및 활성화
-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개인차를 고려한 학생 중심의 영어교육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중의 하나는 ‘학년별로 획일적인 교육과정의 제시’에서 탈피하여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까지의 교육 과정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학습 속도의 개별화’와 ‘학생의 교과 선택’이 가능해졌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나.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하는 영어교육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 능력이란 정확성과 더불어 유창성을 겸해야 한다는 점에서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기 위해 개념, 기능 중심 교수요목과 문법 중심 교수요목을 절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화하였다.

다. 활동과 과업중심의 영어교육

과정 지향적 교수요목은 학습활동과 활동과업 중심으로 진술하는 교수요목으로 7차 과정의 중점사항으로서 주로 활동과 과업들을 차례로 제시하여 학습자가 이들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하는 교수요목이다.

라.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영어교육

영어과목을 도구교과로서만이 아닌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는데 비중을 높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해의 경우 과거의 중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지시적, 해석적 독해 수준만 다루고 비판적, 창의적 독해 수준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기본 철학은 아무리 난해하고 고차원적인 이론이라 하더라도 학생의 수준이나 경험에 맞게 자료를 제시하면 기본이론을 이해할 수 있다는 원리로서 이론의 중간언어 단계를 배제하고 있다.

마. 국가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하는 영어교육

영어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 공용어인 영어로 세계문화를 받아들여 자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이는 지구촌의 세계인들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며, 현재보다 더욱더 친밀감을 가지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데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

바. 생활영어 및 실무영어중시

국민공통 교육기간에는 학문적인 언어능력이 아닌 기본적인 대인간의 의사소통능력에 중점을 두며, 이후 2,3 학년 선택교과에서는 학문적인 언어능력 배양과 함께 실무 영어 구사 능력에 중점을 둔다.

사. 성취 기준의 명료화 및 상세화

각 기능별 성취기준을 명확히 하여 성취해야할 목표를 명확히 알고 교수와 학습에 임하도록 하는 데 의의를 들 수 있다.

아. 과학적인 접근을 통한 내용선정

교육과정에 포함된 성취 기준, 의사소통기능, 의사소통 활동에 필요한 언어형식들을 선정할 때 학문적 타당성이 인정된 외국어 학습 이론, 교수이론, 학자들의 학설을 이용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선별적으로 참고한다.

자. 열린교육 체제의 정착 및 생활화

열린교육의 모형으로 우리 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것은 소집단제도와 개별 학습 병행수업이다. 이는 교사가 대집단 학습의 형태로 전체 학생에게 학습 과정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해준 이후 각 소집단별 집중적인 순회 지도를 하는 동안 다른 소집단 학생들은 개별학습이나 협력학습을 해나가는 것이다. 이때 개인차를 반영하기 위해 기본과제 이외에 심화 과제와 자유선택 과제를 제시해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원래 집단이 대집단의 형태로 돌아와 학습 결과를 정리해 준다.

1.2. 7차 교육과정 내용체계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은 ‘내용체계’와 ‘학년/단계별 성취기준’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내용체계 항목의 설정배경과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내용체계

- (1) 언어기능: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 (2) 의사소통활동
- (3) 언어재료: 소재, 문화, 언어, 어휘

나. 학년/단계별 성취기준

- (1)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7(중 1)단계에서 10(고 1)단계 까지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1개 학년을 1단계로 하되, 학기를 단위로 하는 2개의 하위단계 a, b를 두어 운영한다. 동일 하위단계 내에서도 심화·보충형 수준별 수업을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 (3) 성취기준은 목표와 학습 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의 성취기준을 제시한다.

- (4) 학년/단계별 성취기준은 이전 학년/단계의 성취기준을 누적하여 적용한다.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의 언어 기능적 측면을 살펴보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기능으로 구분되어 성취기준이 기술되어 있다. 이것은 이해/표현과 음성/문자의 구분을 명확하게 한 제 6차 영어과 교육과정과는 달리, 이들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이 서로 배타적인 영역이 아니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기능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점진적으로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한다.

7차 교육과정의 의사소통활동은 음성언어활동(듣기, 말하기)과 문자언어활동(읽기, 쓰기)으로 이루어진다. 음성언어활동을 위한 ‘의사소통기능과 예시문’이 제시되어 있고, 문자언어활동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형

식'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 의사소통기능과 예시문은 의사소통기능을 학교활동, 사실적 정보교환, 지적태도 표현, 감정 표현, 도덕적 표현, 설득과 권고, 문제 해결 등의 7개의 대 영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46개의 중 영역으로 분류한 후 각 중 영역마다 3~4개의 소 영역으로 두어 전체 의사소통기능 항목을 80개의 소 영역을 나누어 제시하였다. 각 소 영역에 해당되는 의사소통기능 예시문 3~9개를 두었고, 주어진 예시문은 공식적인 표현과 비공식적인 표현까지 대표적인 기본 예시문들을 수록하였다. 언어재료는 소재, 문화, 언어, 어휘로 나누고 있다.

1)소재

- (㉠). [별표]의 '소재'를 참조하여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
- (㉡). 학생들의 흥미, 필요, 인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습 의욕을 유발 할 수 있는내용
- (㉢). 주제와 상황, 과업 등을 고려한 내용
- (㉣). 성취기준 달성에 적합한 내용
- (㉤). 상호 작용에 적합한 내용
- (㉥). 심화학습과 발전학습에 적합한 내용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년별로 소재가 따로 제시되었던 과거의 교육과정과 달리 포괄적인 소재가 제시되고 있다. 또한 소재영역을 학습자의 흥미와 배경지식을 고려하고, 지도상의 이점, 학생의 정서적 특징과 실용성을 감안하며 학습자의 언어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개인 중심의 화제와 주제로부터 우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2)문화

- (㉠). 의사소통에 필요한 영어권의 생활양식과 언어문화
- (㉡). 영어권에서 문화적으로 적절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양식
- (㉢). 영어권 문화와 우리 문화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

언어재료의 구성요소 가운데 새로이 ‘문화’가 추가되었다. 문화는 소재 가운데 포함되어 나타나므로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언어교육을 통한 문화교육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문화를 독립된 항목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문화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외국어 교육이 단순히 언어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도구로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의 문화에 접근함으로써 학습자의 개인적 시각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세계시민으로써 적응력과 소양을 기르는 것이 외국어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는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3)언어

- (㉠). 초등학교에서는 음성언어 중심으로 하고, 문자 언어는 음성언어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
- (㉡).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과 실제적인 의사소통활동에 도움이 되는 언어
- (㉢).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언어
- (㉣). 인지적인 수준을 고려한 언어
- (㉤). 소리와 의미의 식별, 소리와 문자의 관계, 말의 연결, 말의 속도에 따른 음운 변화, 상황에 따른 음운 변화 및 자연스러운 발화 등에 도움이 되는 언어

4)어휘

- (㉠). [별표]의 ‘기본 어휘표’를 중심으로 사용
 - (㉡). 학년/단계별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어휘수
 - 7(7-a, 7-b)단계 : 200낱말 내외
 - 8(8-a, 8-b)단계 : 250낱말 내외
 - 9(9-a, 9-b)단계 : 350낱말 내외
 - 10(10-a, 10-b)단계 : 450낱말 내외
- (전체 1250낱말 내외, 초등학교 30낱말 외래어 포함하여 50낱말의 상용외래어 사용허용)

1.3. 영어(I) 교과목의 목표와 학습내용

1.3.1 영어(I) 교과목의 성격

‘영어 I’ 과목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영어에서 배운 내용을 심화하여, 일상 영어를 이해하고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과목이다. 그리고 장차 각종 전공 분야의 학술 연구에 기본이 되는 언어 능력을 신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중급 수준의 영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역점을 둔다. 학생들의 진로와 전공 분야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렵기에, 학생의 수준과 언어 능력을 고려하여 공통된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소재를 선정하고,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체육 등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과 사실에 근거한 흥미 있고 유익한 자료와 정보를 다룬다. 또 암기 위주의 학습을 지양하고, 학습 과정에서 창조적 사고력과 탐구 정신을 길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신장하도록 한다.

1.3.2 영어(I)교과목의 목표

고등학교 선택 교과인 ‘영어I’의 교육은 학생들이 영어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하여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급 수준 정도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인 영어 7~10단계 학습의 연장선상에서 ‘영어I’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 ① 일반적인 화제에 관한 말이나 방송의 내용을 이해한다.
- ② 평이한 실용적, 학술적 정보를 이해한다.
- ③ 말이나 글로 상황에 맞게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이해한다.
- ④ 외국인 언어적 표현과 그들의 문화를 바르게 이해한다.

⑤ 우리의 문화를 외국인에게 조리 있게 소개한다.

선택 교과는 교과의 성격과 목표에 따라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취업을 고려하여 도달해야 할 기준을 정하고, 직업에 관련된 영어의 습득도 그 기준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선택 교과는 일종의 특별 목적의 영어 교육이므로 그 내용 기술에 있어서도 실용적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97).

1.3.3 영어(I)의 교과 내용과 성취기준

내용	성취 기준
듣기	(1) 짧고 쉬운 강의, 라디오 뉴스 등을 이해한다. (2) 사실을 다루는 보고를 듣고 이해한다. (3) 다양한 내용의 말을 듣고, 명시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를 이해한다. (4) 다양한 내용의 말을 듣고, 전개방식, 원인과 결론, 결론과 근거 등을 이해한다. (5)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내용을 평가한다.
말하기	(1) 일반적인 주제에 관해 자연스럽게 대화한다. (2) 일이나 사건을 조리 있게 설명하거나 보고한다. (3) 듣거나 사건을 조리 있게 설명하거나 보고한다. (4)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화 대화를 자연스럽게 한다. (5) 적절한 도움을 받아 추상적인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말한다. (6) 대화 전략을 잘 알고, 적극적인 상호 작용을 한다.
읽기	(1) 처음 대하는 글도 자연스러운 발음과 억양으로 읽는다. (2) 다양한 글을 읽고, 글의 명시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를 이해한다. (3) 몇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있는 글에서 통일성, 응집성, 연결성을 이해한다. (4) 다양한 글이나 도표를 빨리 읽고,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 (5)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분석, 평가하며 읽는다. (6)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글의 분위기, 결론을 추론하고 그 근거를 찾는다. (7)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덜 친숙한 내용의 글을 읽고, 비교, 대조되는 의견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8) 계획표, 시간표, 통계표, 표지판 같은 표준화된 메시지를 읽는다.
쓰기	(1)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거나 글을 읽고, 내용을 조리 있게 요약하여 쓴다. (2) 일과 사건을 조리 있게 설명하는 글을 쓴다. (3) 몇 개의 문단을 읽고, 의미를 통합하여 쓴다. (4)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말을 듣고, 간단히 기록한다. (5) 일반적인 주제에 질문, 메모, 전화 메시지 등을 기록한다. (6) 특정한 주제에 관해 문단을 적절히 나누어 쓴다.

2. 의사소통 능력

2.1. 의사소통기능의 정의 및 분류

의사소통 기능(communicative functions)이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언어행위를 지칭하며, 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기능,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기능, 모르는 사실이나 정보를 교환하는 기능,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능, 정신적 또는 창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 등의 항목을 포함한다 다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로 구현되는 문장의 구조, 문장의 종류, 기타 문법에 필요한 언어 형태가 있어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예시문(exponents)을 제시하여 교수와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의사소통 중심 교육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각기 다른 입장에서 그 정의가 내려졌다. Chomsky(1965)는 언어학 이론에서 인간의 언어 지식을 언어 능력(Competence)과 언어 수행(Performance)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언어 능력은 특정사회 구성원으로서 해당 언어를 완벽하게 사용하는 이상적인 청자나 화자가 자신의 모국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완전한 지식, 즉 문법적 지식을 의미하며 그 지식을 가짐으로써 잘 구성된 모든 문장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갖는다고 했으며 언어 수행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사용 측면을 무시하고 객관적 탐구의 대상으로만 남아 있다면 별 의미가 없으므로, 의사소통 능력은 Chomsky의 문법적 언어 능력 뿐 만 아니라 실제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 되었다. 그래서 Hymes(1972)는 Chomsky의 언어 능력이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가 언어 수행의 영역으로 정의했던 사회, 문화적 요소에 대한

영역을 좀 더 넓은 개념의 언어 능력인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개념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Hymes(1972)는 의사소통능력을 언어의 문법성(grammaticality), 수용 가능성(acceptability), 적합성(appropriateness), 실제 실행성(probability of occurrence) 등으로 구성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Bachman(1990)에 의하면 의사소통능력의 구성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 언어능력(Language Competence): 언어를 통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구체적 언어정보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2.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 주어진 의사소통 상황에서 언어능력의 각 요소가 실행되도록 하는 능력이다. 다시 말하면 전략적인 능력은 언어능력이 사용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상황과 언어사용자의 지식구조에 적절히 연결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3. 생리 심리적 기제(Psycho-physiological Mechanism): 생리적 작용으로 실질적인 언어 수행에 관여되는 신경적, 심리적 작용을 말한다.

위에서 본 Bachman(1990)의 언어 능력은 그 하위 요소들로 나뉘어 진다.

Bachman(1990)의 언어능력 모형에서 의사소통과정이란 의사소통능력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관여하여 전반적으로 활용되는 포괄적인 과정의 이해라 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의사 소통기능은 특정한 학자보다는 여러 학자들의 의사소통 기능 분류(Wilkins, 1976; van Ek & Alexander, 1980; Blundell 외, 1991), 우리의 학교 상황을 고려하였다. 의사소통 기능의 주요 범주 중 윌킨스(Wilkins, 1976)의 범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윌킨스는 의사소통기능을 의미-문법의 범주와 의사소통의 범주로 나누었다. 의미문법

의 범주에는 시간, 공간, 수량, 격 차원, 위치, 관계, 직시 체계 등을 포함 시켰으며 의사소통 범주를 다음의 여덟 가지로 분류하였다.

1. Modality: 확신, 필요, 신념, 의지, 책무, 관용 표현
2. Moral discipline and evaluation: 도덕적 원리 판단 표현
3. Suasion: 설득, 추천, 예측 등의 표현
4. Argument: 의견의 교환, 동의나 반대, 거절, 양보 표현
5. Rational inquiry and exposition: 합리적 요구나 해설, 설명 표현
6. Personal emotions; 개인의 감정 표현
7. Emotional relations: 인사, 적개심, 인사치레 등 감정 관련 표현
8. Interpersonal relations: 대인 관계에서 필요한 표현

van Ek(1980)은 외국어 학습자가 수행해야 할 의사소통의 범주를 행동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 Imparting and seeking factual information: 사실 확인, 보고
2. Expressing and finding out intellectual attitude: 의견일치와 불일치
3. Expressing and finding out emotional attitude: 즐거움, 놀람
4. Expressing and finding out emotional attitude: 사과하기, 용서하기
5. Getting things done: persuasion: 제안, 요청, 경고, 지시
6. Socializing: 인사, 주의 끌기

Finocchiaro와 Brumfit(1983)은 의사소통 기능을 5가지로 분류한다.

1. 개인적 기능: 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기능을 말하며, 회로 애락, 감각적 느낌, 정서적 느낌 등이 속한다.

2. 대인적 기능: 바람직한 사회생활과 직장 생활을 위한 사교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말하며 인사, 소개, 약속, 초대, 칭찬, 사과 표현 등이 속한다.

3. 지시적 기능: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한 기능과 지시를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기능을 말하며 제안, 요청, 설득, 허락, 금지, 경고, 지시 표현 등이 포함된다.

4. 참조적 기능: 사물, 행동, 사실, 언어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보고하는 기능과 언어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기능을 말하며, 사실 확인, 묘사, 설명, 요약, 비교, 가능성, 토론, 평가 등이 속한다.

5. 상상적 기능: 예술 창작 활동, 작품에 관한 토론, 문제 해결 등이 속한다.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의 의사소통 기능에는 친교 활동, 사실적 정보 교환, 지적 태도 표현, 감정 표현, 도덕적 태도 표현, 설득과 권고, 문제 해결 7가지 상위 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7가지 상위 범주에 47개의 항목을 둔다. 또한 하위 항목에 57개의 세부 항목을 두고, 346개의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을 제시한다. 7가지 상위 범주를 살펴보면, 먼저 친교 활동에는 인사, 소개, 감사, 주의 끌기, 칭찬, 축하, 감탄, 약속, 기원, 음식 권유, 응답, 대화의 시작, 끝맺음 8가지 하위 항목을 두었다. 사실적 정보 교환의 기능에는 사실적 정보, 사실 확인, 사실 묘사, 습관, 경험, 계획, 수정, 비교 등의 8가지 하위 항목을 두었다. 지적태도 표현의 기능은 동의나 반대, 제의, 초대, 제안, 기억, 가능, 불가능, 확신하기, 의무, 허락, 지시, 금지, 의견표현 10가지 항목을 두었다. 감정 표현은 좋아함, 싫어함, 희로애락, 원하는 것, 동정, 소망, 의지, 불평 6가지 하위항목을 두었다. 도덕적인 태도 표현으로는 사과, 변명, 후회, 관심 5가지 하위 항목을 두고, 설득과 권고 표현의 기능으로는 설득, 요청, 충고, 경고 3가지 하위 항목을 둔다. 문제해결의 표현의 기능은 원인, 결과, 길 안내, 물건 사기, 음식 주문, 되묻기, 이해 점검, 전화하기 및 받기 7가지

하위 항목을 둔다.

제 6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기능’ 항목을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 표현, 일상적인 대인 관계, 친교 활동, 권유와 부탁, 지시와 명령, 사실 확인, 의견 교환, 문제 해결 등으로 구분하는 것과 비교하면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의 의사소통 기능의 분류 기준은 상세해졌다.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은 van Ek(1980)의 6가지 의사소통 기능 범주-사실적 정보의 이해와 전달, 지적 태도의 이해와 표현, 정의적 태도의 이해와 표현, 도덕적 태도의 이해와 표현, 권고, 사회화와 Finocchiaro(1979)의 5가지 의사소통 기능 범주-개인적, 대인적, 지시적, 참조적, 상상적 기능을 혼합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6차의 의사소통 기능의 범주를 토대로 하고 있다 (배두분, 2000).

본 연구에서는 제7차 고등학교 영어(I)교과서의 의사소통 기능이 여러 학자들의 분류가 혼합되어 있어서 명확한 기능의 분류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의사소통 기능의 항목에서 7가지 영역에 근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 교과서 평가 기준

배두분(1997)은 영어교과서는 교과내용과 방향이 통일성 있게 제시되어야 하며, 수업에 필요한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구성은 간단하고, 과제와 활동에 적합해야 하며, 흥미 있고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영어교재의 자료는 학습자에게 지적 자극을 주어 의사소통능력 계발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하며 교사와 학습자가 이해 가능한 명확한 것으로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찬규(1995)에 의하면 교재는 학습자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언어 및 문화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교사가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교재는 교사와 학습자와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인간적인 조건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교육 환경 등과 같은 환경 적인 조건도 충분히 반영 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상적인 영어교재는 단지 영어의 구조나 표현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어학습에 관련된 모든 요인들을 충족시켜 학습을 촉진 시키고 교수를 쉽게 할 수 있는 내용과 구성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Skierso(1991)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A. 교재에 관한 일반적 정보 (Biological Data)

1. 교과과정을 단지 교재만 사용하여 교수하는가? 또는 모든 부교재를 사용해야만 교수할 수 있는가?
2. 수반되는 교재의 이용가능성-학습장, CD-Rom, 교사용 지도서, Tape 등은 어느 정도로 이용 가능한가?

B. 교재의 목표 (Aims and Goals)

1. 언어영역 중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연령, 문화, 계층, 환경, 학년, 배경지식 등)
2. 교재의 목표와 목적이 학생의 필요와 목적에 어느 정도로 일치하는가?
3. 교과과정을 위해 할당된 시간과 단위에 적합하게 교과서 자료의 종류와 분량이 어느 정도로 현실적으로 되어 있는가?

C. 교재의 주제(Subject matter)

1. 안정성과 흥미도 : 나이, 성별, 사회·경제적 수준, 환경, 문화에 의해 결정 지워진 학생의 흥미에 적합하고 다양한 소재로 이루어진 주제를 어느 정도로 다루고 있는가?
2. 소재나 주제에 의한 자료의 순서가 논리적으로 되어있는가?
3. 교재의 다양한 유형: 적당한 본문의 형식의 분류가 교재에 포함되어 있는가? (대화문, 수필, 시, 드라마, 전래동화 등)
4. 학생의 요구, 배경지식, 생활양식 또는 교수요목에 따라서 내용이 구분되어 지는가?
5. 본문, 대화문, 연습문제에 문화적인 내용이 통합되어 있는가?
6. 자료가 정확하고, 진실하고, 현실적인가?

D. 어휘와 구조(Vocabulary and Structure)

-문법

1. 얼마나 많은 문법 사항들이 선택되고 강조되었나? 제시 순서는 어느 정도로 적합한가?
2. 언어학적인 자료가 어느 정도로 적절한가?
3. 언어학적인 항목들이 유의미한 상황에서 소개되었는가?

-어휘

1.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어휘의 양(매 단원마다 제시되는 신 어휘의 수)을 제시하는가?
2. 단어가 본문에서 적절히 소개되는가?
3. 단어와 구문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4. 문법이나 어휘의 분배가 한과에 치중되지 않고 골고루 분배되어 있나?

E. 연습문제 및 학습활동(Exercises and Activities)

1. 교수요목과 교과과정에 나타난 행동에 관한 목적이 활동들과 일치하는가?
2. 학생의 활동이 행동적 목표와 어느 정도로 일치하는가?
3. 연습문제가 실질적인 활동과 상황을 나타내어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진전시키는가?
4. 연습문제와 활동이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격려하는 연습문제를 제공함으로써 학습 자료의 내재화를 어느 정도로 촉진하는가?
5. 연습문제와 활동이 해석, 응용, 분석, 종합평가 등을 촉진시키는가?
6. 연습문제와 활동에 대한 지시가 명백하고 적절한가?
7. 연습문제와 활동이 학생의 나이, 수준, 배경, 흥미에 적합한가?
8. 한 과에서 배운 내용의 복습 유형이 있는가?

F. 편집과 외관(Layout and Physical Makeup)

1. 교과서의 표지나 속 등이 호감이 가는가?
2. 삽화가 소재와 어느 정도로 관련이 있으며,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는가?
3. 자료가 명백하게 조직되어 있는가? (기능적인 삽화, 자세한 목차, 단어 목록, 지도, 동사요약, 용어 해설과 같은 부록)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제 기준들과 7차 교육과정의 근거하여 Skierso(1991)의 교과서 분석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영어(I)교과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영어(I)교과서 8종을 단원구성방식, 언어기능(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및 활동, 의사소통기능, 언어재료(문화 및 소재, 언어형식), 교수학습활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III. 제 7차 영어(I)교과서 내용 비교 분석

1. 단원구성방식 비교 분석

고등학교 2학년 영어(I) 교과서의 단원구성은 범문사가 각각 5단원 구성 후 활동 중심의 Project Activity I, II를 구성한 것을 제외하고 제 7차 영어과 교육 과정의 편성. 운영 지침에 따라 Part I, II로 나누어 6단원씩 구성되어 있고, 언어기능의 제시는 모든 교과서가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이는 교과서 저자의 재량에 따라 언어 제시 순서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 모든 교과서가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제시 순서를 따르고 있는 이유는 언어의 이해 기능(듣기, 말하기)을 익히고 난 후 표현 기능(읽기, 쓰기)을 익히는 것이 언어의 4기능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점진적으로 함양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단원 구성방식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교과서가 먼저 의사소통 기능과 언어형식을 제시하여 단원에서 학습할 표현과 소재에 대한 소개를 관련된 삽화나 사진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원의 시작에 앞서 학습자로 하여금 그 단원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과 예비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교과서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듣기에 앞서 충분한 선수학습을 할 수 있도록 따로 코너를 마련한 중앙교과서와 대한교과서의 구성이 특징적이다. 듣기 활동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연습과 활동으로 제시하여 의사소통중심의 이해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듣기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과서도 있지만 Listen and Do, Listen and Speak라는 명칭에서처럼 듣기와 말하기 쓰기까지의 통합적으로 언어기능을 다루는 교과서도 있었다.

말하기 활동은 주로 실제 말하기에서처럼 자연스러운 상황과 문장들로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각 교과서마다 다양한 구성요소가 돋보이는데 단순한 기계적인 연습이나 모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pair work, group work을 통해서 학습자 스스로의 경험이나 객관적 자료를 이용한 실제 상황 또는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의사소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참여하는 과업 중심의 활동이나 게임 중심의 모둠 활동은 보다 유의미적인 상황에서 말하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

읽기 활동에서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읽기 전, 중 후 활동으로 나뉘어져 읽기 전 활동에서는 읽기 부분에서 다룰 내용에 대한 배경지식의 언급 및 읽기 전 질문을 미리 제시하여 읽기 학습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있다. 읽기 후 단계에서는 읽기 단계에서 배운 전체적인 구조 및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의미지도활동이나 연습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쓰기 활동에서는 일정한 문장 구조나 어휘를 활용하여 문장 단위로 글을 쓰고,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단락 단위의 글을 쓰는 식의 유도 작문형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요약문, 간단한 메모, 소개문, 편지등과 같은 학습자 상황에 맞는 자유작문의 쓰기 활동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 7차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심화, 보충형 수준별 수업에 맞게 각 단원마다 보충, 심화활동이 제시가 되어 있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대부분의 교과서는 언어의 4기능 제시 후 이를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Vocabulary, Group Activity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Review나 Summary 혹은 Do It Yourself 등의 다양한 용어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복습한 다음 이 부분에서의 성취도를 기준으로 보충활동과 심화활동을 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보충활동과 심화활동도 직접적으

로 보충·심화라고 제시가 되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Enjoy Your English, Culture Travel, Culture Tip, On Your Own 등을 통해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culture-tip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문화부분에 적합한 요소이며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와 이해를 얻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문화면을 소개하는 학습 자료의 양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각 교과서의 단원별 제시순서는 다음과 같다.

(표 1) 영어(I)단원 구성방식

차 시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지 학 사	금 성	법 문 사
1	Think Back, Warm Up	Listen & Get Ready , Listen & Check, Listen & Do	Listen	Listen & Think Listen & Do
2	Listen and Do	Dialog, Let's Talk	Speak	Listen & Speak 1 Listen & Speak 2
3	Speak and Act 1 : dialog, activity A,B Say It Right	Let's Communicate	Before You Read/ Read 1	Speak Out/ Before You Read
4	Speak and Act 2 : dialog, activity A,B Say It Right	Before You Read Reading 1	Read 2,3	Read & Think
5	Before you Read, Skimming	Reading 2	Read 4,5	Read & Think
6	Reading/ Skimming	Reading 3	After You Read	After You Read/ Build Up Your Vocabulary
7	Reading	After You Read/ On Your Own	Vocabulary : words/ phrases/ vocabulary in context	How to Read Write on/
8	Reading, After You Read	Language Work : word Power/ useful expressions /structure in use/ structure in context	Write	Creative Activity
9	Writer Right	Let's Write	Language Awareness/ Group Activity	Study Notes
10	Wrap Up : word in Context /useful expressions /structures /function	Review & Check	Review	Do it yourself
11	Work It Out	Further Work 1/ Further Work 2	Go for it	Let's Learn More 1/ Let's Learn More 2
	** Culture Travel			

차 시	한국교육미디어	대한교과서	두 산	시사영어사
1	Listening Focus I	Look Ahead Learning Goals/ Listen In/ Getting Ready	Listen and Do	Getting ready/ Listening Activity
2	Listening Focus II Additional Practice	Listen and Speak (1)	Speak and Act	Listening Activity Speaking Activity1
3	Communicator I	Listen and Speak (2)	Before You Read	Speaking Activity2/ Conversation Activity
4	Communicator II Additional practice	Read and Think : pre-reading activities	Read and Think	Reading
5	Reading Task	Read and Think	Read and Think	Reading
6	Reading Task	After You Read	Read and Think	Understanding the Text/ Reading Activity
7	Check-Up	Writing Tasks/ Project File	After You Read	Writing Activity/ Understanding Culture
8	Guided Writing	Summary& Practice :sounds for listening /word power /functional practice /language practice	Write and Express	Further Study/
9	Language Check	Summary& Practice	Wrap-up Activity	Further Study/ Do It yourself
10	Level-Up	Optional Activities	Study Points /sounds /word study /useful expressions /language focus	Do It yourself/ Try It
11	Self-Study	Enjoy Your English	Review and Discuss Go Over, Go Ahead	Challenge It/ Just For Fun

다음은 각 교과서별로 구성방식의 특징과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A. 중앙교육진흥연구소(김충배 외)

A교과서는 Think Back과 Warm up 에서 본격적인 단원의 시작에 앞서, 이미 배운 의사소통 기능에 따른 예시문을 통해 앞으로 배울 표현에 대한 선수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다른 교과서에 찾아 볼 수 없는 구성으로 단원소개에서 의사소통과 언어형식만을 제시하고 충분한 선수학습 없이 바로 듣기 단계로 넘어가는 타 교과서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A 교과서의 특징은 읽기 영역에서 막연하게 주어진 지문을 읽고, 읽기

후 단계에서 지문에 대한 내용 이해를 점검하는 일반적인 체제를 탈피하여, 읽기를 네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읽기 전 단계(Before You Read)에서는 읽기와 관련된 흥미 있는 활동을 통해 학습을 부여하고, 전체 읽기 단계(Skimming)에서는 글을 빨리 읽고 대의과약을 해 봄으로써 속독 능력 배양을 꾀하고 있으며, Skimming 단계는 타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적인 구성이다. 본문 읽기 단계(Main Reading)에서는 정보 습득 및 문제 해결 능력 함양에 읽기 능력을 배양한다. 읽기 후(After You Read) 단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통해 본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B. 지학사 (이맹성 외)

B교과서의 특징은 말하기의 구성을 세 단계로 나누어, 처음 Dialog 단계에서는 의사소통 기능의 반복적인 연습으로 듣기와 말하기의 통합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본과 함께 주어진 만화 그림은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였다. Let's talk 에서는 의사소통 기능표현을 연습하는 단계로 여기서 제시된 Pronunciation Tips는 발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의 부재로 학습자의 발음연습을 돕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After You Read 에서 읽기 중심의 통합적 연습 활동으로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있으며 On Your Own 부분을 두어 학습자가 자기의 경험이나 생각 등을 바탕으로 읽기 활동을 확장시켜 나가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지학사는 대체로 각 언어기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누어 단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본문과 관련된 문화적인 정보는 본문 아래의 보조단에 짧게 언급하고 있을 뿐 학생들의 문화적인 이해를 돕는 데는 다소 부족한편이다.

C. 금성 (김덕기 외)

C교과서는 Read에서 읽기 자료가 내용에 따라 몇 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어 읽기 자료에 대해 학습자가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본문 내용의 양에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부분이다. After You Read에서는 concept map이나 요약문을 제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전체적인 글의 개념을 다시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효과적인 읽기 후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C 교과서의 특징은 Tips for You 나 Let's Take a Break 코너를 구성하여 만화, 속담, 문화정보를 다루어 단원 내용에 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돕고 있다. 세 단원이 끝날 때마다 Go for it이라는 코너를 넣어 단원의 소재와 관련된 읽기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읽기의 자료로는 유용하나 소재의 내용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D. 법문사 (박영식 외)

D교과서는 단원의 구성을 Part I(5)과 Part II(5)나누어 전체 10과로 타교과서에 비해 단원 구성이 적으며, 듣기와 말하기의 내용을 만화로 된 삽화로 제시하여 시각적인 구성이 눈에 띈다. C 교과서가 타 교과서와 다른 구성을 가진 How to Read에서는 독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독해 기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나의 프로젝트로 각 단원마다 독해 기법을 소개 및 연습활동을 실었다. 단원마다 학생들의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 제시는 학습의 연계성면에서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다.

E. 학국교육미디어 (이홍수 외)

E 교과서는 듣기를 세 단계로 구성, Listen Focus I, II에서는 의사소통

기능의 학습을 담화나 대화 내용으로 제시하여 학습한 후 Additional Practice에서 상위의 학습내용을 보충. 심화하기로 꾸며져 있다. 듣기의 단계가 세 단계로 점층적인 구조는 좋으나 듣기의 다양한 형태가 없고, 나오는 듣기의 문제유형이 단원마다 거의 고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읽기의 본문 하단에는 본문과 관련된 어휘를 소개하는데 발음기호의 제시가 없어 학생들의 효과적인 어휘 학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Self-Study에서는 단원 학습 내용을 종합 평가해 보는 보충 학습 활동으로 주어진 표에 어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대한 학습의 성취 정도를 학생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F. 대한교과서 (이민호 외)

F교과서는 단원의 시작 부분인 LOOK AHEAD 와 Learning Goals 등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그 단원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과 예비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간단한 학습 활동을 다루고 있다. F교과서의 특징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고려한 다양한 과업중심의 활동이 많은데, Project File 에서는 가상 현장 연습을 하도록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 Internet Activity 코너에서는 집에서 과제를 수행해보는 단계로 학생들에게 정보 찾기 등으로 본문과 관련한 읽기 학습의 연장을 유도하고 있다. CHECK YOUR PROGRESS 에서는 단원의 학습 성취도를 실제로 체크해보는 코너가 있어 학습자 스스로 학습이해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G. 두 산 (김성곤 외)

G 교과서는 매 단원의 첫 페이지에서 해당 단원의 주제와 어울리는 사진들과 함께 본문의 내용을 영어로 알기 쉽게 요약해 놓고 있다. 말하기 단계

인 Speak and Act에서 Task 1,2,3,의 제시는 말하기를 점진적 단계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대부분이 제시된 보기를 이용한 말하기 연습활동으로 반복연습을 피하고 있다. G 교과서는 Wrap-up activity 코너를 넣어 학생들이 본문과 관련한 내용을 과제형식으로 모둠별 조사, 토의, 발표 등을 통하여 단원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는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다음으로 단원에 대한 본격적인 연습활동으로 Review and Discuss에서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언어 4기능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다음에 오는 Go Over(보충)와 Go Ahead(심화)중 자신의 성취도에 따라 택일하여 학습을 더 할 수 있도록 하여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학습형태의 제시를 잘 반영하고 있다.

H. 시사영어사 (신정현 외)

H 교과서는 Listening Activity 에서 단원에서 학습할 중요 구문을 실제 상황에 쓰이는 대화를 중심으로 듣기 구성하고 있으며, 듣기와 말하기의 통합형태인 Easy talk에서는 대화문에서 나왔던 구어적 표현의 의미를 확인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적이다. 말하기에서는 pair work을 중심으로 듣기를 통해 익힌 표현을 활용하여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Working Together에서는 말하기의 심화학습 단계로 학생 스스로 상황을 만들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2. 언어기능 및 성취기준(활동) 분석

고등학교 영어과 선택 교과목의 목표는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배양에 있으므로 내용 영역의 의사소통 항목에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등의 언어 활동을 통해 성취해야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듣기

(1) 이론적 배경

7차 영어과 교육과정은 언어 네 기능의 통합적 접근에 의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언어의 전이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대두된 의사소통 기능에 힘입어 언어에 대한 지식보다 특정한 상황에서의 언어사용이 강조됨에 따라 상대방 발화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이에 맞게 반응하는 듣기 이해 기능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Rivers(1981)는 듣기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에서 다른 어떤 언어 기술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되어진다. 평균적으로 우리는 말하는 것 보다 두 배나 많이 듣고, 읽는 것보다는 네 배, 쓰는 것보다는 5배 이상을 많이 듣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음성을 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심리적인 면과 결부되어 있고, 또 뚜렷한 지식 체계가 없기 때문에, 듣기 능력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기능이라고 간주되어져 왔다. 그러나 Rivers(1981)는 듣기가 귀에 들리는 음성자료에서 의미를 창출해 내는 창조적인 기능이라고 말한다. 한편 Widdowson(1978)은 Hearing 과 Listening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듣기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Hearing은 어법을 이해하는 단계인데 반해 Listening은 언어를 사용하는 단계로서, 청자가 문장들의 의사 전달적 기능을 인지하고 그 이전에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추어 의사 전달의 상호과정에서 문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한다. 언어처리 방식에 있어 듣기이해 과정은 외적 자료, 즉 들려오는 소리로부터 단어, 절, 문장 등의 문법적 관계와 어휘적 의미 등으로 올라가면서 들려오는 메시지의 합성적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상향적 처리(bottom-up processing)와 청자의 내적 자료, 즉 축적된 청자의 사전지식이나 포괄적 기대로 내용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하향적 처리(top-down processing), 이들이 함께 작용하는 상호 작용적 처리(interactive processing)라고 할 수 있다. 상황적 처리 과정에서는 듣기 기술이 세부사항에 초점을 두는 선택적 듣기를 사용하며 이와는 달리 하향적 언어 처리 과정에서는 전반적인 의미에 초점을 두는 포괄적 듣기를 사용한다.

Brown(1994)이 제시한 듣기의 상호작용 모델은 다음의 8가지 하위과정으로 제시되고 있다.

첫째, 듣기 자료의 이미지를 잠시 단기기억 속에 저장한다.

둘째, 듣기 내용의 형태 및 장르를 결정한다. 셋째, 화자의 목적 및 발화의 의도를 추론한다. 넷째,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들은 내용을 해석한다. 다섯째, 발화에 문자의미를 부여하여 발화의 표면적인 해석을 한다. 여섯째, 발화의 의도된 의미를 부여하여 청자가 인식한 것과 발화자의 의도가 연결되는 것이다. 일곱째, 단기 기억 혹은 장기 기억에 저장할지를 결정한다. 여덟째 중요한 개념만을 기억한다.

위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듣기 이해 과정이란 선택적 듣기를 위주로 하는 상향적 처리와 전반적 청취를 위주로 하는 하향적 처리의 의사소통적 접근법을 통합한 상호 작용적, 협동적 듣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각 교과서의 듣기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듣기활동을 제시한 이론을 살펴보도록 한다. 듣기활동에는 듣기 전 활동(pre-listening), 듣기 중 활동(while-listening), 듣기 후 활동(post-listening)이 있다. 듣기 활동을 위한 연습활동에는 Paulston(1991), Ur(1999) 등이 있다. Paulston(1991)은 듣기 활동을 상향식 과정과 하향식 과정으로 나눈다. 상향식 과정에는 강제의 사용 인지하기, 부정문과 긍정문 구분하기, 연결 접사 인지하기, Yes/No 와 WH 의문문 구분하기, 대화에서 사용된 대명사의 지시물 확인으로 분류한다. 하향식 과정에는 그림을 보고 대화를 들은 후 그림과 대화 연결하기, 대화의 일부를 듣고 주제를 추론하기, 대화에서 다루어질 주요 줄거리를 읽고 들으면서 순서 찾기, 한쪽 편의 대화를 들은 후 상대방의 응답 추측하기, 주제에 대한 정보를 읽은 다음 이에 관한 대화를 듣고, 그 정보가 언급되었는지를 점검하기로 나눈다.

Ur(1999)는 듣기 활동을 반응의 정도에 따라 무반응(no overt responses), 짧은 반응(short responses), 긴 반응(longer responses), 확장된 반응(expanded responses) 4가지로 분류한다. 무반응에는 이야기, 노래, 오락이 속한다. 짧은 반응에는 신체 반응하기, 항목에 체크하기, 진위 식별하기, 실수 찾아내기, 빈 칸 채우기, 정의를 추측하기, 글의 요지/세부사항 훑어보기가 포함된다. 긴 반응에는 질문에 응답하기, 필기하기, 번역하기, 요약하기가 포함되고, 확장된 반응에는 문제해결, 해석적 청취가 이에 속한다.

(2) 듣기 구성 및 활동 분석

전체적인 듣기 활동은 말하기와 통합되어 의사소통능력중심의 상호 작용적 활동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듣기와 말하기, 쓰기와 통합되어 받아쓰기 혹은 dicto-comp (듣고 작문하기)와 같은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다

양한 소재에 따른 표 완성이나 듣고 의견 제시하기, 해당되는 답에 밑줄 긋기, 추론하기 등 학습자의 적극적인 듣기 활동을 이끌어 내고 있다.

(표2) 영어(I)교과서 듣기 구성방식

교과서	듣기의 구성
중앙교육	Listen&Do(11-a, b) 그림 보면서 대화 듣고 의미 생각하기, 대화 듣고 관련된 그림 찾기, 대화듣고 세부적인 사실 고르기, 대화 듣고 T/F 체크하기, 대화 듣고 빈칸 채우기, 대화 듣고 서식 완성하기, 대화 듣고 물음에 대한 답 선택하기, 토론 듣고 각 토론자의 입장 고르기, 듣고 받아 적기, 듣고 대답 쓰기, 순서 찾기, 듣고 의견제시하기 (질문에 답하기), 듣고 말하기, 추측하기, 듣고 주제 찾기
지학사	Listen&Get Ready→Listen&Check→Listen&Do→Dialogue: 대화 듣고 관련된 그림 찾기, 들은 내용에 해당되는 답 선택하기, 빈칸 완성하기, 듣고 주제 찾기, 듣고 대답 쓰기, 듣고 말하기, 이어질 말 고르기(대답하기), 듣고 예측하기, 듣고 요약하기, 듣고 빈칸 채우기, 듣고 표 완성하기, 듣고 대답하기, 듣고 문장 만들기, 순서 찾기, 듣고 이어질 말 써보기, 순서 정하기
금성	대화 듣고 그림 찾기, 대화 듣고 순서 고르기, 대화 듣고 요지 찾기, 대화듣고 세부 사항 찾기, 대화 듣고 문장완성하기, 대화 듣고 상황에 대한 이유 말하기, 사실 유추하기, 대화 듣고 상황 묘사하기, 듣고 답하기(문장), 세부 사항 찾기,(T/F 찾기, 일치여부) Notice the Sounds 억양과 연음에 유의하여 듣고 따라하기
법문사	Listen &think→Listen&Do→Listen&Speak1→Listen&Speak2 듣고 생각하기, 듣고 상황에 맞는 그림 고르기, 듣고 질문에 답하기, 듣고 문장 완성하기, 듣고 대화 연습하기, 대화 듣고 빈칸 채우고 짝과 대화 연습하기, 대화 듣고 일치하는 답 고르기, 대화 듣고 T/F 체크하기, 대화 듣고 주제 고르기, 대화 듣고 쓰기, 대화 듣고 표/그림 완성하기
한국	Listening Focus1 → Listening Focus 2 →Additional Practice(interact1, 2) 상황 생각하며 듣기, 들은 어휘나 어구 선택하기, 요지 찾기(중심소재, 전개될 상황 유추하기, 세부 사항 찾기, 내용 요약하기) 대화 듣고 빈칸 채우기, 대화 듣고 세부사항 찾기(이어질 상황 찾기, 제목 찾기), 문장완성하기, 듣고 의견제시하기
대한	Listen and Speak1→ Listen and Speak2 그림보고 대화 듣기, 대화 듣고 질문에 답하기, 대화 듣고 답 선택하기, 대화 듣고 파트너와 연습하기, 대화 듣고 빈칸 채우기, 대화 듣고 쓰기, 대화 듣고 표 완성하기, 대화 듣고 맞는 내용과 연결하기, 표 완성하기

교과서	듣기의 구성
두 산	Listen and Do 그림 보면서 듣고 T/F 체크하기, 듣고 해당되는 그림 고르기, 듣고 질문에 답하기, 표 완성하기, 듣고 쓰기, 듣고 문장 완성하기, 듣고 세부사항 찾기(순서 정하기) 빈칸 채우기 Listening Tip: 억양, 강세, 연음 등 발음 제시
시 사	Listening Activity 대화 듣고 내용 찾기, 듣고 내용 생각해보기, 듣고 물음에 답하기, 빈칸 채우기, 대화 듣고 짝과 연습하기, 듣고 T/F 체크하기, 순서 정하기, 듣고 해당되는 내용 고르기, 의미 생각하면서 듣기, 듣고 물음에 대답하기, 표 완성하기

A. 중앙교육연구소(김충배 외)

A교과서의 듣기 내용은 학습목표로 설정된 의사소통에 따른 예시문이나 언어 형식등을 단어 위주의 해석적인 듣기 학습이 아닌 문맥을 통한 실제 발화 상황의 의미 이해라는 측면에서 듣기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Listen & Do에서는 그림을 보면서 듣기는 대화의 내용을 듣고 의사소통 기능 표현과 언어형식을 사용하여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 보는 것으로 어떤 문제해결의 능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원 전체를 심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덜 부담을 주고 듣기활동에 전념을 할 수 있게 하였다. A의 교과서는 타 교과서의 비해 듣기 활동이 다양하고 단지 듣기위주의 학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화 듣고 받아 적기, 대화 듣고 내용 요약해서 쓰기, 대화의 순서를 바로 잡고 짝과 함께 대화를 말해보기 등 언어 기능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빈칸 채우기나 표 완성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실제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어서 눈에 띄었다. 예를 들면, TV 프로

그림 안내방송 듣고 빈칸 완성하기, 구인광고문 듣고 광고문 완성하기, 설문 조사 그래프 완성하기, 병원 예약표 완성하기 등 학습자의 흥미와 배경 지식의 활성화라는 면에서 듣기 학습은 효과적이라 하겠다.

B. 지학사(이맹성 외)

B교과서는 Listen & Get Ready, Listen & Check, Listen & Do, Dialog, 연습문제에서의 듣기활동 까지 점층적인 듣기 활동과 Dialog에서의 말하기와 연결된 듣기학습을 제시하고 있다. Dialog에서는 듣기에서 자연스럽게 말하기 학습으로 이어지게 구성하여 dialog 뿐만 아니라, 방송, 연설, 강연 등 음성 언어의 여러 담화(monolog)형식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다양한 의사소통 자료를 접할 수 있어 듣기와 말하기 학습에 있어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다. 매 단원마다 두 개의 텍스트가 정해지고 미리 보게 되는 유도질문을 생각하면서 대화나 담화를 듣고 이해한 다음, 친구와 대화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4컷 짜리 만화가 대본과 함께 제시되어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돕는데 효과적이다. 타 교과서에 비해 듣기의 구성은 좀 많은 듯 하나 Listen & Check에서는 대화 듣고 해당 그림 및 관련사항 찾기가 매 단원마다 형태가 동일하게 나와 다소 단조로움을 느낄 수 있다.

C. 금성(김덕기 외)

C교과서의 Listen에서는 듣기활동의 구성이 매 단원마다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림을 보고 해당되는 어휘나 구문을 찾기, 그림 고르기, 알맞은 말 넣어 요약하기, 듣고 쓰기, 듣고 말하기, 대화 듣고 해당되는 대답선택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듣고 물음에 답하는 질문에 듣고 쓰기를 해야 할지, 듣고 말하기를 해야 할지, 질문 구성에 있어 학생들의 연

습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 본다. Notice the Sounds 라는 코너에서는 듣기내용과 관련된 억양과 연음 등 다양한 소리 변화 현상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듣기학습에 효과적이라 하겠다.

D. 뱀문사(박영식 외)

D교과서에서는 Listen & Think, Listen & Do, Listen & Speak1, Listen & Speak2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학습목표로 제시된 의사소통 기능의 예시문을 이용한 듣기활동을 한다. Listen & Do에서는 대화 듣고 상황에 맞는 그림 고르기, 듣고 질문에 해당하는 답 선택하기, 듣고 쓰기(문장완성하기, 빈칸 채우기)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Listen & Speak1에서는 실용적인 대화문이 만화 그림과 함께 제시되어 학생들의 이해와 흥미를 도우며 학습의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Listen & Speak2에서는 대화 듣고 빈칸을 완성하면서 짝과 대화문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여 듣기와 말하기의 영역의 활동을 통합한 학습을 하게 하였다.

E. 한국교육미디어(이흥수 외)

E교과서는 Listening Focus I, II, Additional Practice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내용을 듣고 세부 사항을 파악하는 단계로 그림보고 상황 추측하기, 듣고 단어 찾기, 듣고 요지를 이해하고 질문에 해당되는 답 선택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단계인 Listening Focus II에서는 대화 듣고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졌고, 그의 활동으로는 상황에 맞는 그림 고르기, 문장 완성하기, 적절한 주제 고르기 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단계인 Additional Practice에서는 앞의 단계의 심화 보충의 단계로 먼저 보충에서는 앞에서 배운 의사소통 표현을 기억해 빈칸을 채운 후 대화를

들으며 스스로 답을 확인하고, 심화에서는 적절한 그림이나 주제 고르기, 문장완성하기로 구성된다. 그러나 매 단원이 거의 같은 구성으로 구성된 것은 물론 다양한 듣기 활동이 타 교과서에 비해 부족한편이다.

F. 대한교과서 (이민호 외)

F교과서는 Listen and Speak 1, 2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소통 기능과 언어형식을 듣기 이전에 미리 제시해주고 있다. Listen and Speak 1에서는 Task A, B로 나뉘는데, A에서는 주로 대화 듣고 질문에 답하기(알맞은 답 선택하기), B에서는 알맞은 응답 말 찾기로 구성되며, Speaking Task에서는 기본 대화를 짝과 연습한다. Listen and Speak 2에서 역시 같은 구성으로 Task A에서는 대화 듣고 빈칸 채우고 나서 대화를 짝과 연습하기, Task B에서는 대화를 듣고 맞는 답 선택하기(주제 파악하기) 와 심화에서는 듣고 의견제시하기, 듣고 말하기 등으로 구성된다. E교과서는 다양한 듣기 연습 활동의 제시가 다소 부족하고, 연습문제에서도 듣기는 구성되어 있지 않다.

G. 두산 (김성곤 외)

G 교과서는 Listen and Do에서 A~D 까지 구성으로 A에서는 만화 형식을 도입하여 그림 보며 듣고 T/F 활동을 제시하고 있고, B에서는 그림보고 맞는 그림 찾기 내지는 순서 정하기로 구성하고 있으며, C에서는 듣고 질문에 대한 답 적기(문장완성), 해당되는 답 선택하기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D에서는 읽기 자료와 관련된 내용에 관한 표와 차트로 빈 칸 채우기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타 교과서에서는 듣기를 말하기와 구별을 따로 두지 않고 통합제시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G교과서는 말하기와 연계하여 제시하

고 있지 않으며, 매 단원마다 듣기활동이 동일시 제시되고 있어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 Listening Tip 에서는 효과적인 듣기 학습을 위한 발음의 설명을 다루고 있는데, 발음상의 유의점을 상세히 다루고 있는 편이다.

H. 시사영어사 (신정현 외)

H 교과서는 Listening Activity에서 A,B,C 단계와 Communicate에서 A,B, Easy Talk라는 구성으로 듣기와 말하기의 통합적인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듣기에서 대화 듣고 내용 유추하기, 듣고 해당되는 답 표시하기, 듣고 문장 완성하기, T/F , 듣고 맞는 내용 연결하기, 표 완성하기, 내용 듣고 자신의 생각 적어 보기 등 다양한 듣기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Communicate에서는 실제 발화 상태에서의 대화 연습을 피할 수 있는 예시문을 제시 듣고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특히 Easy Talk에서는 대화문에서 나왔던 구어적 표현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간단한 삽화 제시하고 있어 발화 상황을 연상할 수 있도록 유의미적으로 구성한 점이 특이하다.

다음으로 각 교과서의 듣기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 교과서는 어떠한 듣기 활동에 비중을 두어 학습자의 의사소통의 향상을 위한 듣기학습을 제시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듣기 활동을 Paulston(1991)과 Ur(1999)에 제시된 듣기 연습 활동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표 3) 영어(I) 교과서의 듣기 활동

분 류	중앙	지학	금성	범문	한국	대한	두산	시사	계
그림 보면서 듣기 (그림에 해당된 어휘, 어구 찾기)	12	2	12	12	12	12	12	1	75
듣은 내용에 해당되는 대답 선택하기	31	45	19	56	43	73	16	38	321
대화 듣고 해당되는 그림 찾기(맞는 그림 연결하기)	20	27	11	20	20	12	18	3	131
듣고 받아 적기	7	1		1					9
듣고 대답 쓰기	4	10	8	9		3	23	4	61
듣고 말하기	9	24	17	12	3	36		19	120
순서 찾기(배열하기)	3	7	2	3			5	1	21
빈칸 채우기	14	14	5	12	20	15	6	22	108
T/F	4		2	2			12	1	21
표/그림 완성하기	8	7	4	3	3	1	9	4	39
이어질 말 고르기		4		3				1	8
듣고 문장 만들기	2	9	5	2	8	1	4	6	37
듣고 요약하기	3	5	14	2			1	2	27
추측하기	3	2	2	1		2		1	11
듣고 의견 제시하기	2	5	3			10		5	15
듣고 주제문 고르기		2	2	2	12		2	6	26
계	122	164	106	140	121	165	108	114	1040

위의 결과로 듣기의 구성과 연습 활동을 분석해 보면, 먼저, 각 교과서들은 거의 대부분 매 단원마다 같은 형태의 듣기 연습활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각 단원의 소재나 의사소통의 기능에 따라 활동에 있어 약간의 차별된 연습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점층적인 듣기 구성단계로 짜여져 있고, 듣기활동만을 제시하기보다는 말하기와 읽기, 쓰기 등을 통합한 형태로 듣기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듣기 활동의 종류로는 그림 보면서

듣기, 듣고 받아 적기, 들은 내용에 해당되는 대답 선택하기, 듣고 대답 쓰기, 순서 찾기, 빈 칸 채우기, T/F, 표/그림 완성하기, 이어질 말 고르기, 듣고 문장 만들기, 듣고 요약하기, 추측하기, 듣고 의견제시하기 등이다. 교과서 대부분이 대화를 듣고 해당되는 대답선택하기가 321개로 제일 많이 구성되어있다. 이는 대화 듣고 학생들의 듣기 이해여부를 확인하는 정도로 제시되어 각 교과서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본문의 예비 단계로 학습자의 능동적인 청해 학습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그 다음으로는 해당되는 그림 찾기가 131개 제시되어 있으며, 교과서별로는 듣기 활동이 가장 많은 교과서는 B와 F 교과서로 164, 165개를 제시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E, F 교과서는 듣기활동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교과서가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 대화문에서부터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내용의 다양한 듣기 자료 내지는 듣고 표 완성하기에서도 실제적인 자료나 상황을 담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은 미흡하다. 듣기자료와 연결하여 학습자 자신의 경험 및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학습자 스스로 듣기자료 내용에 이해와 추론을 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능동적인 듣기활동의 비중이 커져야 할 것이다.

2) 말하기

(1) 이론적 배경

1950-60년대에는 Audiolingualism 입장에서 정확한 발음에 중점을 두었고 1970년대에는 실제성(authenticity)을 강조하여 자연스러움에 초점을 두었다. 1980년대에는 담화(discourse)의 중요한 요소로써 발음이 의사소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최근에는 이에 반해 개별음소의 정확한 발음뿐만 아니

라 담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발음이 강조되고 있다. 왜냐하면 화자의 느낌이나 정서는 초분절 자질(suprasegmental features)에서 더 잘 드러나며 초분절 자질을 통한 화자의 감정이해는 분절 자질 이해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초분절 자질은 학습 초기부터 언어사용의 중요한 요소로써 올바른 발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연습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Brown(1994)은 말하기 활동의 교실 내 유형을 6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 모방하여 말하기(imitative speaking)는 언어의 형태를 익히기 위한 활동으로 들은 것을 그대로 따라 하는 반복연습의 형태로서 음운론적 또는 문법적인 어려움이 있는 언어를 듣고 반복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집중해서 말하기(responsive speaking)는 언어의 음운론적이거나 문법적인 측면을 연습하기 위한 활동이다.

셋째, 반응하여 말하기(responsive speaking)은 상대방의 질문이나 코멘트에 응답하는 연습활동이다.

넷째, 정보 전달하기(interpersonal dialogue)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교환하기 위한 말하기 활동으로 실생활에서의 언어발화를 유도할 수 있는 활동이다.

다섯째, 상호작용하기(interpersonal dialogue)는 개인적인 태도를 표시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 혹은 촉진시키는 말하기 활동이다.

여섯째, 독백하기(extensive monologue)는 3분 발표와 같은 자신의 견해를 담은 말하기 활동이다.

한편 Bygate(1987)는 말하기에서 내용을 주고받는 방식을 관례(routine)를 기준으로 정보 처리(information)와 상호작용(interaction)으로 나누었다. 정보처리는 다시 묘사, 지시, 비교 등을 포함하는 해석적인 구조와 설명, 정당화, 예측, 결정을 포함하는 평가 적인 구조로 나뉜다. 한편 상호작용은 직장의 인터뷰와 같은 사무적인 것과 저녁파티와 같은 사회적인 것으로 나뉜다.

다음으로 각 교과서의 말하기 활동의 분석을 위한 말하기 활동의 이론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말하기 활동에는 말하기 전 활동(pre-speaking), 말하기 중 활동(while-speaking), 말하기 후 활동(post-speaking)이 있다. 말하기 활동을 위한 연습 활동은 Paulston(1991)과 Clarke(1987) 등이 제시한 연습활동이 있다. Paulston(1991)은 말하기 활동의 유형을 일상적인 표현과 대화(social formulas and dialogues), 공동 수행 과제(community-oriented tasks), 문제 해결 활동(problem-solving activities), 역할극으로 분류한다. Clarke(1987)은 문제해결과 개인적 정보 전달 및 문제해결, 관계의 유지, 특정한 정보 찾기, 정보를 듣고 처리하기,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를 전달하기(일기 쓰기 등), 자료를 듣거나 읽고 반응하기(듣고 토론), 글을 짓기로 세분한다.

(2) 말하기 구성 및 활동분석

각 교과서의 말하기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4) 영어(I) 말하기 구성방식

교과서	말하기
중 앙	<p>Speak and Act1</p> <p>Dialog: 읽기 소재와 관련된 대화보고 말하기</p> <p>Activity1: 그림 보면서 주어진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기</p> <p>Activity2: 표(대화)완성하여 말하기, information gap, 모듈별로 토론하고 적어보기, 스무고개 놀이, 그림보고 자기생각 말하기</p> <p>Say it right: 듣고 따라하기</p> <p>Speak and Act2</p> <p>Dialog: 읽기 소재와 관련된 대화보고 말하기</p> <p>Activity1: 그림보고 주어진 표현 이용하여 말하기</p> <p>Activity2: 게임 활용, 상황 가정하여 말하기, information gap, 대화 빈칸 채우기, 상황에 따른 이유 써보기, 대화 순서 연결하기, 역할극, 표 완성하여 말하기, Say it right: 듣고 따라하기</p>
지 학	<p>Dialog(monologue), 만화: 유도질문(guiding questions)을 생각하면서 대화나 담화 듣고 말하기</p> <p>Let's talk: 의사소통기능에 제시된 표현 말하기, Pronunciation Tips: 발음연습하기</p> <p>Let's communicate: 대화 완성 후 말하기, 추측하기, 상황가정하기, 대화 표 완성하기, 모듈별로 대화화기, 발표하기, 질문에 답하기, 두 대화 연결하기, 보기 보면서 대화하기, 토론하기, 모듈으로 말하기 게임하기</p>
금 성	<p>Speak: 짝과 함께 제시된 문장 바꾸어 가며 대화하기, 대화내용에 따른 자기의견 말하기, 표 완성하고 대화하기, 역할극, 그림 보며 대화 연습하기, 그룹으로 상황에 맞는 표현 만들어 보기, 자신의 의견 말하고 메모하기, dialogue 제시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pair work</p> <p>Language Guide: 단원내용과 관련된 의사소통, 언어형식을 바탕으로 대화 내용 시 활용할 수 있는 표현 제시</p>

법문	<p>Listen & Speak 1 dialog 듣고 짝과 대화 연습하기(만화), Key point: 의사소통기능과 중요표현 정리</p> <p>Listen & Speak 2 제시된 예문을 보고 문장의 빈칸 채우고 짝과 대화 연습하기, Key Point: 의사소통기능 표현의 제시에 따라서 문장하고 대화하기, 그림 보며 대화하기, 빈칸 채우고 대화하기, 상황에 따른 표 완성하고 대화하기, 토론하기, 인터뷰하기, 제시된 dialog 보고 pair work, 그룹으로 말하기 게임</p>
한국	<p>Communicator 1 : 의사소통기능 표현을 짝과 함께 대화하기, A. guided conversation: 의사소통 기능 중심의 대화를 완성한 다음 역할 나누어 연습하기 B. conversation building: 의사소통 기능을 이해하면서 짝과 대화 연습하기</p> <p>Communicator 2 : (Group work) A. Interchange: 예시대로 묻는 모둠 활동하기 제시된 형태에 따라 조사하고 표 완성하기, 토론하기, 문형 바꾸어 대화하기, 자기의견 말하기, 문제해결에 관한 정보 조사하고 대화하기, 질문에 자기 답하기 Additional practice: pair work(보충): 우리말에 맞는 영어 표현 말하기 group work(심화): 그림에 맞는 표현 생각하여 말하기, 대화요약하기</p>
대한	<p>Listen & Speak 1 Speaking Task: 대화 짝과 연습하기, 문형 바꾸어 가며 대화 연습하기</p> <p>Listen and Speak 2 Speaking Task: 주어진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경험을 모둠원에게 발표하기, 주어진 상황에 대화 만들어 보고 사용하기, 역할극하기</p>
두산	<p>Speak and Act conversation: 의사소통기능 표현을 연습하기. task1: 보기와 같은 대화를 짝과 연습해 보기(상황 바꾸어 연습하기) task2: 빈칸을 채우고 짝과 대화해 보기(Useful Expressions 참고) task3: 모둠 활동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유추하고 말하기, 표 완성하기 (위의 표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대화를 해보기) 토론하기, 질문에 자기 답하기, 대화 완성 후 말하기</p>
시사	<p>Speaking Activity A: 짝과 함께 대화를 연습하고 제시된 표현 또는 상황을 이용하여 짧은 대화 만들어 보기 B: 의사소통기능 표현을 상황과 표현을 바꾸어 가며 연습하기</p> <p>Working together A: 상황을 만들어 보기의 예문처럼 말해보기, 차트 완성하기 B: 대화와 반대되는 상황 만들어 발표하기, 모둠별 발표하기, 자신(상황가정)말하기</p>

A. 중앙교육진흥연구소(김충배 외)

A의 교과서의 특징은 타 교과서에 비해 통합적인 제시가 많으며, 매 단원 Activity B에서는 문제해결 방식으로 조사 내용을 쓰고 발표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쓰기 학습과 연결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발음학습의 제시가 미흡한데 비해 A의 교과서는 Say It Right에서 다양한 발음 활동을 짧은 부연설명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Say It Right에서 제시된 내용을 단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원에서는 -graphy/-grapher로 끝나는 어휘는 바로 앞에 강세가 온다. -logy로 끝나는 어휘는 -logy 바로 앞음절 o에 제 1강세가 온다. 대화 속의 연음: Why don't you write down the names of the friends?, /ð/ 와 /p/의 약화된 발음을 제시하고 있다. 2단원에서는 자음 충돌을 피하기 위한 /t/음 약화, of발음에서의 /v/음 약화를 제시하고 있고, 3단원에서는 clear(명료한)과 dark(둔탁한) 1의 발음을 제시, 4단원에서는 동사+전치사의 경우 강세의 위치, 약음절의 모음/ə/와 앞 단어 자음의 연음 현상, 혼동하기 쉬운 모음의 발음 won't, want를 제시하고 있다. 5단원에서는 ed의 두 가지 발음 /t/, /ɪd/, 과 "I guess"와 "I've got you"의 억양을 익힐 수 있다. 6단원에서는 미국영어와 영국 영어 사이의 발음 차이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동일. 유사 자음 중첩 회피 현상 및 have 의 약화 현상을 익힐 수 있다. 7단원에서는 복합어휘의 강세를 제시하고 있고, 8과에서는 /t/가 /n/에 동화되는 발음 현상과 문장에서 어구의 연음 현상과 "You mean it?"의 억양을 제시하고 있다. 9과에서는 /t/발음이 /n/에 동화되는 발음 현상을 제시하였고, 10과에서는 /t/의 성문 폐쇄음을 소개하고 있으며, 11과에서는 장모음 /i:/, 단모음 /i/의 발음을 설명하고 있다. 12과에서는 기능어에서 /d/가 약화된 발음을 제시하고 있다.

Activity B에서는 개인별, 그룹별 말하기 활동의 심화된 형태로 다양한 소재에 의한 활동이 제시되는데 그 중 신문기사 읽고 자신의 의견 발표해보기, 이솝 우화인 The Country Mouse and the Town Mouse의 대화를 듣고 받아 적은 뒤, 역할극 해보기,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 종목을 골라 친구와 스무고개 해보기와 같이 활동의 내용과 특징에 맞게 말하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말하기 뿐 만 아니라 언어기능의 통합적인 제시와 함께 주어진 모둠 활동은 제한된 학습시간에 비해 다소 많은 듯 하다.

B. 지학사(이맹성 외)

B교과서의 말하기 특징으로는 듣기, 말하기, 그리고 읽기 학습을 통합시켜 dialog을 제시하고 있다. 의사소통기능에서 제시된 표현을 중심으로 Monologue(만화) 혹은 Dialog를 들려주며 주어진 유도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활동으로 방송, 연설, 강연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 Let's Communicate 에서는 말하기 활동의 심화 단계로 개인별 모둠별, 활동으로 기계적인 연습이나, 모방이 아닌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참여하는 과업 중심의 활동이나 게임 중심의 모둠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C. 금성출판사(김덕기 외)

C교과서의 경우 Speak에서 중점적으로 말하기 활동을 다루고 있는데, A, B, C의 세 단계로 나누어 A에서는 그림과 밑줄 친 대화를 통해 구문을 바꾸어 가며 대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B에서는 제시된 대화 내용을 연습하고 자기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였고, C에서는 좀 더 말하기 활동의 활용 부분으로 모둠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C교과서의 경우 타 교과서에 비해 말하기 구성이 다소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모둠 활동에서 제시된

말하기 활동의 소재는 다양하고 흥미로우며 실제성을 반영하는 것이 많은 편이다. 예를 들면, 도움을 요청하는 응급전화를 해 봅시다. 5-6명이 한 조가 되어 그림 안에서 야영장의 각 장소에 필요한 표지판을 만들어 봅시다. 그림의 메뉴판을 보며, 점원과 손님이 되어 역할극을 해 봅시다. 사진을 보며, 만들고 싶은 음식에 대해 말해봅시다 등이다.

D. 법문사(박영식외)

D교과서는 Speak Out에서 A와 B로 나뉘어 말하기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A에서는 Fill It In으로 의사소통기능 표현의 제시에 따라서 문장완성하고 대화하기가 구성되어 있고, B에서는 모둠 활동으로 말하기 활동을 심화하였다. 제시어가 각 단원마다 다르게 제시되어 있는데 figure it out, starters, making plans, talk it over, keep talking, small talk, favorites-mini survey, let's talk, yes/ no questions, living space등으로 학습자가 다양한 형태의 말하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D교과서의 말하기 활동의 심화는 단원을 정리하는 연습문제에서 creative activity 코너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E. 한국교육미디어(이홍수외)

E 교과서의 말하기의 구성은 Communicator 1,2 단계와 이를 바탕으로 보충과 심화 단계인 Additional Practice 단계로 구성하고 있으며, Communicator 1 단계에서는 pair work 로 의사소통 기능 중심의 대화를 완성한 다음 역할을 나누어 연습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2단계에서는 group work 로 분단이 나 조별로 과제 수행 중심의 문제 해결과 활동 중심의 대화 연습을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E 교과서의 특이점은 Expressions라는 코너에서 실제의 발화상황에서 올바른 기능의 담화 형태를 소개해 주고 있다. 이는 자칫 기계

적이고 형식적인 말하기 연습이 될 수 있는 점을 크게 보완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어에서는 감사에 관한 표현이 인색하지 않다. 영어로 대화를 나눌 때 사소한 것이라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I really appreciate it, But no thanks! / Anyway, thanks for your explanation)

2. 구어체에서는 완전한 문장이 아닌 생략된 표현이 흔히 사용된다.

(For example, string instruments. / I did/ Yes, with my orchestra members.)

3. You mean~?: ~라는 말이지요? 삽입구로 자주 사용되는데, 상대방의 말이나 의도를 확인 반복하기 위해 쓰인다.

4.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영어의 일상 대화에서 must have done, should have done, could have done의 표현이 매우 자주 사용된다.

(He must have prepared a lot / Oh, I wish I had heard his speech.)

5. 평서문 형식의 문장이 감탄문으로 쓰일 때는 억양과 강세에 유의해서 말한다.

(But it is very shy! / It looks like an ostrich!)

6. 실제 영어 대화에서 자신의 의사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다. 설득, 주장, 반복 등의 맥락에서 ‘내 생각은~’, ‘내가 말하려는 것은~’의 의미로 자신의 생각을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다.

(Form my point of view,/ What I’m saying is that~)

7. 앞선 말의 주요 정보를 다시 반복하면서 강세를 주면 대화가 보다 부드럽게 이어진다. (Unhappy? Addicted? Faster?)

8. 평서문의 형식이지만 억양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의문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You want to keep these old bags? / We bought everything for tomorrow’s picnic?)

9. kind 나 rather, even 등은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의사소통에서 미묘한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한다.

(I’d rather be passive / It’s kind of like slavery.)

10. 구어에서 흔히 쓰는 well, hmm, uh 와 같은 말들은 실제 대화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O.K? / Oh, no. O.K., O.K)

F. 대한교과서(이민호 외)

F 교과서는 Listen and Speak 1, 2에서 Speaking Task로 말하기 활동이 구성되어 듣기와 말하기가 통합되어 제시되고 있다. Listen and Speak 1 에서의 Speaking Task는 대화 듣고 짝과 연습하기로 기본적인 대화 연습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Listen and Speak 2에서의 Speaking Task는 그룹이나 모둠 활동으로 Role Play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F교과서는 타 교과서에 비해 말하기의 다양한 활동이 부족한 편이고, 매 단원마다 같은 말하기 활동으로 다소 단순한 구성의 느낌이 들고 Role Play 역시 제시된 표현이 있어서 학습자로 하여금 자유 발화나 심층적인 의사소통 기능의 향상을 기대하기에는 힘들다.

G. 두산(김성곤 외)

G 교과서는 Speak and Act라는 구성으로 말하기 활동을 담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과서가 듣기와 말하기의 통합적인 언어기능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G 교과서는 말하기 활동만을 제시하고 있다. 말하기 활동의 첫 단계인 Conversation에서는 단원의 의사소통기능 연습을 대화식으로 제시하고 있고 대화의 주요 내용을 묻는 질문을 해줌으로써 내용파악을 할 수 있게 해놓았으며, 다음 단계로 Task 1, 2, 3의 단계로 말하기 구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점진적인 구성으로 보기엔 내용의 난이도와 다양성이 부족한 편이 있다.

G 교과서는 대부분 상황에 맞는 말하기의 대본이 보기로 주어져 있어 모둠 활동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다양한 말하기 활동을 유도하기보다는 제시된

형태의 말하기 표현을 이용할 수 있게 너무 많은 보기를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는 자칫 학습자가 보기의 예만을 이용하여 유의미적인 이고 실제적인 대화의 연습보다는 기계적인 말하기 활동이 될 우려가 높다고 본다.

H. 시사영어사(신정현 외)

H 교과서에서는 Easy talk라는 코너에서 구어적인 표현을 실제 발화상황의 구성에서 소개하고 있어 유의미적인 말하기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중심의 말하기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학습자가 스스로 실제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단원에서 언급되는 의사소통기능 표현을 이용하여 짧은 대화를 만들어 연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전체적으로 유의미적인 상황에서 의사소통기능의 대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재와 과업 안에서 말하기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듣기와 말하기, 제시된 상황에서 문제 해결점을 쓰고 말하기 등, 통합적인 언어기능 수행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소집단 활동을 제시하여 개별학습 뿐만 아니라 상호 작용적인 문제해결학습에 중점을 둬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말하기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점진적인 단계로 말하기 활동을 구성하고 있고, 말하기 소재에 따라 ‘자신의 말로 표현하기’와 ‘상상해서 설명하기’등과 같은 자유발화를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기계적인 말하기 학습이 아니라 유의미적인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이끄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말하기의 모둠 활동이나 심화, 보충에서 제시한 말하기 활동은 제한된 학습 시간 내에서 소화해 낼 수 있는 과업수행의 양으론 다소 많은 듯 하다.

다음은 각 교과서에서 제시한 다양한 말하기 활동이 각 교과서 내에서 얼마나 다루어지고 있고 어떠한 말하기 활동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말하기 연습을 유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말하기 활동의 분석은 Clarke(1987)과 Paulston(1991)의 말하기 연습 활동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5) 영어(I) 교과서의 말하기 활동

분 류	중앙	지학	금성	범문	한국	대한	두산	시사	계
보기처럼(짝과) 대화하기	54	58	15	30	38	25	36	28	284
대화 빈곳 채우기	15	2	12	21	20	2	13	13	98
질문에 답하기	11	5	5	1	5	12	12	13	64
대화 순서 연결하기	3	1	1					2	7
그림 보며 말하기	28	4	4	2	1		4	3	46
그림과 말 연결하기	2							1	3
자기 말로 표현하기	7	6	6	6	2	12	3	20	62
역 할 극(게임)	2		2	1			1	2	8
토론하기 (조사하고 의견 나누기)	4	2	7	5	7	5	9	4	43
표 완성	4	5	3	3	4		2	5	26
내용에 근거하여 뉴스보도 하기, 안내방송, 인터뷰	1			3	1	1			6
문형 바꾸어 대화하기	5	5	15	13	20	30	12	25	135
질문에 답 고르고 대화하기		1		1		12		3	17
계	136	89	70	86	98	99	92	119	799

위의 결과를 보면 말하기 활동의 유형에는 보기처럼 대화하기, 대화의 빈 곳 채우기, 대화 순서 연결하기, 질문에 자기 답하기, 그림 보며 말하기, 그림과 말 연결하기, 자기 말로 표현하기, 역할극, 토론하기, 표 완성, 내용에 근거하여 뉴스보도하기·안내방송·인터뷰, 문형 바꾸어 대화하기 등이 제시되어 있다.

말하기 유형 중 (표 5)에서 제시된 것처럼 보기처럼 대화하기가 284개로 가장 많은 수를 제시하였고, 그 다음은 문형 바꾸어 가며 대화하기 135개로 구성되어 있고, 가장 적은 수를 차지한 유형은 그림과 말 연결하기, 역할극하기, 내용에 근거하여 뉴스보도하기·인터뷰가 3~8 개를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로는 중앙교육이 136개로 가장 많은 말하기 활동 수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은 시사교과서가 119개를 제시하고 있다. 가장 적은 수의 말하기 활동을 제시한 교과서는 금성교과서로 70개를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말하기 활동을 주어진 대화나 담화를 듣고 무작정 따라하거나 주어진 단어만을 대체하는 기계적인 활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화상황을 연상할 수 있도록 대체적으로 생동감 있고 사실적으로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교과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림, 사진, 자료 등을 활용하여 파트너와 과업을 수행하도록 한다든지, 소집단활동(group work)이나 역할극(role play), 스무고개 등을 통한 다양한 활동과 듣기와 말하기, 쓰기를 통합 활동을 유도하면서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려고 하였다.

3) 읽기

(1) 이론적 배경

읽기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학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근래의 읽기에 대한 개념은 단순히 읽기 자료를 수동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읽기 자료와 독자간의 매우 복잡한 상호작용 과정으로 보는 추세이다.

Rivers(1981)는 듣거나 말하기 능력이 학교에서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능력이 크게 저하되는 것에 비해서 읽기 기능은 한 번 개발이 되면 수업 현장을 떠나서 학생 스스로가 교사의 도움 없이도 계속 발전, 유지시킬 수 있는 사실을 들어서 읽기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Goodman(1970)은 독해과정을 심리 언어학적인 과정으로 추측하는 게임(psycholinguistic guessing game)이라 정의하였으며, 읽기를 정보 처리과정(Information processing)으로 보고, 독자가 저자에 의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즉, 읽기 자료에서 선택적으로 추출한 문장에 대해 예측하고 자신의 예측을 검증하고 의미가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독해라 하였다. 이는 읽기는 독자가 글을 읽으면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아내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글의 내용을 추측해내는 것이며, 글에서 제시하는 내용보다 글을 통하여 독자가 재구성하는 내용이 더욱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열거한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결국 읽기란 문자화된 읽기 자료가 제시하는 내용의 의미를 독자가 능동적으로 재구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읽기 자료와 독자간의 상호작용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한편 독자의 역할은 객관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읽기 자료를 보고 자신의 내면에 지니고 있는 다양한 언어적, 인지적 능력과 더불어 과거의 경험 등 모든 관련된 지식들을 총체적으로 동원하여 글의 내용을 재구성해나가는 주체적이고도 능동적인 사고과정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읽기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학교 교육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도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학습자들의 읽기 능력은 커다란 향상을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주로 영어문법, 어휘, 해석 위주로 영어 읽기를 지도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현 7차 교육과정의 읽기 원칙을 보면, 영어를 단순한 기능 교과로서만 생각하기보다는 영어 읽기 학습을 통하여 분석, 종합, 평가, 창의성, 논리적 사고 등과 같은 고등 정신 기능의 함양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영어(I)교과서가 읽기 기술을 훈련하고 읽기 기능 개발을 위한 자료로서 바람직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읽기 구성 및 활동 분석

전체적인 읽기의 특징으로는 읽기 전, 중, 후 활동이 단계적으로 제시되어 각 단계별 유의미한 활동이 제시되고 있다. 읽기 전 활동에서는 읽기 자료와 관련된 소재를 다루는 활동으로 배경지식의 활성화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읽기 중 활동에서는 본격적인 읽기 능력의 단계로 대부분의 교과서가 3~6개의 소 단락으로 본문 내용을 구성하고 있고, 본문의 하단이나 측면에 새로운 어휘나 숙어를 제시하여 어휘파악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본문의 사이사이에 단락이 끝날 때마다 본문의 내용 이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각 본문의 문장들은 의사소통 기능과 관련한 내용 표현을 담고 있어서 의사소통기능 중심의 교과서 편성

에 충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읽기 후 활동에서는 읽기 중심의 통합적인 학습 활동으로 다양한 형태의 의미지도 활동, 읽기 자료에 대한 토론하기, 자료조사 학습 등과 같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읽기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여전히 읽기 학습의 비중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읽기 전,후 활동으로 학습자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바탕으로 읽기 활동을 확장시켜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음으로 각 교과서의 읽기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A. 중앙교육진흥연구소(김충배외)

A교과서는 읽기를 4단계로 구성하여 Before You read에서는 읽기와 관련된 흥미 있는 활동을 통해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활동으로는 본문 내용과 관련된 질문에 학습자 자신에 해당되는 내용과 경험 및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주어진 표를 구성하거나 체크하는 방식이 제시되어 있어 적극적인 읽기 전 활동을 돕고 있다. pre-reading에서는 글을 빨리 읽고 각 단락의 요지를 찾는 대의 파악을 해 봄으로써 속독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skimming 훈련을 할 수 있게 구성하고 있다. 이런 대의 파악 훈련은 단어를 하나하나 암호 해독하듯 하면서 글을 읽거나 또는 문법위주의 문장 번역 읽기 형태를 탈피하여, 정보화 시대에 필수적인 속독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 영어과 읽기 활동 목표에 적합한 내용이라 여겨진다. Main-reading 에서는 각 단 란의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이해를 묻는 질문을 제시해 줌으로써 학습자의 읽기 학습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문 옆에는 학생들의 어휘파악을 돕기 위해 새로운 어휘의 발음, 강세와 더불어 제시하였고, 하단에는 본문에 나오는 어려운 어구나 숙어, 관용적인 표현 등 구어체적인 실용표현 내용을 담고 있다. 읽기 후 단계에 해당되는 After You read 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통해 본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고 있다.

B. 지학사(이맹성외)

B교과서는 읽기 전 단계에서 Questions for Thought 코너에서 읽기 전 질문을 제시하여 읽기 학습의 방향과 본문 학습 이전에 학습자의 상황과 본문내용을 관련지어 보는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 자신의 경험과 배경지식을 동원하여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더 구체적인 심리적 준비를 갖추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 읽기 전 학습의 효과적인 전략이라 여겨진다. 읽기 단계에서는 본문 하단에 글의 내용과 관련되는 문화적인 정보와 관련된 짧은 해설을 실었으며, 매 쪽마다 하단에 읽기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문 관련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읽기 후 단계에서는 읽기 중심의 통합적인 학습활동으로 2쪽의 분량으로 타 교과서에 비해 비교적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특이할 점은 On Your Own코너에서는 읽기 자료와 활동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읽기 활동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심화된 학습을 이끌고 있다 .

C. 금성출판사(김덕기 외)

C교과서는 단원에 따라 소재의 특성을 고려해 삽화와 함께 제시되어 읽기 전 활동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학습자로 하여금 특별한 읽기 전 활동을 요구하지 않아도 쉽게 읽기 내용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본격적인 읽기 단계에서는 4~6개 정도의 소 단 란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각 단 란마다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방향감을 가지고 읽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읽기 후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읽기 자료의 이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도(concept map)나 요약문을 제시하고 있다. 질문에 답하기에서는 본문 내용의 구체적인 페이지 쪽수와 줄에서 나타난 문장의 의미를 묻는 세부사항의 질문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D. 법문사(박영식 외)

D교과서의 읽기 특징은 첫째, 읽기 전 활동을 pre-reading discussion, warm-up, 본문관련한 만화와 script등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고, 여기서 특이할 점은 읽기 자료와 연관된 내용을 세 컷의 만화형태로 제시하여 학습자가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독해 활동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효과적이라 하겠다. 읽기 활동에서는 읽기 자료와 함께 제시된 삽화가 비교적 타 교과서에 비해 많이 삽입되어 있어 눈에 띈다. 거의 소 단락의 읽기 자료에 비례하여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학습자가 읽기 자료를 이해하는데 있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E. 한국교육미디어(이홍수 외)

E교과서의 읽기 특성은 읽기 전 활동을 background, brainstorming, vocabulary의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는데, background에서는 사진이나 도표 등을 제시하여 학습자 스스로 읽기 자료와 연관된 개인적인 배경지식을 확인하고 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배경지식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학습의 효과는 클 것이다. 또한 읽기 자료에 제시될 어휘의 영영 풀이도 눈에 띈다. 읽기 단계에서는 타 교과서에서와는 다른 점을 볼 수 있는데 타 교과서는 읽기 자료를 소 단락으로 구성 제시하여 글이 하나의 주제로 통합되는 형태의 글을 다루기도 하고 각 소 단락에 해당되는 질문을 통해 읽기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반면, E 교과서는 하나의 긴 글이 본문 전체를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읽기 자료에 해당되는 질문 역시 내용 단락의 구분 없이 매 페이지마다 하단에 제시하고 있다. 본문 보조단 예는 어휘에 대한 강세표시만을 제시해 주었고 어려운 구문이나 속어적인 표현, 읽기 자료에 해당되는 보충 자료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F. 대한 교과서 (이민호 외)

F교과서에서는 읽기 전 활동 코너를 따로 두지 않고, 읽기 단계에서 pre-reading activities라는 제시어와 함께 두서개의 질문을 통해 읽기 전 활동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읽기 자료는 소 단락의 구성하여 본문 옆에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본문 하단에 있는 어휘나 숙어, 어려운 구문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실었다. 읽기 후 단계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기보다는 4/5지 선다형의 문제풀이 형태로 제시하고 있고, 읽기의 심화 단계에서는 주어진 질문에 학습자 스스로 답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심화 단계에서조차 학습자의 능동적인 활동의 참여를 기대하는 다양한 활동을 찾아 볼 수 없어서 아쉽다.

G. 두산 (김성곤 외)

G교과서는 읽기 전, 중, 후 활동을 구성하고 있고, 읽기 후 활동에서는 본문내용과 관련해서 빈칸 채우기, 문장완성하기, T/F, 자신의 의견 쓰기, 다른 내용 더 찾아보기 등 전반적인 이해여부와 세부사항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고 나서 보다 심화된 형태의 활동 중심의 읽기 후 활동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타 교과서가 본문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에 맞는 답 선택하기 식의 단순한 이해여부를 묻는 질문 등으로 딱딱한 읽기 후 활동을 구성하고 있는 것에 비해 영어로 답 쓰기, 대화문으로 다시 쓰기, 실용문으로 완성하기 등 쓰기 활동과 접목한 더 구체적이고 학습자의 참여를 요구하는 읽기 후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H. 시사영어사 (신정현 외)

H교과서는 읽기 전 단계(Before You Read), 읽기(Read), 읽기 후 단계(Understanding the text, Strategies for Reading)로 구성하고 있다. H 교과서는 타 교과서가 읽기 자료의 형태를 소 단락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있는 반면, 대체적으로 긴 장문의 형태의 글을 제시하고 있으며 내용파악을 위한 본문 관련 질문의 형태는 다소 많은 양을 제시해주고 있다. 읽기 후 활동으로 Strategies for Reading 이라는 코너가 눈에 띄는데 이는 본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읽기에 관한 여러 가지 전략을 소개하는 한편, 읽기 내용에 대한 단순한 세부적인 이해를 진단해 보는 활동이라기보다는 읽기 전략을 통한 학습으로 과제에 대한 학습자의 논리력, 추리력, 사고력의 신장을 꾀할 수 있어 읽기 후 학습으로 효과적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각 교과서에서는 읽기 전, 후 활동에서 어떠한 활동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내용의 구성으로 학습자의 읽기 자료에 대한 전, 후 학습을 돕고 있는지, 각 교과서의 읽기 활동은 어느 부분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읽기 활동을 위한 연습활동은 Brown(1994)와 배두본(1997)의 연습 활동 제시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Brown(1994)은 읽기 전, 중 후 활동을 행동하기, 해석하기, 대답하기, 요약하기, 확장하기(이야기의 결말을 말하기), 중복하기(번역하거나 그것을 베끼기), 구성하기, 대화하기를 제시한다. 배두본(1997)은 주제어 찾기(topic word), 6하 원칙의 질문하기, 주제의 위치 찾기, 우회적 단서 찾기, 내용 파악(general and specific ideas)을 제시한다. 주제어 찾기는 문단의 주제를 한두 개의 낱말로 답하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6하 원칙의 질문하기는 문단의 줄거리에 따라 6하 원칙에 따라 질문하

고 대답하는 활동을 뜻한다. 주제어 위치 찾기는 문단의 주제가 처음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끝에 있는지를 알아내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우회적 단서 찾기는 주제문을 의문문으로 만들어, 그 문단 전체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활동을 뜻한다. 내용 파악(general and specific ideas)은 어느 언어, 혹은 문장이 다른 것보다 더 일반적이거나 또는 구체적인지를 알아내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표 6) 영어(I) 교과서의 읽기 활동

분 류	중앙	지학	금성	법문	한국	대한	두산	시사	계
4/5지 선다형	10	36		10		23		12	91
T/F	4		13	9	5	3	12	4	50
질문에 자기 답하기	28	13	22	14	15	20	23	15	150
영어로 답하기	5					1	8	1	15
빈칸에 알맞은 내용 고르기 (빈칸 채우기)	10	16	6	12	14	5	13	7	83
주어진 문장 다음 추론하기	5	2	3	1	1	2	1	3	18
내용과 그림/내용 매치하기	6	13	4	16	21	1	11	10	82
문장, 그림의 순서 정하기	2	4	1	2		2	2	2	15
요약하기(해석하기)	5	3	1	5	13	2	2	4	35
내용조사하고 발표하기 (토론하기)	9	7	6	11	15	8	12	8	76
주제, 교훈, 제목 고르기 등	4	2	1	1	1	4	3	7	23
표, 그림 완성하기	5		10	2	1		4	1	23
Brainstorming(skimming)	12	3	1	5	13	9	5	4	52
알맞은 내용 표시하기 (적어보기)	7	20	18	7	4	9	8	23	96
계	112	119	86	95	103	89	104	101	809

위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교과서가 읽기 자료와 관련하여 학습자 개인의 생각과 추론, 의견을 묻는 등의 읽기 활동으로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요구하고 있다. 각 교과서는 읽기 활동의 양과 상관없이 읽기 자료와 연결해 창의적이고 독특한 읽기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영어로 답하기는 A와 G교과서 밖에 없었으며 F와 H 교과서는 영어로 써보기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읽기 전 활동은 F 교과서를 제외하고 거의 1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사진이나 삽화, 표, brainstorming, skimming, 어휘 설명, 읽기 자료와 관련된 질문내용에 자기의견 말하기 등으로 구성하여 읽기 전 활동을 충분히 유도하고 있으며, 읽기 후 활동으로는 4/5지 선다형, T/F, 빈칸에 알맞은 내용 쓰기, 고르기, 내용과 그림/내용과 매치하기, 요약하기, 알맞은 내용 표시하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읽기 후 심화 활동으로는 읽기 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더 찾아보고 그에 대한 내용을 토론하거나, 발표하기로 구성하고 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질문에 자기 답하기가 150개로 제일 많은 읽기의 구성을 차지 있으며, 그 다음은 4/5지 선다형 91개와 빈칸 내용 채우기 83개 등이 제시되어 있다. 가장 적은 수의 읽기 활동으로는 영어로 답하기 15개와 문장/그림 순서 정하기 15개 등이다. 읽기 활동을 제일 많이 제시한 교과서는 119개로 B 교과서이기는 하나 읽기 활동의 다양한 구성보다는 4/5지 선다형으로 읽기 후 활동을 거의 구성하고 있으며, A와 G 교과서가 각각 112개와 104개로 읽기 자료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개인의 정보와 관심에 따른 참여 학습의 유도형식으로 읽기 전, 후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4) 쓰기

(1) 이론적 배경

7차 교육과정은 결과 중심(product-oriented)의 교육과정에서 과정 중심(process-oriented)의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쓰기의 교육도 과정 중심 작문으로 변화하고 있고, 과정 중심의 쓰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과정 중심 접근방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문을 해 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즉 교사는 학생의 글에 대한 상담자 역할을 한다.

둘째,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쓰고 있는 작문 과정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셋째, 작문을 할 때 쓰기 전 단계, 초고 쓰기, 고쳐 쓰기의 3단계의 순환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적절한 쓰기 전략을 사용한다.

넷째, 학생들에게 자신의 작문을 수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다.

다섯째, 작문의 3단계 중 초고를 고쳐 쓰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 학생들이 더 좋은 생각, 표현을 스스로 발견해 나가도록 도와준다.

여섯째, 학생들이 무엇을 쓰기를 원하는지, 작문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한다.

일곱째, 교사는 작문의 마지막 결과물에 대하여 점수를 주기보다는 학생들이 글의 목적에 맞게 써 나갈 수 있도록 글을 쓴 과정에 도움을 준다.

여덟째, 교사뿐만 아니라 동료 수정을 하도록 한다.

아홉째, 작문의 과정에서 교사가 제공하는 문자 언어 피드백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교사와 학생간의 구두면담(individual conference)을 한다.

쓰기의 과정을 곧 인지과정으로 보아 결과 중심 쓰기와 새로이 전개하는 과정 중심 쓰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쓰기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쓰기 활동은 다섯 개의 활동으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 모방작문(imitative writing)은 초급수준에서 사용되는 알파벳 쓰기, 받아쓰기 활동이며 둘째, 통제 또는 유도작문(controlled writing)은 문법학습이나 평가를 위한 통제형 연습 문제의 답안 작성, 주어진 지시에 따라 글을 변화시키는 통제나 유도작문 유형이다. 셋째, 학생 자신을 위한 작문(self writing)으로 교실 수업노트 작성이나 혹은 학생들이 자신의 느낌, 생각 등을 쓰면 교사가 이를 읽고 평을 하거나 글로 학생과 대화를 나누는 대화저널(dialogue journal)작성과 같이 학생 자신이 독자가 되어 자신의 학습을 위한 쓰기 활동이다. 넷째, 전시용 작문(display writing)으로 단답형 문제의 답 쓰기, 주관식 답안 작성 등 자신이 아는 지식을 보여주기 위한 쓰기이며, 다섯째, 실제작문(real writing)으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독자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는 의사소통을 위한 쓰기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쓰기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쓰기의 단계별 쓰기 전략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글의 내용 구상을 위해 자료를 찾거나 읽고, 토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brainstorming), 생각이나 정보를 나열하여 조직한다. 두 번째 단계로는 이와 같이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여 직접 써보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초고수정과 편집이 이루어진다. 이때 필요한 경우 정보 수집을 다시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 내용이나 구성 등을 수정하여 최종본을 완성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신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 독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다.

(2) 쓰기 구성 및 활동분석

각 교과서의 쓰기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7) 영어(I)교과서의 쓰기의 구성

중양	<p>Write Right</p> <p>: 어구를 연결하여 문장 만들기, 문맥에 맞게 주어진 단어 채우기, 예문을 참고하여 짧은 문장 만들기, 문장 완성하고 영작하기, 대화문 받아 쓴 후 그 내용을 담화문으로 고쳐 쓰기, 문장 완성 후 문맥에 맞게 배열하기, 문단 단위의 글 완성하기, 자유 작문하기(소개문, 광고문, 기행문), 주요 소재를 활용한 글의 개요 만들기, 완성한 글의 개요를 활용한 논리적인 글 완성하기, 도식화된 핵심 어구를 사용하여 짧은 글 완성하기, 대화문 완성하기, 요약문 작성하기, 받아쓰기, 문장 전환하기, 자신의 이야기를 영작, 단락 만들기</p>
지학	<p>Let's write</p> <p>: 내용을 요약하여 쓰기, 주어진 표현 활용하여 문장 만들기, 받아쓰기, 문장 배열하기, 관련 있는 문장을 연결하고 문단 만들기, 듣고 메모하기, 주어진 표현을 활용하여 글 완성하기, 문장의 재배열과 간단한 영작하기, 빈칸 채우고(cloze)미완성의 문장 완성하기, 자유영작하기(기사문, 설명문), 제시된 주제문 가지고 문단 구성 요령 익히기, 두 문장을 결합하기, 독후감 쓰기, 문장 전환하기</p>
금성	<p>Write</p> <p>: 글을 읽고 제시된 예를 바탕으로 내용 써보기, 그림 보며 문장 만들기, 빈칸에 적당한 문장 써보기, 주어진 내용에 대한 질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문장으로 영작하기, 주어진 내용을 조사하고 표 완성하여 영작하기, 대화 듣고 받아 적기, 내용 요약해서 쓰기, 자신의 생각 정리하여 쓰기, 잘못된 부분 찾아 바르게 고쳐 써보기, 문장 완성하기, 지원서 양식 써보기, 듣고 메모하기, e-mail 완성하기, 글 읽고 제목 써보기, 내용 추론하고 해당되는 말 써보기, 자유 작문하기</p>
법문	<p>Write On</p> <p>: 빈칸 채우기, 주어진 표현 이용하여 영작하기, 글을 쓰기 위한 brainstorming 써보기, 주어진 표현을 가지고 문장 만들기, 주어진 어휘를 가지고 대체하기, 그림보고 영작하기, 문장 전환하기, 도표 설명하고 미완성 문장 완성하기, 불완전한 문장을 바르게 고쳐 쓰기, 자유작문하기 (편지 쓰기, 수필 쓰기), 우리말을 영어로 옮겨 써보기, 완전문장과 불안정문장 구분하기, 자신의 이야기를 써보기</p>

한국	<p>Guided Writing</p> <p>: 순서에 맞게 문장 배열하기, 주어진 정보 이용하여 문장 완성하기, 문장 대체 연습하기, 주제에 따른 자신의 의견 써보기, 빈칸에 어휘 써보기, 단락 읽고 요약문 완성하기, 자유영작하기(주어진 표현을 참고하여 연애편지 써보기), 대화 완성하기, 연설문 읽고 요약해서 표 완성하기, 문장의 오류를 찾아 수정하여 써보기, 주어진 정보 이용하여 짧은 글 써보기, 본문내용 관련하여 문장 연결하기, 글 읽고 토의한 내용 써보기,</p>
대한	<p>Writing Tasks</p> <p>: 대화 완성하기, 주어진 정보를 이용 새로운 글 써보기,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서 문단 완성하기, 우리말을 영어로 옮겨보기,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보고, 답을 모아 문단 만들기, 의미가 통하는 문장 연결하여 써보기, 주어진 주제에 따른 자기 생각 써보기, 어구를 이용하여 문장 만들어 보기, 보기를 참고하여 실용문 써보기(영화 감상문쓰기), 내용 요약해서 써보기,</p>
두산	<p>Write and Express</p> <p>: 단어 재배열하여 대화 완성하기, 빈칸에 알맞은 단어 쓰기,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기, 글 읽고 요약문 완성하기, 질문에 자기 답 쓰기, 글 읽고 표 완성하기, 문장 완성하기, 내용 조사한 후 실용문(안내문, 편지, 감상문) 써보기, 희극 대사 만들어 보기</p>
시사	<p>Writing Activity</p> <p>: 주어진 우리말을 참조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 써보기, 문장의 의미파악하고 보기와 같이 써보기,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기, 문장완성하기, 예문 참고하여 자기 의견 써보기</p> <p>Creative Writing</p> <p>: 예문 참조하여 자유 작문하기, 자신 글 완성하기, 토론하여 의견 쓰기</p>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어(I)’의 교과서들은 교과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계적인 문장연습인 문장전환(Transformation), 두 문장 결합하기, 대체 연습(Substitution), 문장 완성하기 등의 간단한 쓰기와 더불어 점진적인 쓰기의 향상을 위하여 연습한 문장을 조금 다르게 조합하거나 학습자가 배운 언어형식이나 구문 또는 본문 내용과 관련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영작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 학습자가 다양한 쓰기 활동을 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학생 중심의 쓰기 활동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학습자가 흥미로워 하는 소재를 많이 다루고 있었다. 예를 들면, 실용문을 써보는 작문 연습에 있어서도, 영화보고 감상문 써보기, 연애편지 써보

기, 광고 글 만들어 보기, 친구에게 충고나 조언하는 말 써보기, 여행 계획표 써보기 등이다. 또한 대부분의 교과서는 1~2 페이지에 달하는 ‘쓰기’란을 두고 있으며, 교과서마다 쓰기 단계를 제시하는 순서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A, E, F, G, H 교과서는 읽기 후 단계의 다음 단계로 쓰기 단계를 바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B, C, D 교과서는 Language work, Vocabulary, Build up Vocabulary 등의 코너 뒤에 쓰기의 단계를 두었다. 이는 쓰기 단계 이전에 단원에서 관련된 언어형식 및 중요한 어휘, 실제 문맥 안에서의 유용한 표현 쓰임새 등을 충분히 학습한 후 이를 바탕으로 쓰기 단계에서 재확인하고 활용하여 쓰기 능력 배양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학습자가 쓰기 활동을 하는데 있어 충분한 기초 자료 학습의 습득으로 쓰기 활동에 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이 될 것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각 교과서의 쓰기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A. 중앙교육연구소(김충배 외)

A 교과서는 쓰기 활동을 A와 B로 나누어 구성을 하고 있으며, A에서는 학습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쓰기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듣기와 쓰기를 통합 제시하였다. B에서는 본문을 도식으로 완성한 후 글 재구성하기, 글의 개요를 활용한 논리적인 글 완성하기, 요약해서 쓰기, 자신의 이야기를 영작, 단락 만들기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주어진 표현(언어형식에서 제시된 표현)에만 의존하여 쓰기가 아닌 문맥과 문법적인 부분(시제, 수, 복문, 단문)까지 재구성해야만 하는 쓰기 활동들이 제시되고 있다. A 교과서는 대체적으로 점증적인 쓰기 활동의 구도로 학생들이 단계적으로 쓰기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보충이나 심화학습의 쓰기 자료와 활동은 다소 미흡하다.

B. 지학사 (이맹성 외)

B 교과서의 쓰기의 특징은 쓰기 활동 옆에 notes 칸을 두어 제시된 쓰기 활동에 대한 목표나 방향, 참고 사항을 주고 있다. 쓰기 활동이 서투른 학생에게는 어떤 방향제시가 될 것 이며 쓰기 학습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B 교과서는 단원의 앞부분에서 학습한 언어 표현, 구문 등을 활용한 쓰기 활동과 자료 제시가 두드러진다. 쓰기 소재에 있어서는 본문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쓰기학습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

C. 금성 출판사(김덕기 외)

C 교과서는 듣기와 읽기 자료를 함께 주어 통합적인 쓰기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상호 협력하여 쓰기 활동에 임할 수 있는 쓰기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네 명이 한 조가 되어, 각자의 조언에 대해 논의하여 가장 좋은 두 가지를 고른 뒤, 그 근거를 써 봅시다.’라든가, ‘반 학생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간식 다섯 가지와 그 이유를 조사하여 표를 만들고, 위와 같이 결과를 써 봅시다.’ 등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쓰기 활동을 이끌 수 있겠다. 쓰기 소재에서도 학생 중심의 흥미롭고 창의성을 요하는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래 e-mail을 읽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봅시다, 감자칩 만드는 방법을 잘 듣고, 다음 순서도를 완성해 봅시다. 김치 포장 용기에 붙일 설명 문구를 만들어 봅시다. 20년 후에는 고등학교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추측하여 써 봅시다.’ 등이다.

D. 범문사 (박영식 외)

D 교과서는 쓰기를 하기 이전에 학습할 쓰기내용의 전체적인 목표를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자유 작문 형태의 쓰기보다는 유도 작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D교과서의 쓰기 구성은 A의 B, C 단계로 나누고 있으며, A단계에서는 Checking Up, Brainstorming, Finishing the Story!, Tips for a letter of Complaint, 등으로 쓰기 이전에 읽기 자료를 읽고 난 후의 이해와 글의 요지를 중심으로 한 쓰기의 활동을 요구하기도 하고, 쓰기 이전에 글의 특성에 맞는 글 작성 요령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쓰기 유형이 빈칸 채우기, 주어진 구문으로 글 완성하기, 주어진 어휘목록을 참조하여 써보기, 위의 세부 사항을 참조하여 다음 편지를 완성해 보기 등으로 학생들의 생각이나 배경지식을 이용한 자유 쓰기 활동보다는 주어진 표현을 이용한 통제된 쓰기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계적인 쓰기 학습, 획일적인 글쓰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 한국교육미디어(이홍수 외)

E 교과서의 쓰기 특징은 A~D 단계의 쓰기 구성으로 매 단원마다 거의 다른 지시어로 쓰기의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Unscrambling, Sentence Completion, Dictation, Summary, Your version, Writing about an ideal date, Writing an Outline, Making a Dialog 등이다. D 교과서는 어휘나 구문, 문장 단위의 글쓰기부터 실제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실용문이나 자료를 제시하여 단순한 문장이 아닌 주제가 있는 하나의 쓰기 학습을 제시하고 있다.

F. 대한 교과서(이민호 외)

F 교과서의 쓰기 활동은 A와 B의 단계로 구성하고 있다. A단계에서는 Building up a sentence와 B단계에서의 Building up a paragraph 등인데,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어진 문장을 이용하여 다음 문장 완성하기, 주

어진 문장을 참고로 하여 우리말을 영어로 옮겨보기, 의미가 통하는 것끼리 연결하여 써보기 등으로 제시된 유도 작문을 연습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B에서는 문장을 완성하여 글로 완성하기, 빈칸에 자신의 생각 써보기 등으로 심화된 형태의 자유 작문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쓰기의 소재가 본문 내용을 확인하고 질문에 답하는 쓰기 식의 내용이 많아 학생 중심의 흥미롭고 실제적인 다양한 소재의 쓰기 활동이 요구된다.

G. 두산 (김성곤 외)

G 교과서는 A~D 단계의 쓰기 활동의 구성으로 A와 B에서는 대화문을 이용한 빈칸 완성, 문장 배열, 구문을 중심으로 하는 통제 작문 등을 제시하고 있고 C와 D에서는 이를 더 심화된 형태로 본문의 주제 및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자유 작문을 하게 하도록 구성하였다. 자유 작문에서도 많은 글을 써보게 하기보다는 주어진 표와 차트를 주어 주어진 형식에 내용을 채워나가는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G 교과서의 쓰기 구성은 문장연습인 문장전환, 두 문장 결합하기, 대체연습의 간단한 쓰기 활동이 대부분이고, 듣고 쓰기 등의 통합적인 제시는 찾아 볼 수 없다.

H. 시사영어사 (신정현 외)

H 교과서는 쓰기의 구성을 Writing Activity 와 Creative Writing 로 제시하고 있고, Writing Activity에서는 학생들이 영어로 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주어진 문장을 완성하거나 연결하여 다시 쓰는 형식의 통제작문을 하도록 하였다. Creative Writing에서는 앞선 통제작문을 기반으로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재를 제시 학습자 중심의 쓰기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에 대해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던 점을 써보기, 글 읽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써 보기, 주어진 표를 참고하여, 자신이 최근에 본 영화에 대해 써보기 등이다.

지금까지는 각 교과서의 쓰기 구성의 특징과 내용,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각 교과서 내에서 어떠한 쓰기 활동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어떠한 쓰기 활동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쓰기 활동은 Brown(1994)와 O'Malley(1985)의 쓰기 연습활동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Brown(1994)은 학습 초기에는 알파벳 쓰기, 받아쓰기 유형인 모방 작품을 제시하고, 학습 초기가 지나면 유도 작문과 자유 작문을 제시한다. 유도 작문에는 문법 학습이나 평가를 위한 통제형 연습 문제 답 작성하기, 주어진 지시에 따라 글을 변화시키기가 있다. 자유 작문에는 교실 수업 노트 작성하기, 대화 저널 양식, self-writing, 단답형 문제에 답 쓰기, 주관식 답안 작성, 전시용 작문,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기가 있다고 하였다. O'Malley(1985)는 정보전달을 위한 쓰기(informative/expository writing), 묘사 또는 이야기를 위한 쓰기 (expressive / narrative writing), 설득을 위한 쓰기(persuasive writing)로 분류한다. 통합적인 언어 활동에는 대표적으로 받아쓰기가 있다. 받아쓰기는 질문을 받아쓰게 하는 방법, 일부 받아쓰기, 학생들이 받아 쓴 후에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기, 여러 가지 지시를 받아 쓴 후에 다음 지시에 따라 행동하기, 받아쓰기를 한 후에 내용과 일치된 그림 고르기가 있다고 하였다.

(표 8) 영어(I)교과서의 쓰기의 활동

분 류	중앙	지학	금성	법문	한국	대한	두산	시사	계
주어진(보기)문형 이용하여 쓰기	4	16	5	4	5	8	13	15	70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기	5			8		1	5	7	26
틀린 부분 고쳐 쓰기	3	7	14	6		4	6	4	44
영작하기(부분, 전체)	10	4	5	2	8	2	8	9	48
듣고 받아쓰기	6	4	5	9					24
글을 (대화문) 완성하기	4	5	9	3	3	6	3	4	37
그림 묘사하기			3	1					4
자신의 답 쓰기	4	2	17	2	15	5	4	18	67
문장완성하기(단어/어순)	5	20	7	9	18	10	12	6	87
요약하기	5	3	3	2	2	3	4	4	26
표 완성	3	3	3		4	1	5	1	20
빈 칸 채우기(어휘, 문장)	21	25	4	9	21	8	8	9	105
문장 연결(재배열) 하기	6	13	7	1	5	13	16	5	66
계	76	102	82	56	81	61	84	82	624

위의 분석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교과서가 주어진 보기, 문형 이용하여 쓰기,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기, 틀린 부분 고쳐 쓰기, 영작하기(부분, 전체), 듣고 받아쓰기, 글을 (대화문) 완성하기, 그림 묘사하기, 자신의 답 쓰기, 문장완성하기(단어/어순), 요약하기, 표 완성, 빈 칸 채우기(어휘, 문장), 문장 연결(재배열)하기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유형들 중 가장 많이 제시된 것은 빈 칸 채우기(어휘, 문장)의 형태가 105개로 A, B, E 교과서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는 문장 완성하기 (단어/어순) 로 87개가 다소 많은 쓰기 활동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답 쓰기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특히 H, C 교과서는 자신의 답 쓰기가 각각 18개와 17개로 제일 많은 쓰기 학습의 활동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서투르게나마 자신만의 정보나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자유스러운 쓰기 활동 연습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중심의 효과적인 쓰기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가장 적게 제시한 유형은 그림 묘사하기 4개와 ,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기 14개 등이다. 여러 유형 중 주어진 보기 (문형) 이용하여 쓰기는 본문 내용에서 다루어진 언어 형식이나 중요한 표현 등을 대체하여 쓰기 연습을 하게 한 것으로 앞에서 배운 내용을 쓰기와 접목해서 충분히 재학습시키고 있다. 교과서마다 구성의 차이는 있지만 제시된 문장을 완성하는 식의 유도 작문의 형태가 다수를 이룬 경우도 있었고, 소재에 따른 학생들의 자유 작문 (부분, 전체)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쓰기 활동 연습을 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기는 하나, 학생들의 표현하고픈 자유로운 표현들, 실용적인 표현들을 쓰기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창조적이고 자기만의 생각을 글로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쓰기 학습란에 보조단을 두어 학생들이 써봄 직한 어휘나 실용적인 표현을 다루어주는 것도 효과적으로 작문학습을 도울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으로 제일 많은 쓰기 활동을 보인 교과서는 B 교과서로 102개의 쓰기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제일 적은 쓰기 활동을 보인 교과서는 D 교과서로 56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D 교과서의 구성 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전체 단원이 10단원으로 구성되어 타 교과서에 비해 교과서 구성에 따른 차이일 것이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2학년 영어(I)교과서의 언어기능과 성취기준(활동)을 알아보았다.

다음은 각 교과서별로 언어의 4기능 활동을 비교 제시하였다.

(표 9) 고등학교 2학년 영어(I) 교과서의 언어활동

	중앙	지학	금성	법문	한국	대한	두산	시사	계
듣기 활동	122	164	106	140	121	165	108	114	1040
말하기 활동	136	89	70	86	136	99	92	119	799
읽기 활동	112	119	86	95	103	89	104	101	809
쓰기 활동	76	102	82	56	81	61	84	82	624
계	446	474	344	377	441	414	388	416	3272

전체적인 언어활동의 수를 살펴보면, 듣기 활동은 1040개, 말하기 활동은 799개, 읽기 활동은 809개 그리고 쓰기 활동은 624개로 총 3272개이다. 활동 중에는 듣기활동과 읽기 활동이 각각 1040개와 809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듣기활동은 모든 교과서들의 적게는 2페이지, 많게는 4페이지 가량의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말하기와 연결한 통합적인 구성방식으로 듣기활동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었다. 읽기 또한 여전히 교과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언어활동으로 읽기 전, 중, 후 단계의 점층적인 구도로 본 내용에 충실하게 구성하고 있다. 읽기 전의 선수학습과 읽고 난 후의 활동은 읽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를 수록하여 내용 이해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또한 심화활동으로 토의활동이나 자료 찾기 등 읽기 자료와 연계하여 유의미 적인 학습활동이 되도록 구성하고 있다. 말하기는 799개로 각 교과서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의사소통기능을 중심으로 실제 발화

상황을 고려한 말하기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만화로 상황을 제시하거나 삽화와 표 등을 제시하는 점은 학습자의 흥미와 유의미성을 고려하였다.

쓰기 활동은 624개로 제일 낮은 언어활동을 보이고 있고, 빈칸 채우기, 문장 완성하기 등의 유도 작문보다는 짧게나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자유 작문의 형태가 많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교과서별로 비교해보면 B 교과서가 474개로 제일 많은 언어활동을 담고 있으며, 그 뒤로 A와 E 교과서로 각각 446개와 441개를 제시하고 있다. 제일 적은 언어활동을 보인 교과서는 C 교과이다.

4. 의사소통 기능 분석

우리 나라에서는 영어를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상황에 두고 교육한다. 비록 우리 나라가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상황에서처럼 영어가 곧바로 실생활에서 활발한 의사소통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계화라는 국제적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향상에 외국어 교육의 목표를 두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그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관은 기능-의미중심의 교수요목을 지향한 제 6차 교육과정에서도 강조되었지만,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더욱 강조, 강화하여 수업시간에 보다 많은 의사소통활동을 구현하게 함으로써 본격적인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을 지향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6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사소통기능의 항목을 좀

더 구체화, 세분화 시켜서 전체를 크게 7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그것을 47가지 영역으로 세분화시켰다. 또 각 항목에 해당하는 예시문도 6차 과정에서 제시한 것 보다 늘어났으며 모든 교과서들이 단원이 시작하는 부분에 그 단원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의사소통기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이 제시한 의사소통 활동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본 연구의 이론 부분에서 상세히 다루었으므로 이론 부분은 생략하고 고등학교 2학년 영어(I)교과서에 대한 의사소통활동을 각 교과서별로 분석하고자한다.

고등학교 2학년 영어(I) 교과서의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의 분포는 (표 10) 과 같다.

(표 10) 고등학교 2학년 영어(I)교과서 의사소통기능 분석

분류		종류							
		A	B	C	D	E	F	G	H
친 교 활 동	인사					1			
	소개			6	2,3				
	감사					1	4,		1,
	주의 끌기	6		9	3			12	
	칭찬, 축하, 감탄			4		5,7	4,8,9	4,	
	약속		4,5	10	4		1,8	1,	9,
	기원	3					9,		2,
	음식권유, 응답								
	대화의 시작, 끝맺음		1	1	2			7,	7,
	사 실 적 정 보	사실적 정보	2,	7					
사실확인		5	2,5,6,12				5,7,10	8	
사실묘사		2,	9	5,9	10	10	7,11		
습관								6,	4,
경험				4	10			6,	
계획		6	8	4		6	1,7,12	7,	6,9
수정								1,	11
비교				8				5,	7,

분류		종류							
		A	B	C	D	E	F	G	H
지 적 태 도 변 화	동의나 반대	2,4,6,7,8, 10,11,12	2,12	2,3	4	3,10			
	제외, 초대	1, 12	1,6	12	6,7,9		11	3,	6
	기억		10					12	
	가능, 불가능	11		8	6	1,4,9		7,	
	확신하기	5,9	7	6		3,7	10,12	2,	5,
	의무		11						4,
	허락	1,			3,8				1,
	지시, 금지		11	2	1				
감 정 표 현	의견표현	1,3,4,5,6,7,8 ,9,10,11	8,9	1,8	2	4,7,9,11	3,6,9,12	3,4,9,	8,11
	좋아함, 싫어함	7,8	4	7,12	6,7,10	2,11	5	4,	3,
	희로애락	12		11	8		2	9,	
	원하는 것				1,5	8,	8		
	등정	7		10				6, 9	2,
	소망의지		8	1,11		2		11	5,
도 덕 적 표 현	불평						6	2,	10
	사과, 변명	10		4	1	12	5,	11	3
	후회		3			9,		11	8,
설 득 과 권고	관심	7		12	4,5	2,5,10			
	설득		10	10		9,			
	요청	5,9	1	2,5,7	8	11	3,10	1,8,	12
	충고	2,3				4,12	2,4,6	10	
문 제 해 결	경고			6	5	12			
	원인과 결과			4		8		2, 12	12
	길 안내					6		10	
	물건사기				7			5,	10,
	음식주문			7,				10,	
	되묻기				9,		3	5,8,	
	이해점검	10	10,11	5,9		5		3,	
전화하기 및 받기		8			6				

위의 표와 같이, 의사소통 기능은 대부분의 교과서마다 각 항목들을 고루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7차 교육과정의 의사소통기능 부분들을 잘 반영하고 있고, 듣기와 말하기에서 이를 script의 대화나, 예시문을 통하여 충분한 연습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별로는 A 교과서가 41개로 제일 많은 의사소통 기능을 제시하고 있고, H 교과서가 24개로 제일 적은 의사소통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표 11) 의사소통기능의 항목별 제시율 비교(7차 영어(I) 교과서)

	중앙	지학	금성	법문	한국	대한	두산	시사	계
친교활동	2(4.8)	3(10.7)	5(14.2)	5(17.2)	4(11.4)	7(21.2)	4(11.4)	4(16.7)	34(13.1)
사실적정보	4(9.7)	7(25)	5(14.2)	2(6.8)	2(5.71)	8(24.2)	6(17.1)	5(20.8)	39(15)
지적태도	24(58.5)	10(35.7)	8(22.8)	9(31)	11(31.4)	7(21.2)	7(20)	6(25)	82(31.5)
감정표현	4(9.7)	2(7.1)	6(17.1)	6(20.6)	4(11.4)	4(12.1)	6(17.1)	4(16.7)	36(13.8)
도덕적표현	2(4.8)	1(3.5)	2(5.7)	3(10.3)	5(14.2)	1(3)	2(5.7)	2(8.3)	18(6.9)
설득과권고	4(9.7)	2(7.1)	5(14.2)	2(6.8)	5(14.2)	5(15.1)	2(5.7)	1(4.2)	26(10)
문제해결	1(2.4)	3(10.7)	4(11.4)	2(6.8)	4(11.4)	1(3)	8(22.8)	2(8.3)	25(9.6)
합계	41	28	35	29	35	33	35	24	260

(괄호 안의 숫자는 백분율을 나타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교과서가 현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의사소통기능의 항목을 고루 반영하였다. (표 11)에서 나타난 의사소통 기능의 항목 비율을 보면,

영어(I) 교과서는 260개의 의사소통 기능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체기능 중 ‘지적태도’가 31.5% 로 제일 많은 의사소통의 기능을 차지하고 있고, ‘도덕적표현’ 6.9% 와 ‘문제해결’ 9.6% 로 제일 적은 의사소통의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교과서가 의사소통기능에 대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친교활동’이 13.1% ‘사실적 정보’가 15%, ‘감정표현’이

13.8% ‘설득과 권고’는 10%로 나타나고 있다. 7차에서 제시한 각 기능별에서의 하위 항목에서도 보면 대체적으로 골고루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어떤 항목에서는 모든 교과서가 제시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친교활동의 인사부분에서는 E 교과서만이 제시하고 있고, 음식권유, 응답은 어느 교과서에서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사실적 정보에서는 습관, 수정이 그러하고, 감정표현에서는 F 교과서만이 불평항목을 제시하고 있고, 다른 교과서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문제해결에서는 길안내를 F 교과서만 제시하고 있고, 물건사기는 E 교과서만이, 음식주문은 C 교과서만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별로 그 기능을 보면 A 교과서는 ‘지적태도’가 58.5%로 전체 의사소통 기능에서 거의 절반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에 비해 ‘문제해결’은 2.4%로 아주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단원 첫 페이지에서 배우고자 하는 의사소통 기능을 예와 함께 간단히 소개하고 있는데 비해 A 교과서는 Think Back 이라는 코너에서 의사소통의 예시와 삽화를 제시하고 문맥에 맞게 의사소통기능을 연습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본 내용에 들어가기 이전에 충분한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의사소통의 학습의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다. B와 C 교과서는 대체적으로 각 의사소통 기능을 골고루 제시하고 있는데, 지적태도가 35.7%와 22.8%로 역시 항목 중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도덕적 표현이 각각 3.5%와 5.7%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B교과서에서는 듣기부분의 한 코너인 Dialog에서 대화의 script 통하여 의사소통 기능의 문장을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4컷 짜리 만화에서 소개하는 의사소통기능 연습은 그림과 함께 제시된 상황 안에서 배울 수 있어서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데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D 교과서는 각 단원마다 듣기부분의 첫 페이지에 의사소통 기능의 내용

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각 의사소통 기능에 있어서도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E 교과서는 듣기와 말하기에서 각각 Additional Practice 라는 코너에서 의사소통 기능을 다루고 있는데, 듣기에서 제시한 부분을 말하기에서 한 번 더 제시하고 있어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E 교과서는 ‘지적태도’가 31.4%로 제일 많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적 정보’는 5.7%로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F 교과서 역시 듣기와 말하기에서 의사소통 기능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Sounds for Listening에서 의사소통 기능을 발음, 강세, 연음에 유의하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G 교과서에서는 말하기 활동에서 의사소통기능을 대부분 소개하고 있는데 대화 안에서 의사소통기능을 소개하고 있어 유의미적인 말하기 학습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활용하여 빈칸 채우기, 구문 바꾸어 가며 연습하기 등으로 의사소통기능을 연습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H 교과서는 타 교과서에 비해 적은 의사소통기능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과에서 2개 정도의 의사소통기능을 소개하고 있고, 그 중 사실적 정보와 지적태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듣기와 말하기에서 의사소통기능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5. 언어재료 (문화 및 소재, 언어형식)

1)이론적 배경

영어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공용어인 영어로 세계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리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데에 있다고 현 7차 교육과정에서는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언어에 내재된 사회 문화적인 요소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올바른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의 문화교육의 방향이므로

외국어 학습에는 반드시 목표언어의 국가나 사회의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Chastain(1976)은 외국어 학습에서는 반드시 상호 문화간의 이해가 포함되고 가르쳐져야만 하다고 다음과 같이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Why is the culture component so crucial in second-language teaching?

First, the ability to interact with speakers of another language depends not only on language skills but also on comprehension of cultural habits and expectations. Understanding a second language does not in sure understanding the speaker's action, Successful cross-cultural communication entails a great deal more than language skills(Chastain 1976).

배두분(1997)은 외국 문화의 학습은 목표문화에 사는 사람들의 행동양식과 언어사용, 관습 등 그 문화적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며 목표언어 사용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직접목표이고, 목표문화의 사회에 사는 국민들이나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문화의 장점과 단점들을 알고 그 국민들에 대한 공감을 하며 목표문화와 문물의 발달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간 목표가 되며 민족 문화의 발전, 국제적 이해와 협력, 국제적 평화의 유지를 도모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보고 있다.

Rivers(1981)는 문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어린이는 성장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행동하고 표현하며 사물을 바라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러한 과정은 거의 무의식중에 삶의 일부가 된다. 문화는 그 때 그때의 상황에 맞도록 우리의 행동을 결정지어 주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리고 남들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과 남들의 기대에 어긋난 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는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으로서 어디까지 행동할 수 있는지 그 집단에 대해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Seelye(1974)는 좀더 구체적으로 학습자의 측면에서 일곱 가지 문화 교육의 목적을 언급하고 있다.

- 1) The sense or Functionality of culturally conditioned behavior
- 2) Interaction of language and social variables
- 3) Conventional behavior in common situations
- 4) Cultural connotations of words and phrases
- 5) Evaluating statements about a society
- 6) Researching another culture
- 7) Attitudes toward other cultures

첫 번째는 학습자들이 어떤 문화적인 조건하에서 이루어진 행동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 것인데 이는 그 행동에는 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양식과 문화의 어떤 요소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학습자들의 언어와 나이, 성별, 사회적 계층, 거주지 같은 사회적인 변수들의 이루어내는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목표는 학습자들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행하는 관습적인, 즉, 언어적,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행동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학습자들이 낱말과 구절들이 문화적으로 어떤 함축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도록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학습자들이 목표문화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최소화하여

그 문화를 바를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여섯 번째 목표는 목표문화에 관한 정보를 분류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목표문화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과 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다른 문화에 대해 학습자가 가져야 하는 태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학습자들이 목표언어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문화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최소화하여 문화충격을 줄이고 언어 자체의 의미 뿐 아니라 언어 내면에 담겨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인 언어 학습을 할 수 있으며 타문화에 대한 이해는 언어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시킬 수도 있어 궁극적으로 목표어의 문화권 사람들과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문화 교육 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2) 문화 분석

언어에 내재된 사회 문화적인 요소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올바른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의 문화교육의 방향이고, 외국어 학습에는 반드시 목표언어 국가나 사회의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 7차 교육과정의 내용의 일환이다.

이런 기본적인 취지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교과서의 문화내용은 현 교육과정의 의도에 다소 못 미치고 있다. (표12) 에서 알 수 있듯이 고등학교 영어(I) 교과서의 8종 중 6종만이 문화고정란을 따로 두고 있으며, 그 중 C 교과서는 문화고정란이기 보다는 읽기 자료에 대한 보충 설명란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교과서별로 그 내용과 특징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A. 중앙교육진흥연구소(김충배 외)

A 교과서는 문화를 세 단원마다 한번씩 문화고정란을 두어 소개하고 있다. 각 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소재와 관련된 영어권 문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School Parties, American School System, 등은 미국 학생들과 같은 또래인 우리나라 학습자들에게 충분한 관심사가 될 수 있으며, No way! 같은 잘못된 표현이나 영문 이력서 소개 등은 실제적인 언어학습에 유용한 문화소개라 하겠다.

B. 금성(김덕기 외)

B 교과서는 Tips for you라는 코너에서 읽기 자료에 대한 문화를 다소 속담이나 격언에 의존해서 소개하고 있다. 이는 속담이나 격언이 그 나라 조상들의 삶과 지혜를 담은 문화유산으로 그 사회의 정신적 가치나 생활관습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문화고정란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것으로 꾸며지기에는 문화의 다양함을 소개하는데 한계가 있다. 5과에서는 우리나라에 없는 미국의 화재 경보장치를 소개하고 있는데 미국의 화재 경보장치는 모든 가정집, 공공장소에 설치에 화재에 미리 경고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인들의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을 다루고 있다.

C. 한국교육미디어(이흥수 외)

C 교과서는 Culture Tip 이라는 코너에서 문화를 비교적 고정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매 단원마다 본문의 소재와 관련된 영어권 문화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분량 면에서 타 교과서에 비해 월등히 많이 제시되고 있으나

영어권문화와 우리문화를 비교 대조시킨 문화의 다양성보다는 영어권 문화의 단순한 특징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

D. 대한교과서 (이민호 외)

D 교과서는 Cross-cultural Note에서 고정적인 문화란을 두고 있다. 문화 소개에 대한 제목 없이 읽기 형태의 자료로 소개되고 있고, 학습자의 쉬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삽화나 사진이 없이 제시되어있어 약간 딱딱한 느낌이 든다. 전반적인 내용은 미국문화를 소개하고 있고, 읽기 자료와 연관된 보충 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D 교과서 역시 C 교과서와 같이 문화내용을 많이 다루려는 노력은 보이나 실제 의사소통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언어학적인 측면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안타깝다.

E. 두산 (김성곤 외)

E 교과서는 Language & Culture 라는 코너에서 3단원마다 2페이지씩 영미 문화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다. 대부분의 내용이 영미문화의 역사와 유래 또는 언어적인 표현 등을 다루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Personal Space and Private Property라고 하여 미국인들의 타인의 영역에 대한 존중해 주는 대신 자신의 영역도 주장하는 미국의 개인주의 한 형태를 설명해주고 있다. Boycott의 용어의 배경과 You're Grounded 라는 말의 의미를 소개하고 있다. E 교과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영어권 문화의 배경이나 사회적인 관습을 소개하고 있다.

F. 시사영어사 (신정현 외)

F 교과서의 특징은 매 단원마다 본문의 소재와 관련된 영어권 문화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단순히 문화적인 특징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생각을 요하는 질문을 하단에 제시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제시어를 두고 있다. 그러나 F 교과서는 문화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기보다는 본문내용과 관련된 읽기 학습의 연장이라는 느낌이 든다.

(표 12) 고등학교 2학년 영어(I)교과서의 문화란 분석

단원	중앙교육 Culture Travel	금 성 Tips for you	한국 Culture Tip	대한 Cross-cultural Note	두산 Language& Culture	시사 Take a Break
1	School Parties/		Unique Jobs (미래사회의 다양한 직업)	미국의 대학입학	Personal Space and	교육과 가난
2	American School System/ Chewing Gum	여러 나라의 건강에 관한 속담 (proverb) 이나 격 언(maxim)	Rock Music (비틀즈의 록음 악)	미국사회의 생활양식 (The lifestyle of Americans)	Private property/ Four apples That Made Europe	
3			미국의 R o m a n t i c Movies 소개	미국에서의 관광안내 센터 소개		
4	Biosphere 2		미국 대통령의 연설 소개	Small talk 소개	Community Spirit vs.	Life saver in America,911
5	Kicking the Bad Habit/ 유스호스텔 (Youth Hostel)	미국의 화재경보기 Smoke Alarm	각 나라의 발명 품 소개	직업이름 변화	Individuality Boycott	Beauty of Western lines
6	여행자 수표 (Traveler's Check)/ Bed & Breakfast (B&B)	영어권 국가의 모험 에 관한 속담과 격 언	State and Territories in Australia	심리학자 Daniel Goleman의 skills of emotional Intelligence	미국독립전쟁 의 계기가 된 영국의 식 민지 세법	Timeline of Exploration
7	American Food		Culture Shock (문화 충격의 증상)	American health care	Giving and Receiving a	Something Similar
8	Sandwich와 Hot Dog 선디? 선데이? IceCream Sundae	영어권 국가의 직업 이름이 들어간 속담 소개	I n t e r n e t Addiction (인터넷 중독의 경고 및 증상)	미국에서의 영화 인기도 소개	Gift/ Four types of Freedom/	Time Capsule
9	음식과 맛에 관련된 표현	Chuk Yeager의 sonic boom 현상 (소리물질의 밀도현 상)	Refund Policy (미국에서의 물 건 구입시 환불, 교환 정 책)	American love of new gadgets and machines.	You're Grounded	About Movies
10	Handicap? Hand in Cap?		England, Great Britain , U.K (영국의 국가 명 칭)	Story-telling spread	반응을 확인 하는 말 (Respond, Please!)/ TV, or No	Money Talks!
11	No way!	How much would you weigh on another planet?	Families in the U.S. Labor force	Emergency Service in the United States	That is the Question! /성경에서 나	CNN
12	Resume		자원봉사에 관한 소개	American tend to change Jobs	오는 익숙한 영어이름	Mysteries of the World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교과서가 현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문화적 내용을 어느 정도는 다루고 있지만 그 양과 질에서는 학습자가 문화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구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내용 소개에 있어서도 읽기 자료와 연계한 보충설명이나 이미 학생들이 알고 있음직한 내용을 다루거나 학생들의 관심사와는 너무 동떨어진 내용을 다루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단순한 영미문화의 특징을 소개하기보다는 실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서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오해나 어려움 즉, 발화 실수를 context를 통해 구체적인 설명이나 예를 들어준다면 학습자가 문화를 이해하는데 더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학습자가 목표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지식이 있다하더라도 문화간의 의사소통에서 자기 문화에서의 의미를 그대로 목표어에 사용했을 때 문법적으로는 맞아도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는 잘못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어떤 파티에서 외국인 친구를 만났을 때 왜 그가 그곳에 왔는지 궁금해서 “Why did you come here?” 라고 묻자 아주 불쾌한 표정을 지어 당황하게 된다. 비록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이지만 “여기는 네가 올 곳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이 상황에 적절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How did you come here?” 라고 해도 문법적이긴 하지만 교통수단에 대해 묻는 의미가 되므로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적합한 표현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문화교육은 학습자가 목표어 환경에 접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필요하며, 실제 상황 context 안에서의 유의미성을 강조한 문화교육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낀다. 또한 문화를 소개하는 데에 있어 소재 면에서도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타 문화권 학생들의 놀이 문화를 소개한다든지, 영미 문화권에 있는 청소년들의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또는 관심사는 무엇인지를 다루는 것도 좋은

예일 것이다.

또한 문화를 글만으로 딱딱하게 제시하기보다는 그 문화에 대한 정보와 배경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영상세대에 맞는 사진이나 그림 등의 실제성을 가미한 삽화의 삽입은 물론, 학생들의 흥미롭게 읽어 내려 갈 수 있는 만화형태의 유머나 에피소드형태로 제시한다면 학습자는 문화에 대한 학습의 차원이 아니라 이해와 관심의 차원에서 문화를 습득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교사도 문화내용에 지도에 있어 교과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와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우월감 없이 올바르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3) 소재 분석

교재 작성의 자율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권장할 수 있도록 가급적 규제와 제한을 줄인다는 제7차 교육 과정 구성의 기본 방침에 따라, 제 7차 영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학년별로 소재가 따로 제시되었던 과거의 교육 과정과 달리 포괄적인 내용의 소재가 (별표 1)로 첨부되었다. 이 때의 소재는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일반적인 화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되, 의사소통 능력, 탐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1997).

(별표 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생활에 관한 내용
2. 가정생활과 의식주에 관한 내용
3.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에 관한 내용

4. 주변의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 등에 관한 내용
5. 생활 습관, 건강, 운동 등에 관한 내용
6. 취미, 오락, 여행 등 여가 선용에 관한 내용
7. 동식물, 계절, 날씨 등 자연 현상에 관한 내용
8. 외국인의 생활 습관,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
9. 우리문화, 예절,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0. 공중도덕, 질서 등 건전한 사고를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
11. 환경 보전, 봉사, 협동 정신 등 건전한 사고를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
12.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과학, 정보 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3. 예술, 문학 등과 같이 심미적 심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4. 근로, 근검절약, 진로 문제 등 개인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
15. 남녀평등, 인권과 민주 시민 생활 등 민주 시민의식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
16. 장서 순화와 합리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
17. 애국심 함양과 안보에 도움이 되는 내용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영어(I)교과서의 94단원의 소재를 7차 외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하고 있는 (별표 1)을 참고로 분석하였다.

각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단원별 소재는 다음과 같다.

(표 13) 단원별 소재 분석

	중앙	지학	금성	별문	한국	대한	두산	시사
1단원	바람직한 교우관계	웃음의 요소, 웃음과 건강과의 관계	봉사활동	효과적인 학습비결	정신기술 과학소설 미래사회	창조적 발상	남자와 여자의 언어사용의 차이	교육의 목적
2단원	구강위생에 관한 일반상식	음악회, 음악연주, 취업면접	생활 속의 운동	마스크의 사회적, 문화적 기능	의국문화 서양음악 취미생활	독서방법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절약정신	춤의 즐거움
3단원	십대 학생들의 고민과 상담	농구경기, 역사, NBA	영어 듣기 학습	스칸디나비아의 여행	교우관계 이성교제	여행에 관한 정보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약	과학기술발달
4단원	무역, 환경, 건강, 오락 등의 미래의 전망	N a z c a Lines, Nazca 생활과 문화	재미있는 실수	백남준의 예술세계	사회생활 토의. 연설 대화 예절	미국사회와 한국사회	예술가의 생애와 작품 세계	사고의 예방
5단원	여우와 원숭이의 일화	로켓, 비행기 발달, 관광, 여행지	소방 안전 교육	스포츠 소개	발명 .인물 창의적 사고	공동체 생활의 책임감, 협동심	외국인이 소개하는 한국에서의 생활과 한국문화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
6단원	편지글로 유럽 국가 소개	한국 및 독일의 통일	청소년 도전정신	목표에 대한 노력과 성취감	외국문화 소개	EQ의 중요성	한 소년을 변화시킨 강아지와 의 우정	모험정신
7단원	신문 기사로 본 기초질서의 중요성	인종차별, 유관순 열사	세 자매의 일화	영어학습	한국문화 및 미국문화 이해	전통가정 치료요법	인간 복제 기술이 인류에 끼치는 영향	다른 나라의 문화이해
8단원	퓨전 문화의 역사, 형태, 전망	만다라, 티베트 문화	미래의 직업	환경오염	정보통신 인터넷 미래 사회	영화제작 기법	반부패를 통한 깨끗한 사회의 구현	한 소년의 이야기
9단원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위상, 전망	천문학, 우주관측, 망원경	초음파	여유를 즐기는 방법	건강 소비 생활습관	최첨단 과학 기술 나노 기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서로 돕는 삶	영화의 영향력
10단원	꽃동네봉사를 통한 봉사정신 고취	실수의 본질, 관용	탐정 지망생의 활약	현대과학의 발견블랙홀	영국 스코틀랜드 역사. 문화	헤밍웨이의 단편소설	엄마와 딸의 여행	건강한 소비
11단원	계놈 프로젝트에 대한 토론	근대 중국	우주정거장에서의 생활		남녀평등 가정생활	응급상황별 조치방법	재해대비	뉴스가 갖는 의미
12단원	자신의 적성과 진로 소개	영어의 역사	김치		민주시민 협동정신	미래의 직업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마야문명

각 교과서가 제시한 소재를 분석한 결과 소재의 제시순서는 각 교과서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학습 개인 중심의 화제와 소재로 시작하여 가족관계, 교우관계, 학교생활, 국제관계, 세계의 소재로 점차 범위를 확대시켜 가는 Finocchiaro와 Brumfit(1983)이 제시한 나선형 혹은 순환적 접근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2학년 영어(I)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소재는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과학 등 교양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21단원에서 소개하고 있고, 도전·봉사·협동 전신 함양에 관한 단원이 11개로, 예술과 문학 작품에 대한 단원이 7개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다음으로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문화교육의 일환으로 소재에 있어서도 우리문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각 교과서들은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4개 정도의 문화에 대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 전체 소재의 18개가 문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문화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도 단순한 영미권 문화를 소개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함은 물론 우리나라 문화와 외국문화를 비교 제시하고 있어 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와 이해를 고려하고 있다. 그 예로 A 교과서는 편지글로 유럽 국가를 소개하고 있고, 아울러 문화대한 교류로 인해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서로의 개성을 중요시하는 차원에서의 퓨전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 점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 우리 문화의 창조에 기여한다는 7차 교육과정에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라 여겨진다. B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에게 생소한 Nazca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남미 페루 Nazca 지역의 땅에 거대하게 그려져 있는 도형들과 그림들의 근원을 소개하는 한편 그 나라의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소재라 여겨진다.

E 교과서는 문화에 대한 내용을 전체 단원에서 무려 4단원이나 걸쳐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양한 서양의 대중음악,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문화적인 특징과 관광자원,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이 경험하고 느낀 내용을 통해 문화의 차이점을 소개하고 있고, 영국의 오랜 전통과 역사를 그대로 간직한 관광 명소인 에딘버러라는 도시를 소개하고 있는 점은 생소하고 다양한 외국문화에 대한 정보전달 차원에서 유용한 소재선택이라 본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을 관련하여 다룬 소재는 8개로 다소 적고 다양하지 않은 소재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 자신의 얘기를 담고 있는 실제적인 소재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각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소재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첫째, 학교생활에 관련된 소재(교우, 이성관계, 자신의 진로, 고민, 영어학습)로 대체적으로 단원의 앞부분이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고 있고, 대부분의 교과서가 영어학습과 학교생활을 연계해서 다루고 있다. 둘째,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관련된 소재 (미래생활, 정보통신, 과학기술, 우주과학, 인터넷)를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셋째, 문화의 다양성을 다루는 소재(한국문화, 외국문화의 특징과 역사, 생활관습)를 통해 우리 전통 문화를 세계 속에서 발전시키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넷째, 건전한 사고를 기르고 민주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합리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남녀평등, 올바른 소비교육, 협동, 봉사정신, 질서)을 담고 있다. 다섯째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양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취미, 여행, 오락, 건강, 생활습관, 여가, 영화, 춤, 소설)등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 소재의 내용은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17개항을 빠짐없이 소개하고 있어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맞춘 충실한 내용을 배울 수 있음

은 인정하나,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흥미로워할 다양한 소재 개발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4) 언어형식

1.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형식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이 제 6차 영어과 교육과정과 다른 점 가운데 하나는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형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어형식은 의사소통 기능과 함께 언어의 중요한 요소이다. EFL로서 영어를 배우는 경우, 언어 형식은 학습자에게 정확성의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 언어 교육은 유창성과 정확성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를 목표로 하여야 하므로, 의사소통 기능과 언어 형식 양쪽을 다 교육 과정에 제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언어 형식을 제시하면 지나치게 언어 형식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언어형식을 제시하되,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에 제시된 형식을 우선으로 하되, 충분치 않을 때는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형식’을 참고할 것을 권장한다는 단서를 주고 있다.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형식’ 제시에 있어서 ‘언어 형식을 어떤 형태로 제시할 것인가’에서 문법 용어를 사용하여 언어 형식을 준다면 명확하고 간결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영어 교육을 문법 교육으로 이끌어 갈 위험이 크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문법 용어 없이 예문으로만 언어 형식을 제시할 경우 어떤 요소를 초점으로 하는 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단

점이 있다. 언어 형식의 제시는 교과서 집필자 및 교육과정 독자에게 영어과 국민 공통 기본 교육의 수준과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참고 자료를 주는 것이 목적이다. ‘문법 교육으로의 회귀’라는 위험이 예상되는데 제시된 언어 형식을 명백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만을 추구하고, 예상되는 위험을 무릅쓸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문법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언어 형식의 초점은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해당되는 부분은 굵은 글자체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1997).

제 7차 영어과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형식’에 제기된 항목은 35개이다. 이들의 종류는 시제, 진행형, 완료형, 부정문, 의문문, 조동사, 부정사, 사역동사, 동명사, 수동태, 단/복수, 대명사, 유도 부사, 비 인칭 주어, 비교급, 최상급, 동등 비교, 의문형용사, 부사, 접속사, 등위 접속사, 관계 대명사, 명사절, 화법, 분사 구문, 가정법, 도치 구문, 강조 구문, 생략, 동격, 한정 표현, 부가 의문문, 가주어/가 목적어, 문장 형식 등이다. 선택 교과 교육 과정에서는 이들을 반복하거나 발전, 심화된 문장 형식을 사용하도록 한다(교육부, 1997).

(표 14) 고등학교 2학년 영어(I)교과서의 언어형식의 구성

	증양	지학	금성	법문
1	be to 부정사 용법/접속사가 있는 분사구문/ feel oneself-ing/강조 용법의 do	the+비교급, the+비교급/ 대동사구/ That's why	과거분사/분사 구문	주격보어의 용법/ 주어+완전자동사+주격보어
2	It is advisable to/ 앞에 나온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지시대명사 that/ whether..or not	The moment~/ 전치사+관계대명사/ One~,Another~	not just~,but also/ 관계대명사 what	복합관계대명사
3	I don't think/can not help ing/keep in mind that	What if~?/ slap..on the back, 기타/ the way(that)~	의문사+to 부정사/ It~to 구문에 사용되는 형용사/가정법 현재, 과거	최상급 다른 표현 최상급/ 원급
4	과거분사 / 유사 관계 대명사 than/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무관사 명사표현/ leave/keep+목적어+ing/ 연결사 This	should have pp/ If 절이 없는 가정법 구문	동격 구문/동격종류
5	분사구문의 부정/ with를 이용하여 부대 상황을 표현하는 구문/ How I wish + 가정법 과거완료	접속사 once의 용법/ 배수 표현하기/ remember to +동사원형	복수보통명사 all(of)+명사/ all of+인칭 대명사	동명사/ to 부정사 동명사 표현
6	as if 가정법/부정어구 강조를 위한 도치구문/시간의 부사절에서의 현재시제	in+ing/ All you have to do+be+동사원형/ by+~ing	관계대명사 which 현재진행 수동태	과거완료시제
7	Reportedly/Not much 로 시작하는 부정문/ Now is the time that.. 구문	목적어를 나타내는 for.. to 부정사/would의 특별 용법/ or(else)~	동명사/ 접속사 as	It~that 구문의 이해
8	비교를 나타내는 Just as...,so.. 구문/현재진행형 수동태/ 관계부사 where	not~until/ spend~ing/ 부사구 도치 구문	조동사 will be able to 분사구문	형용사의 수식어 형용사+to 부정사 be+형용사+to 부정사
9	수동태구문/최상급의 의미를 가지는 비교급구문/ 완료형 분사 구문	with+추상명사/ 비교급을 수식하는 still/ 등위 연결 표현 or	형용사역할을 하는 of+추상명사 간접의문문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10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분사/might have p.p/ whether they be..or..	if 없는 가정법/ 관계대명사 that 의 생략/ 연결사 Nor	현재완료 진행형/ 동격의 명사절	the 비교급, the 비교급
11	who can be sure if?/ 'so/as+형용사+a/an+명사/ 독립분사구문	to+have +과거분사/ otherwise/ until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seem to 구문	
12	전치사와 함께 명사를 꾸미는 관계 형용사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관계대명사	상관접속사와 병행구조/ as long as 구문/ 독립분사구문	It~for~to/It~that 구문 접속사 while	

	한국	대한	두산	시사
1	강조를 위한 도치구문/ 관계부사 why/ Unless	I'm thinking of~/ what if~/what do I do if~/I promise	접속사 while/ 분사로 시작하는 부사구형태/ so ~that 구문	분사구문/현재완료진행형/ 양보의 whether/ if 조건절의 시제
2	even, much는 비교급 앞 에서 강조의 의미/ 술어부분의 공통된 부분 생략/ every 단수명사	see if(whether)/ 선행사 자체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	목적어가 that 절인 경우의 수동태/ 부사 Otherwise/ 접속사어구 in case	부대상황의 분사구문/ 관계대명사+be동사생략/ 목적어가 절인 문장의 수동 태/ 부정관사+추상명사
3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화법전환/ 문장 앞의 부정어 도치 구문	시간, 조건을 타내는 부사 절에서 주어+be동사 생략/ that 주격 관계 대명사	시제일치의 예의/ 가목적어와 진목적어/ be made from	관계대명사 what / the same~as/ 등격의 that/ 무생물 주어 구문/ being 생략 분사구문
4	현재분사/과거분사 don't have to V 전치사+관계사	if were~현재 사실에 반대 / the 비교급, the 비교급	형용사 역할을 하는 of+추상 명사/ as if+가정법/ 동족목적어	remember to/ of+추상명사/ cannot~too/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if
5	when이 이끄는 부사절/ as(형용사/부사/명사+as+ 주어+동사)의 형태의 양보 절/ 수사의문문	refer to A as B/ 조동사 should 용법	관계부사 that/ 부대상황의 뜻을 지닌 with/ no sooner~than..	It is~that should(would)/ 등격삽입구/문장수식부사/ 공통요소생략
6	the 비교급, the 비교급/ 접속사 for/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접속사 while	might +have +pp Don't forget to~/ =remember to	과거의 불규칙 습관을 나타내 는 would/ 대부정사/ 지각동사+목적어+ing	명사의 반복을 피하는 that/ 가정의 could/ 강조의 도치/ with+분사구 문
7	관계대명사 what/ It seems that~/ 대명사	help 뒤에 원형부정사 whatever 복합관계대명사	타동사의 목적어를 문두로 도 치한 구문/ 독립부정사/ 간접 의문문	가목적어it/ 관계부사 why 가정법 as if/ as long as
8	복합관계형용사whatever 현재분사/과거분사 stop 뒤에 동명사	수사의문문/ as~시간의 경과를 나타내 는 접속사	have+목적어+과거분사/ the 비교급, the 비교급/ the last+명사	no matter how/ 결과의 to 부정사/ 가정법 과거 완료/ 원인. 이유의since
9	should have pp/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부분부정 not+always	so~that 주어 can't/ 가정의 뜻을 나타내는 전치사 with	too+형용사+관사+명사/ 부분부정/ 동사강조	전치사 of/ 부정사의 목적어 생략/ 조건절이 생략된 가 정법/ no~ever
10	not~until 구문/ no~without/ 복합관계부사 wherever	as though (if)~/ 부정사가 가정법을 대신 하는 경우	be+to 부정사의 용법/ not ~but/ 삽입절 I think	의문 형용사/원형부정사/ demand that~(should)
11	provide/supply A with B/ it is ~of A to 부정사 문형	to+ 동사+전치사/ otherwise=if~not	관계부사 where/ 접속사 suppose(that)/ 양보의 의미를 가진 접속사 as	주어가 불확실한 문장의 수동태/ 이유의 with/ if 대응어구
12	양보절을 이끄는 복합관계 대명사 whatever/ 도치구문	관계형용사 whichever/ 대부정사 to 용법	의문문의 수동태/ go(to/and)+동사원형/ 복합관계부사절	seem to+have pp/ 이유의 for/ so~as to/ unless

고등학교 2학년 영어(I)교과서에 제시된 언어형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제-현재형, 현재완료와 현재완료 진행형, 과거완료, 대과거, 과거 진행형

2. 부정문- 전체부정, 부분부정, not much 로 시작하는 부정문
3. 조동사- must/might/may/should have+p.p(과거 상황에 대한 추측), 조동사 should, used to, could/would, wouldn't , I'd rather not, will be able to, be allowed to, 조동사 should의 생략-suggest(that)+주어+(should)+동사원형, It is necessary/ important that S+(should)+동사원형
4. 부정사-It~to 구문에 사용되는 형용사, for~주어+to d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to 부정사, be to 용법,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 의문사+to 부정사, 독립부정사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부정사의 목적어 생략, 부정사가 가정법을 대신하는 경우
5. 동명사-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in+~ing, by+~ing
6. 수동태-be+being+p.p(진행형 수동태), 주어가 일반인일 경우 사용되는 수동태 구문, 목적어가 that 절인 경우의 수동태(It is believed that), 의문사가 있는 문장의 수동태, 주어가 불확실한 문장의 수동태
7. 대명사-that/those, the one(지시대명사), those who, one of..., all(of)+명사(인칭대명사)
8. 비교급, 최상급, 동등비교-the 비교급, the 비교급,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내는 비교급의 표현, 비교를 나타내는 just as...,so..., 비교급을 수식하는 still, one of +최상급, 원급비교, as~as/not as~as, the same~as. 배수사 as~as
9. 부사-문두부사, 전치사+추상명사=부사, however+형용사/부사, 부사 otherwise
10. 접속사-once의 용법, 등위 연결표현 or, nor, 상관접속사와 병행구조,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접속사 while, whether,접속사 for, 접속사 어구 in case, so~that, if/unless, even though, whenever, not only A but also B, as, neither~nor, That's why 보어절을 이끄는 that, otherwise, as though
11. 관계사-주격/목적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what, 관계부사 when, why, where 관계형용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 전치사+관계대명사, 복합관계형용사whatever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복합관계부사 wherever, 양보절을 이끄는 복합 관계대명사 whatever, 관계대명사+be동사생략, 유사관계대명사 than
12. 화법-직접. 간접화법,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화법전환)

13. 명사절-whether~or not 용법, 간접의문문, 명사절을 이끄는 if, What it is like to+ V
14. 분사-접속사가 있는 분사구문,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과거분사, 분사구문의 부정, 부대상황의 분사구문, 독립분사구문, to+have+과거분사, have+목적어+과거분사, with+분사구문
15. 가정법- 가정법 현재·과거·과거완료, without을 이용한 가정법, if 절이 생략된 가정법 과거완료, as if+가정법 과거, 가정법 대응구문 with, I wish+가정법과거 How I wish+가정법 과거완료, what if~, what do I do if~, 부정사가 가정법을 대신하는 경우
16. 도치구문-부정어구 강조를 위한 도치구문, 부사구 도치구문
17. 강조구문-It~that... 강조구문, 강조의 do
18. 생략-부사절에서의 주어+동사의 생략, 대동사, 대부정사 to, 반복되는 어구생략, 관계대명사와 be동사의 생략
19. 동격-동격구문, 병렬구문, 동격절을 이루는 that, 동격의 명사절
20. 한정표현-형용사,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분사/과거분사, to 부정사를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
21. 가주어/가목적어- It~that..(가주어, 진주어), It takes ~to , It~to(가주어, 진주어)
22. 문장형식-It seems that, 물주구문, 무생물 주어구문,

언어형식의 내용을 살펴보면, 관계대명사와 접속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 제기된 35개의 언어형식의 항목 중 몇 가지가 제시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는 비인칭 주어, 유도부사, 부가의문문 등으로 고등학교 수준으로 적절치 않아 교과서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각 교과서의 내용면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교과서가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언어형식의 내용을 대체적으로 골고루 제시하고 있으며, 위계는 없지만 예시문과 함께 제시됨으로써 학생들이 언어형식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교과서는 대부분의

언어형식을 단원마다 연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분사구문의 내용이 6과의 걸쳐서 나와 타 교과서에 비해 다소 많은 양의 분사구문의 언어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B교과서는 타 교과서에 비해 언어형식의 지면의 양을 다소 많이 할애하고 있는데, Structure in Use에서는 중요한 언어 형식과 구문들의 쓰임새를 다루고 있으며, Structure in Context에서는 구문적 특성을 지닌 표현들의 실제 문맥 속에서의 쓰임새를 제시하고 있다. B 교과서는 접속사의 내용을 5과 걸쳐서 제일 많이 소개하고 있다. C 교과서 역시 Language Awareness라는 코너로 언어형식의 내용지면을 따로 두고 있으며, 제시된 언어형식에 맞는 질문의 유도로 학습자의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학습을 꾀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내용은 고루하나, 도치구문과 대명사, 강조, 생략, 부사 등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D 교과서는 단원의 구성에서 적은 단원 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비례해서 언어형식의 제공에 있어서도 다양화와 양적인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E 교과서에서는 관계사가 5회, 도치구문이 3회에 걸쳐 타 교과서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정법의 제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F교과서에서는 Language Practice 코너에서 언어형식의 예문과 문제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고, 관계사가 4회, 가정법이 3회의 내용으로 다소 많은 언어형식의 면을 채우고 있고, 반면에 분사와 도치구문, 생략, 수동태 등은 제시되지 않고 있어 편협 되지 않은 다양한 언어형식의 제시가 요구된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예문에서의 언어형식을 제시하고 연습문제를 통해서 학습한 것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는 반면, G 교과서는 별도의 연습문제 없이 언어형식만을 제시하고 있다. 접속사가 4회에 걸쳐서 나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대체로 고른 언어형식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H 교과서는 가정법이 4회, 분사구문이 4회에 걸쳐서 제시

하고 있고, 이를 심화된 형태의 내용으로 각과에서 연계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교과서가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형식을 문장 안에서 익힐 수 있도록 예문과 함께 언어형식을 제시하고 있고, 각 교과서가 언어형식을 위계상으로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제시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나 보편적이고 평상시에 독해구문을 통해 쉽게 익힐 수 있는 표현들을 다루고 있다. 교과서마다 제시하는 언어형식의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형식의 내용을 골고루 학습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형식의 내용면에서의 연계성과 심화된 형태의 반복학습과 연습문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6. 교수학습활동

교수학습 활동은 학생들이 학습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론적 학습을 실시한 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학습목표를 습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제7차 영어과 교육 과정의 특징 중 하나는 과거의 학년별 획일적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단계형 수준별 교육 과정으로 전환한 점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동일 단계 내에서 수준별로 심화·보충형 교육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학습 진도의 개별화가 가능하게 되어, 우수 학생에게는 심화 학습 과정을 제공하여 우월성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 부진 학생에게는 보충 학습 과정을 제공하여 학습 부진이 누적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게 되었다. 7차 교육과정의 또 다른 특징은 활동과 과업 중심의 영어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결과 지향적 수업보다는 과

정 지향적 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데, 활동과 과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과정 지향적 수업에서는 학습자가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우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언어활동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의사소통 과정이므로 학습자가 과업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해하는 활동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데 매우 효과적인 활동이 된다. 이와 같은 활동 중심, 과업 중심의 영어 교육에 있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소집단 학습 활동 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차를 반영하여 심화 학습과제나 보충 학습 과제를 제시해 주고, 학습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습활동으로 7차 교육과정에서 중시하고 있는 보충/심화학습, 모둠학습을 언어의 네 기능에 걸쳐 각 교과서가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는 연습문제에 제시된 언어활동의 심화·보충의 정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학습자가 언어의 네 기능에 걸쳐 편중되지 않은 보충/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교과서 연습문제는 한과의 주요 내용 및 기능들을 익힌 후 완전히 자신의 기능으로 익히기 위한 심화 학습의 단계이다. 더불어 그 과의 학습 목표에 적합한 문제를 제시하고 많은 문제를 풀면서 반복하게 하여 완전 학습에 이르게 하며, 다음과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1997).

본 연구에서는 A 교과서의 Work It Out, B 교과서의 Review & Check, Further Work 1/2, C 교과서의 Group Activity, Review, D 교과서의 Do it yourself, Let's Learn More 1,2/ E 교과서의 Level- Up, Self-Study, F 교과서의 Project File, Optional Activities, G 교과서의 Wrap-up Activity, Review and Discuss, Go over,

Go ahead, H 교과서의 Do it yourself 등의 연습문제 활동에서 심화·보충, 모듬 학습을 분석하였다. 먼저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교수학습활동에는 반복학습, 모듬학습, 발견학습, 보충/심화학습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반복학습은 이전에 학습하였던 내용을 중복하여 학습하는 형태, 모듬학습은 학습하였던 내용을 최소 2인 이상이 짝이나 그룹을 만들어 학습하는 형태, 발견학습은 어떠한 과제(문제)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그에 해당하는 답을 찾아가게 하는 형태, 보충/심화학습은 이전에 학습하였던 내용에 추가하여 학습하거나 학습의 난이도가 상승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97).

(표 15) 고등학교 2학년 영어(I)교과서의 교수학습활동

교과서	구분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계
중앙	보충/심화	37	27	23	25	112
	모듬 학습	1	6	8		15
지학	보충/심화	60	90	12	33	195
	모듬 학습	2	5	1		8
금성	보충/심화	20	31	12	19	82
	모듬 학습	5	13	17	4	39
법문	보충/심화	28	23		30	81
	모듬 학습	2	10	17		29
한국	보충/심화	32	32	16	46	126
	모듬 학습	2	3	27		32
대한	보충/심화	60	34	50	17	161
	모듬 학습	2	12	14		28
두산	보충/심화	53	56	13	20	142
	모듬 학습		24	26		50
시사	보충/심화	60	62	20	18	160
	모듬 학습	3	5	13		21
	계	367	433	269	212	1281

교수학습활동에 대해서 4개의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영역별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8종의 교과서에서 ‘보충/심화’ 학습의 영역을 가장 많이 제시한 부분은 쓰기가 433개의 활동으로 가장 많았으며, 읽기가 367개로 그 다음으로 ‘보충/심화’의 학습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보충/심화’의 학습형태가 읽기 지문의 제시에 따른 이해정도를 확인하는 문제들로 구성하고 있고 이를 대체로 쓰기 문제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쓰기 비중의 증가의 원인으로 보인다. 각 언어기능에 따른 교과서의 ‘보충/심화’의 분포를 살펴보면, 쓰기 영역에서는 B 교과서가 제일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F 교과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읽기 영역에서 B, F, H 교과서가 가장 많은 ‘보충/심화’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말하기 영역에서는 H 교과서가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나타내고 있다. 듣기 영역에서는 E 교과서가 가장 많은 ‘보충/심화’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모둠 학습의 경우, 대부분의 교과서가 듣기에서는 모둠 활동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반면, C 교과서만이 모둠활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Group Activity라는 코너에서 그룹 안에서 듣기활동을 제시하고 서로간의 듣기의 문제점을 같이 해결하는 등의 활동을 담고 있어 특이하다. 모듬의 학습에서 말하기 영역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친구와 역할 나누어 대화하기, 주어진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상황에 맞게 대화하기, 토론하기, 게임하기, 역할극 등으로 다양한 활동의 제시와 함께 소집단 활동을 이용하여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꾀하는 유의미 적인 모듬 학습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각 교과서별로 보면, A의 교과서는 언어기능의 영역별 ‘보충/심화’의 학습의 내용에 있어서 그 분포도가 골고루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말하기 활동에서 모듬 학습의 내용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B 교과서

에서는 ‘보충/심화’의 학습이 제일 많이 제시되어 있고, 영역의 분포도에 있어서도 말하기와 듣기에 비해 쓰기와 읽기에 비중이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모둠 학습의 경우에도 쓰기 활동에 비중을 두고 있다. C 교과서는 타 교과서에 비해 다소 적은 ‘보충/심화’의 학습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모둠 학습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고루한 모둠 활동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 교과서에서는 ‘보충/심화’의 학습형태에 있어서 말하기 활동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고, 모둠 학습에서 말하기 활동을 제일 많이 제시하고 있다. E 교과서에서는 듣기활동에서 ‘보충/심화’의 학습내용을 제일 많이 나타내고 있어 다른 교과서와 차별을 보이며, 말하기 활동에서 모둠 학습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F 교과서 역시 타 교과서에 비해 ‘보충/심화’의 학습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읽기 영역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G 교과서는 읽기와 쓰기에서 ‘보충/심화’의 학습이 편중되어 있고, 모둠 학습에서는 읽기 활동과 듣기 활동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H 교과서 역시 읽기 와 쓰기 활동에서 ‘보충/심화’의 학습형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말하기 활동에서 모둠 학습의 내용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충/심화’ 학습의 각 교과서별로 내용 면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교과서의 ‘보충/심화’ 학습의 자료가 학생들의 수준에 맞고 학습 내용을 흥미롭고 유의미하게 구성하여 내용에 대한 통합적인 정리와 평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기보다는 내용을 그저 반복한다거나 배운 내용을 단순하게 문제 풀이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어 수준별 완전 학습을 고려 했다가 보다는 단순한 반복형 연습이라는 측면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각 교과서마다 보충과 심화의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어렵게 구성되어 있어, 다른

교과서에서는 보충학습이 되는 자료가 다른 교과서에서는 심화학습 자료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개인차를 고려한 학생 중심의 영어학습과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동과 과업 중심의 영어 학습이 될 수 있게끔 ‘보충/심화’ 내용의 양과 지면의 할애 제시 정도는 눈에 띄지만 실질적이고 학습자 수준에 맞는 학습, 학습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단계적이고 다양하고 유의미한 활동 등으로 내용의 구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7. Skierso 분석 기준에 따른 제 영역 분석 결과

이상과 같이 고등학교 2학년 영어(I)교과서의 분석을 Skierso(1991)의 Checklist를 기준으로 7차 교육 과정에 따른 각 교과서별 점수를 산정해 보았다. 평가 값은 Skierso(1991)가 제시한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0-4 까지 5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점수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

(Skierso 분석기준 점수)

4점: Excellent

3점: Good

2점: Adequate

1점: Weak

0점: Totally Lacking

(표 16) Skierso 분석기준에 따른 제 영역 분석 결과 점수표

		중앙	지학	금성	법문	한국	대한	두산	시사
교재 의 목표	1. 학생들의 학년 수준과 배경지식에 맞는 적절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4	4	4	4	4	4	4	4
	2. 자료의 종류와 분량이 할당된 시간과 단위에 현실적으로 적절한가?	3	1	3	1	3	3	2	2
소재	3. 소재가 학습자의 나이, 환경,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흥미에 적합한 다양한 화제를 다루고 있는가?	3	2	3	3	2	3	2	3
	4. 교과서가 적절하게 다양한 유형(형식)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가?	3	2	3	3	2	3	2	2
문화	5. 우리문화와 타문화의 차이점 및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할 수 있는 소재(문화고정란)가 충분히 제시되고 있는가?	3	1	2	1	3	4	4	3
	6. 문화 학습과 언어학습의 연계가 적절히 제시되고 있는가?	3	2	3	2	3	3	3	3
어휘 와 구조	7. 단어와 구문이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3	3	3	3	3	3	3	3
	8. 문법이나 어휘의 배가 한과에 치중되지 않고 골고루 분배되어 있는가?	2	2	3	2	2	2	2	3
단원 구성 방식	9. 단원구성의 통합제시 정도는 적절한가?	2	3	2	3	3	3	3	3
	10. 각 단원별, 기능별 연계성이 적절한가?	3	2	3	3	2	2	3	3
언어 기능 및 연습 활동	11. 학생들의 구어를 듣고 훈련을 하는데 있어 자료(개별발음, 초분절자질)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4	2	3	2	1	4	3	2
	12. 듣기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반복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가?	3	4	2	3	3	2	2	3
	13. 제시된 음성, 문자 자료의 상황이 자연스러운가?	3	3	2	3	3	2	3	2
	14. 배경지식 활성화를 위한 읽기 전 활동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가?	3	2	3	3	3	3	2	2
	15. 학습한 읽기 자료의 강화를 위해 다양한 문맥과 상황에서의 읽기 후 활동이 제시되고 있는가?	2	4	2	3	2	2	3	4

	16. 쓰기 활동을 위한 적절한 자료가 제공되고 있는가?	3	3	2	1	3	1	1	3
	17.실제적이고 다양한 활동, 상황을 언급함으로써 유의미한 의사소통을 촉진하는가?	3	2	3	3	2	2	2	3
	18.네 언어기능을 적절히 통합하는 과제 및 활동을 적절히 제공하고 있는가?	2	2	1	3	3	1	2	1
	19. 소집단활동을 통한 과제활동이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학습의 내재화를 적절하게 촉진시키는가?	2	2	3	4	3	4	4	1
편집과외관	20. 교과서의 표지나 속 등 외형적인 면이 학생들에게 호감을 주는가?	2	2	2	2	2	2	2	1
	21. 삽화가 소재와 관련이 있으며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는가?	3	4	3	4	3	3	3	2
	계	59	52	53	57	52	57	56	53
	평가값	2.8	2.5	2.5	2.7	2.5	2.7	2.7	2.5

각 8종의 영어(I)교과서의 단원구성방식, 언어기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및 활동, 의사소통 기능, 언어재료(문화 및 소재, 언어형식), 교수학습 활동(보충, 심화 활동)에 대한 비교 분석의 내용을 바탕으로 Skierso의 분류기준에 따라 교과서별 평가 점수는 위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교과서가 단원구성방식에 있어서 언어 네 기능의 활동에 충실함으로 각 단원에 대한 학습목표와 의사소통기능의 활성화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단원의 마무리에서도 각 기능의 통합적인 제시 방식과 다양한 활동으로 심화와 보충, 모둠 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학습이 되도록 구성하고 있다. 교과서별로 보면, 중앙의 경우, 대체적으로 모든 단계에서 고루한 점수의 분포를 보이는데, 이는 각 언어활동에 있어서의 다양한 활동과 실질적인 자료의 구성으로 학습자의 흥미와 유의미적인 학습을 도우며, 소재에 있어서도 가장 학습자 수준과 관심에 근

접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소통 기능의 제시에 있어서는 지적태도변화가 거의 절반을 차지함으로써 고루한 제시를 보이지 못하였으며, 단원을 정리하는 심화, 보충학습이 타 교과서에 비해 다소 적은 양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학사의 경우에는 소재 면에 있어서 너무 교육적인 내용으로 다양한 글감이 아닌 설명문 형태의 글이 다수를 이룬다. 말하기 활동에 있어서는 듣기와 통합적인 제시방식으로 4컷 분량의 만화형식을 제시 단순한 듣고 대화하기가 아니라 대화문을 이용한 질의응답으로 학습자의 창의적인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지학사는 각 언어활동과 내용구성 면에서 많은 양을 다루고 있어 시간 내에 학습할 양에 대한 학습자의 부담을 고려하게 된다. 금성의 경우 각 언어활동에 있어서 비교적 다양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나 심화, 보충 학습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양을 제시하고 있어 학습자의 효과적인 수준별 학습을 기대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법문사는 단원구성에 있어서 타 교과서에 비해 적은 양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휘와 언어학습, 보충, 심화학습의 양은 비교적 많은 편이다. 만화삽화를 이용한 듣기와 말하기 기능의 제시는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켜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본다. 한국교육미디어의 특이점은 말하기 구성의 하나인 Expressions라는 코너에서 실제의 발화상황에서 올바른 기능의 담화 형태를 소개해 주고 있어 효과적인 말하기 학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읽기 자료와 관련한 어휘, 중요한 관용구에 대한 발음기호의 부재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학생들의 어휘학습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대한교과서는 단원마다 각 언어기능과 활동에 대한 이해정도를 학습자가 스스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성취도에 따른 재학습의 여부를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그러나 대한교과서는 타 교과서에 비해 언어활동이나 심화 보충학습의 형태가 양과 다양성 면에서 부족한 점

이 많다. 두산 교과서는 대체적으로 단원의 구성에 있어서 각 언어기능과 언어재료 등을 고루하게 제시하고 있고, 학습자 중심의 언어활동과 학습이 되게 하기 위한 모둠 학습의 제시가 타 교과서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 내에서의 자유 활동과 과제의 수행 학습을 학습자가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시사영어사의 경우 언어형식에 있어서 예문의 제시와 함께 문법 용어를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의사소통기능에 있어서는 타 교과서에 비해 적은 양을 제시하고 있으며, 읽기 자료의 구성에 있어 하나의 긴 글이 본문 전체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 학습자의 읽기의 이해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교과서가 학생들의 문자언어에 대한 보완적 기능으로 삽화를 각 기능과 내용에 맞게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의 내용을 쉽고 명백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며 문자만으로 그 뜻을 전달하기 어려운 교과서의 내용을 사진이나 그림 등의 삽화로 제시하여 내용과 결부시키면 더 쉽고 이미지 안에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의 효과는 매우 크다. 지금세대를 영상세대라 할만큼 시각적인 면에 있어서 민감하고, 감각적인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흑백의 교과서가 아닌 칼라의 색상을 지닌 세련된 교과서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IV. 설문조사 분석 및 결과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고등학교 2학년 영어(I)교과서 8종에 대해서 수업 현장에서의 활용도와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현직 교사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설문을 구성하였다. 설문대상은 서울시내와 경기도내 17개 고등학교를 개별방문 통해 고등학교 2학년 현직교사 48명과 학생 3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Skierso(1991)의 Textbook Evaluation Checklist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먼저, 교사의 설문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큰 항목 3개 영역을 기본으로 단원구성방식에서 4문항, 의사소통 기능 및 언어기능에서 15문항, 언어재료에서 3문항, 과제제시 및 수준별 학습활동에서 6문항 등으로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총 26문항을 제시하였으며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쓰는 란도 별도로 구성하였다. 학생 설문지는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고 현재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쓸 수 있는 란을 두어 학생들의 해당 교과서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기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 교과서마다 설문에 응해 준 학생의 수는 중앙교과서가 65명, 지학사 67명, 금성 교과서가 31명, 법문사 32명, 한국교육미디어가 31명, 대한교과서가 55명, 두산 교과서에 28명, 마지막으로 시사가 28명으로 총 337명의 학생들이 설문에 응답해 주었다. 설문지의 내용에 따른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5-매우 그렇다, 4-그렇다, 3-그저 그렇다, 2-그렇지 않다, 1-전혀 그렇지 않다 등으로 각각 해당되는 칸에 표시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설문지의 총점을 응답한 인원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2. 결과분석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고등학교 2학년 영어(I)교과서에 대한 회수된 교사와 학생의 설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내용에 따라 선생님과 학생의 의견에 대한 결과를 동시에 제시하여 두 대상간의 의견차이도 고려하였다. 아울러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이 각 교과서를 사용 중인 실제 학습현장에서는 얼마나 만족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하고 있는지 다음 분석내용을 통해 알아보았다.

1)단원 구성방식

(표 17) 영어(I) 단원 구성방식관한 교사의 응답

내 용	중앙	지학	금성	범문	한국	대한	두산	시사
(단원구성방식)								
1. 학생들의 수준에 비추어 교과서의 난이도는 어렵습니까?	3.2	3.5	3.0	4.0	2.7	2.5	3.5	2.2
2. 교과서의 매시간 학습지도 분량과 교과서의 양이 학생들에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3.3	2.5	2.8	2.3	2.5	2.3	2.5	3.0
3. 각 차시별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독립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6	3.8	3.7	3.6	3.8	3.8	3.7	3.2
4. 각 단원 구성의 통합적인 제시정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2	2.3	3.2	2.5	2.5	2.5	2.8	2.8
합 계	3.3	3.0	3.1	3.1	2.8	2.8	3.1	2.8

(표 18) 영어(I) 단원구성 방식관한 학생의 응답

내 용	중앙	지학	금성	범문	한국	대한	두산	시사
1. 영어교과서가 영어를 배우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3.1	3.0	3.2	3.0	2.8	2.6	2.8	2.8
2.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영어교과서는 여러분에게 어렵다고 생각이들니까?	3.6	3.8	2.9	3.2	2.4	2.8	2.9	2.6
3. 매시간 공부하는 교과서 분량이 여러분에게 많다고 생각하나요?	2.8	3.7	2.7	2.6	3.0	2.9	2.7	2.7
합계	3.2	3.5	2.9	2.9	2.7	2.8	2.8	2.7

단원구성방식에서의 교사의 응답은 대부분의 교과서가 ‘그저 그렇다’라는 점수를 받았으나 이중 한국교육미디어, 대한교과서, 시사영어사가 ‘그렇지 않다’의 점수를 받았다. 이들 교과서는 우선 난이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학습자 수준에 맞는 혹은 학습자의 수준보다 조금 앞서는 정도 (Krashen의 $i+1$)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법문사의 경우에는 단원의 구성이 타 교과서에 비해 2단원이나 적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습 분량에 대해서 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원구성에 있어서 통합적인 제시정도가 잘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교과서가 ‘그렇지 않다’에 점수가 많은데 비해 중앙과 금성은 ‘그저 그렇다’ 정도의 3.2%로 다소 긍정적인 대답을 얻고 있다. 이들 교과서는 실제로 타 교과서에 비해 각 언어기능에만 해당되는 활동을 제시하기 보다는 언어기능을 통합해서 제시한 활동들이 많았고 이는 학습의 연계성면에서도 효율적이라 여겨진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학생들의 응답결과에서는 현 교과서가 영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평균 2.9%로 ‘그저 그렇다’의 결과를 보였다. 교과서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교과서가 2.6%이상의 점수를 보이는데 이는 교과서 이외에도 영어학습의 기회에 쉽게 노출된 현 영어교육에서 교과서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교과서의 난이도면에서는 지학사가 학생이 3.8%, 선생님 3.5%로 ‘그렇다’ 라는 결과로 교과서의 난이도가 학생들의 수준에 비해 다소 어렵게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사 또한 선생님과 학생의 응답이 각각 2.2%와 2.6%로 난이도는 어렵지 않다는 의견의 일치됨으로 난이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 언어기능 및 의사소통 활동

(표 19) 영어(I) 언어기능(의사소통활동)에 관한 교사의 응답

내 용	중앙	지학	금성	법문	한국	대한	두산	시사
(언어기능 및 의사소통 활동)								
5. 의사소통 표현이 자연스러운 구어체입니까?	3.7	2.8	2.5	3.5	3.7	3.2	2.5	3.0
6. 의사소통 기능 학습활동의 양은 많습니까?	3.0	2.2	2.8	2.8	3.2	2.7	2.8	2.8
7. 의사소통의 활동이 본문의 내용과 함께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0	2.8	2.5	2.4	2.7	2.5	2.5	2.2
8. 교과서에서 담고 있는 초분절자질(강세 악센트, 연음 등)의 제시수준은 알맞고 양은 적당합니까?	3.0	2.3	3.3	2.5	1.9	2.8	3.0	2.3
9. 듣기활동에 있어서 교과서의 구성이 짜임새가 있고,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3.2	2.8	3.0	3.2	2.5	2.3	2.3	3.2
10. 듣기 활동에 있어 학생 개개인의 수준별 학습(보충, 심화) 제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5	2.7	2.7	2.8	2.7	2.5	2.3	3.1
11.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는 말하기 활동(게임, pair activity)의 제시가 많습니까?	2.7	2.5	2.5	3.0	2.5	2.5	2.7	2.0
12. 읽기 지문의 소재는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시키는데 다양하고 흥미롭습니까?	3.5	3.0	2.8	2.3	2.7	2.3	2.5	2.2
13. 읽기 지문의 자료는 실용문이면서 학생들의 지적관심과 흥미를 끄니까?	3.8	2.7	3.0	2.3	2.8	2.2	2.8	2.5
14. 읽기 지문의 학습의 양과 수준은 학생들에게 적절합니까?	3.0	3.0	2.8	2.7	2.7	2.5	2.4	2.8
15. 읽기 전 활동과 읽기 후 활동은 학생들의 읽기 학습에 충분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2	2.8	3.0	2.8	3.0	2.5	3.0	3.0
16. 제시된 쓰기연습은 교과서 전체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하도록 구성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0	2.3	2.3	2.8	3.0	2.3	3.0	2.8
17.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쓰기 소재(일기, 학습신문, 편지 등)가 제시되고 있습니까?	3.0	2.5	2.7	2.8	2.7	1.8	2.8	2.5
18. 언어기능에서 제시된 각 활동들이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적절합니까?	3.0	2.7	2.7	2.7	2.8	2.8	2.5	2.7
19. 소개된 모든 활동들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가능하게 합니까?	2.7	2.2	2.8	3.0	2.5	2.3	2.5	2.5
합계	2.9	2.6	2.8	2.8	2.6	2.5	2.6	2.6

(표 20) 영어(I) 언어기능(의사소통활동)에 관한 학생의 응답

내 용	중앙	지학	금성	법문	한국	대한	두산	시사
4. 교과서에서 듣기활동은 재미있고 여러분의 듣기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되나요?	2.7	2.6	2.9	2.5	2.0	1.7	1.8	1.9
5. Dialog에서 제시된 말하기 활동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나요?	2.9	2.5	2.4	2.2	2.8	2.3	2.8	2.3
6. 본문내용의 읽기의 소재(글감)는 흥미로운가요?	3.2	2.5	2.9	2.5	2.3	2.8	2.8	2.2
7. 본문내용과 연관된 읽기 전 학습활동과 읽고 난 학습 활동은 본문내용을 이해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나요?	3.1	3.4	3.2	3.1	2.9	2.7	2.7	2.9
8. 쓰기의 내용의 양과 수준은 여러분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나요?	2.9	2.2	2.4	2.9	2.3	2.1	2.5	2.5
9. 언어기능에서 제시된 제 활동들이 실제 여러분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나요 ?	3.0	2.9	2.7	2.2	2.8	2.0	2.1	2.1
10. 수업 중에 하는 활동(task or activity)은 재미있나요?	2.2	2.0	2.1	1.9	2.0	1.7	1.9	2.1
11. 활동을 할 때 배운 영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나요?	2.8	2.6	2.2	2.0	2.7	1.6	2.0	2.1
12. 교과서에 있는 발음, 강세, 억양 등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의 발음공부를 하는데 충분히 제시되고 있나요?	3.2	2.4	2.5	2.3	1.6	2.3	2.2	2.0
합계	2.8	2.6	2.6	2.4	2.4	2.2	2.4	2.2

의사소통기능에서 교사의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교과서가 의사소통기능의 학습에 관한 질문에 평균 2.8%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7차 교육과정에서 중시하고 있는 실용 영어 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의사소통기능을 배양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대체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교과서별로 보면 중앙과 한국교육미디어가 의사소통 표현이 자연스러운 구어체입니까 라는 질문에 각각 3.7%로 타 교과서에 비해 양호한 점수를 얻었는데, 이는 본 연구의 의사소통기능의 분석 면에서도 언급했듯이 학습자의 실질적인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실제 발화상황에서 학습자가 실수할 수 있는 면을 제시하고 있어 올바른 기능의 담화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사소통 기능의 학습활동 양은 많습니까 라는 질문에 지학사가 다소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의사소통기능 표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지학사의 경우 타 교과서에 비해 의사소통기능의 제시율이 적었던 점을 보면 설문조사와 분석에 있어 일치된 결과를 볼 수 있다. 학생의 설문지에서도 말하기활동에서 제시된 의사소통기능표현이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냐요 라는 질문에 중앙과 한국교육미디어가 각각 2.8%, 2.9%, 지학사가 2.5%로 교사의 의견과 일치됨을 나타내고 있으며 문항에 대한 비율의 결과를 보면 대체로 ‘그렇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와 의사소통 기능 표현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에 7차 교육과정에서 중시하고 있는 의사소통기능의 배양이라는 취지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언어기능에 대해서는 듣기의 경우 교과서의 듣기활동은 다양하고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교사와 학생의 평균응답은 각각 2.7%, 2.3%로 ‘그렇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본 연구의 교과서 분석내용에서 듣기의 경우 각 언어활동중 제일 많은 활동량을 제시하고 있는 점으로 나타났고 각 교과서에서 제시한 듣기활동에 있어서도 간단히 듣고 내용에 맞는 답을 고르거나 그림을 고르는 문제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활동의 고루한 분포를 보였으나 설문결과는 부정적인 응답으로 본 연구 내용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또한 교과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쓰는 란에 학생들은 듣기활동을 더 강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고, 듣기 Tape의 native speaker의 기계적인 목소리가 아닌 생동감 있는 목소리와 실질적인 상황을 연상할 수 있는 사실적인 목소리로 구성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말하기경우에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는 말하기 활동(게임, pair activity)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교사의 응답은 범문사가 3.0%로 ‘그저 그렇다’로 제일 높은 반응을, 시사가 2.0%로 ‘그렇지 않다’로 제일 낮은 평가를 받은 반면, 말하기 역시 대부분의 교과서가 낮은 점수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학생의 경우는 한국교육미디어가 2.9%로 다소높은 비율로 교사와 다른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읽기의 경우에는 본문내용의 읽기의 소재(글감)는 흥미롭고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가 라는 질문에 선생님과 학생은 중앙의 경우가 각각 3.0%와 3.2%, 금성이 3.0%로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한 반면, 나머지 6종 교과서는 평균 2.5%의 미만의 반응으로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다소 소재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으로 본 연구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 교과서가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소재의 내용을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점은 인정하나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소재,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다양성은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적 가치만을 고려한 소재가 아닌 학생들의 기대 수준에 따른 소재 제시는 학생들의 읽을거리의 동기부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 성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격적인 읽기활동에 앞서 읽기활동의 선수학습인 읽기 전 활동과 읽고 난 후 학습활동은 본문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교사와 학생 모두 3.3%에서 2.5%까지 반응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평균 2.9%로 다소 긍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읽기 학습의 이해에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쓰기의 경우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쓰기의 활동이 제시되어 있고,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에 교사와 학생의 응답에서 중앙이 각각 3.0%, 2.9%로 제일 양호한 분포를 보이고 대한교과서가 1.8%, 2.1%로 타 교과서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분포를 보여 쓰기활동이 다소 미흡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내용 분석에서도 언급했듯이 대한 교과서는 학생 중심의 다양한 쓰기 활동이 아닌 본문 내용을 확인하고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쓰기 형태의 내용이 많아 실제적인 쓰기 연습활동의 부재의 원인으로 여겨진다. 언어기능의 제 활동

들은 재미있고 실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가 라는 질문에 교사는 해당 교과서에 2.5%~3.0%의 분포를 나타내 평균 2.8%, 로 ‘그저 그렇다’의 의견을 보였다. 학생 역시 언어기능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할 때 배운 영어를 많이 사용하여 여러분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가 라는 질문에 평균 2.5%의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언어기능의 활동과 의사소통의 연계성면에서 교사와 학생의 응답률이 저조한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실제로 각 언어활동이 실제 학습현장인 교실에서 제한된 수업 시간 내에 활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설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3) 언어재료(문화, 언어형식)

(표 21) 영어(I) 언어재료에 관한 교사의 응답

언어재료(문화, 언어형식)	중앙	지학	금성	법문	한국	대한	두산	시사
20. 교과서에 제시된 언어형식표현이 말을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5	3.2	2.5	3.2	2.7	2.5	2.8	3.2
21. 문화에 대한 정보는 재미있고 학생들의 문화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흥미로운 내용으로 충분히 제시하고 있습니까?	3.2	2.5	2.8	2.8	3.2	2.5	2.8	2.5
22. 문화학습과 영어학습의 연계성이 적절히 제시되고 있습니까?	3.0	2.5	2.8	2.5	3.0	2.8	3.0	2.8
합계	3.2	2.7	2.7	2.8	3.0	2.6	2.9	2.8

(표 22) 영어(I) 언어재료에 관한 학생의 응답

언어재료(문화, 언어형식)	중앙	지학	금성	법문	한국	대한	두산	시사
13. 문화에 대한 정보는 재미있고 새로운 내용인가요?	3.3	2.0	3.1	1.9	2.7	2.9	2.8	2.5
14. 교과서에 나오는 문화내용은 여러분이 영어권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3.2	2.2	3.1	2.1	3.0	2.7	3.0	2.9
15. 교과서에 있는 언어형식(문법)은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도움을 주나요?	2.7	2.5	2.2	2.6	2.7	2.9	2.3	2.4
합계	3.1	2.3	2.8	2.2	2.8	2.8	2.7	2.6

교과서에서 제시된 문화에 대한 정보는 학생들의 문화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참신한 내용인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교과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교사가 2.9%로 ‘그저 그렇다’ 정도의 제시 율로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학생의 경우는 중앙과 한국교육미디어, 두산 교과서에서 각각 3.0%의 비율로 교사와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에 범문사에서는 2.1%를 지학사에서 2.2%의 아주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문화고정란을 두고 실질적인 문화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냐에 따른 결과로 학생들의 문화고정란에 대한 인식도를 나타낸 결과로 보여진다. 지학사의 경우 본 설문 내용의 교과서별 더 첨가되기를 원하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목표문화에 대한 설명 및 다양한 문화를 소개, 사진을 첨부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높았다.

교과서에 제시된 언어형식(문법)은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교사와 학생의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사는 3.5%의 응답으로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준 반면, 학생은 제일 높은 분포가 2.9%에 그치며 낮게는 2.2%까지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의 결과를 보였다. 현 고등학교 2학년 영어(I)에 제시되고 있는 언어형식에 대한 내용은 본 연구 분석에서도 언급했듯이 언어형식을 위계적이고 점층적인 단계로 구성하고 있지 않지만, 8종 교과서 모두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언어형식을 바탕으로 의사소통 기능과 함께 예시문 안에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 기능과 언어형식의 연계성을 무시한 종전의 문법위주의 교육과는 차별을 두고 예시문안에서 언어형식의 내용을 접함으로써 보다 쉽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7차 교육과정의 취지와는 다르게 실제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제시한 언어형식에 대해 상당히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본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언어형식의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교과서에서 좀 더 많은 양의 할애로 언어형식을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언어형식에 대한 문제도 심화, 보충활동에서 제시하여 학생들이 반복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4) 보충·심화 학습

(표 23) 영어(I) 보충·심화 학습에 관한 교사의 응답

수준별 학습활동(보충·심화 학습)	중앙	지학	금성	법문	한국	대한	두산	시사
23. 보충과 심화 학습을 위한 학습 내용의 양이 많습니까?	2.7	2.3	2.2	2.3	3.3	1.8	3.2	2.7
24. 보충과 심화 학습의 수업지도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습니까?	3.0	2.5	2.2	2.8	3.2	2.3	3.0	2.3
25.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 (task or activity)은 학생들에게 흥미롭고 의사소통을 돕는다고 생각하십니까?	3.0	2.2	2.7	2.5	2.7	2.5	2.8	1.8
26. 그림, 사진, 삽화가 정성스러우며 효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2	2.3	2.5	3.5	2.3	2.5	2.1	2.5
합계	3.0	2.3	2.4	2.8	2.9	2.3	2.8	2.3

(표 24) 영어(I) 보충·심화 학습에 관한 학생의 응답

수준별 학습활동(보충·심화 학습)	중앙	지학	금성	법문	한국	대한	두산	시사
16. 심화. 보충 학습활동의 학습내용이 여러분의 수준에 적당하고 생각하나요?	2.8	3.1	2.8	3.1	2.8	1.9	2.5	3.0
17. 교과서에서 제시된 과제 활동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의미 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나요?	3.2	2.7	3.0	2.8	2.6	2.4	2.6	2.5
18. 교과서내의 삽화(사진, 그림, 만화 등)는 여러분의 영어 공부를 하는데 있어 흥미롭게 꾸며져 있나요?	2.7	2.2	2.9	3.2	2.4	2.7	2.7	2.0
합계	2.9	2.7	2.9	3.0	2.6	2.3	2.6	2.5

보충, 심화학습에 대한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제시 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교사는 평균2.7%의 비율로 ‘그저 그렇다’정도의 의견을 보여주고 있고, 보충·심화학습을 위한 학습 내용의 양이 많습니까 라는 질문에 2.4%로 ‘그렇지 않다’ 정도의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학생의 경우 보충·심화 학습활동의 학습내용이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가라는 질문에 2.9%로 ‘그저 그렇다’로 다소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보충·심화에 있어서 제시된 과제 활동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유의미 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교사와 학생 모두 평균 2.5%의 분포의 결과로 다소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전반적인 내용을 교과서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중앙, 금성, 범문, 두산이 ‘그저 그렇다’정도의 의견을 보이고 반면에 시사와 지학사는 ‘그렇지 않다’의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 분석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충·심화학습은 교과서마다 차이는 있지만 2~3정도의 지면의 할애로 학습자가 한 단원 내용을 정리하고 복습 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또한 모둠활동에 대해서도 금성과 두산은 Group Activity라는 코너를 따로 두어 제시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과서가 모둠활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별, 모둠별, 활동으로 기계적인 연습이나 모방이 아닌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참여하는 과업 중심의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설문결과에서 보인 것처럼 이러한 보충·심화학습과 모둠활동은 실제 학습현장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실질적인 도움을 못 느끼는 가운데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알아 본 결과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제시한 다양한 모둠활동과 보충, 심화학습 그리고 각 언어기능의 활동까지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은 학습현장에서 거의 다루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심한 경우 학생은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수업시간에 교과서의 내

용은 읽기 위주의 학습만을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과업을 통해 학습자의 능동적인 자세를 이끄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따라 구성된 교과서는 학습현장에서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5) 교과서별 사용 교과서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의견

(표 25) 영어(I) 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의견

	중앙	지학	금성	법문	한국	대한	두산	시사	계	비율
(1) 교과서 내용이 지루하다		2			2	1	1	2	8	15.7
(2) 수준이 맞지 않다			1	2				2	5	9.8
(3) 내용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			2					2	4	7.8
(4)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학습활동의 제시가 부족하다	1	3	2	3	2	2	1	1	15	29.4
(5) 교과서 외형이 적절치 않다	2	2			1		2		7	13.7
(6) 언어활동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1		1	1	1			4	7.8
(7) 교과서 내용에 오류가 있다	1	1		1		2		3	8	15.7
합계	4	9	5	7	6	6	6	8	51	100.

교사의 사용 교과서에 대한 의견 및 개선점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다양하였다.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과서 내용이 지루하다, 수준이 맞지 않다, 내용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다,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학습활동의 제시가 부족하다, 교과서 외형이 적절치 않다, 언어활동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교과서 내용에 오류가 있다 등 구체적인 응답으로 설문지에 서술하였다. 교과서 내용이 지루하다는 내용은 지학사와 시사, 한국 교육미디어 교과서에서 제시되었으며, 수준이 맞지 않다는 시사와 법문 교과서에서 언급되었고, 내용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 에서는 금성과 시사에서 제시되었다. 이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일관성 있는 글을 제시하고, 짧아도 완성된 글의 형태를 실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학습활동의 제시가 부족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모든 교과서의 교사가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

었으며 이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다소 회의적인 것으로 양적으로 많은 실현 불가능한 activity 활동이 아닌 전반적인 교실환경과 학생의 수준환경을 고려하여 언어기능과 의사소통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activity를 많이 넣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과서 내용에 오류가 있다 에는 중앙과 지학, 법문, 대한 교과서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어휘, 문법오류 등으로 교과서에 대한 학습대상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기 충분히 재검토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교과서별 더 첨가되기를 원하는 내용으로 교사는 풍부한 읽기 자료,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내용과 양적인 면에서도 더 많은 분량의 읽기 자료를 요구하였다. 기타 내용으로는 교과서 지문의 작가, 출처, 사실여부와 CD를 좀 더 사용자 입장에서 구성하고 정교하게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표 26) 영어(I) 교과서에 대한 학생의 의견

	중앙	지학	금성	법문	한국	대한	두산	시사	계	비율
(1) 재미있고 실제적인 본문 내용	10(0.17)	19(0.24)	6(0.16)	7(0.18)	4(0.11)	13(0.22)	7(0.28)	6(0.33)	72	20.5
(2) 생활영어강화 (회화적인 표현)	8(0.14)	12(0.15)	2(0.05)	8(0.20)	3(0.08)	9(0.16)	4(0.16)	3(0.17)	49	14.0
(3) 듣기강화 (실제적인 음성제시)	3(0.05)	4(0.05)	1(0.03)	3(0.08)	2(0.05)	2(0.08)			15	4.3
(4) 목표문화에 대한 설명 및 다양한 문화소개, 사진 첨부	7(0.12)	16(0.21)	3(0.08)	7(0.18)	3(0.08)		2(0.08)		38	10.8
(5) 실용적인 문법제시 및 설명	5(0.09)	7(0.09)	10(0.27)	5(0.13)	6(0.16)	10(0.17)	3(0.12)	2(0.11)	48	13.7
(6) 발음, 강세, 억양 강화	1(0.02)	8(0.10)			5(0.14)		1(0.04)		15	4.3
(7) 심화, 보충학습 강화(언어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제제시)	7(0.12)	3(0.04)	3(0.08)	2(0.05)		11(0.19)	3(0.12)	1(0.06)	30	60
(8) 어휘 풍부성(어휘 뜻풀이)	5(0.09)	1(0.01)	5(0.14)	2(0.05)	4(0.11)	4(0.07)	1(0.04)	1(0.06)	23	6.6
(9) 교과서 외형적인 면 강화 (그림, 사진, 삽화, 만화)	4(0.07)	5(0.06)	2(0.05)	3(0.08)	5(0.14)	4(0.07)	3(0.12)	3(0.17)	29	8.3
(10) 쉬어가는 코너(노래, 게임)	5(0.09)	3(0.04)	2(0.05)	1(0.03)	4(0.11)	3(0.05)	1(0.04)		19	5.4
(11) 수능과 관련된 것들	3(0.05)		3(0.08)	2(0.05)	1(0.03)	2(0.03)		2(0.11)	13	3.7
합계	58	78	37	40	37	58	25	18	351	100.

학생의 사용 교과서에 대한 의견 및 더 첨가되기를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설문대상자 337명 가운데 294명이 주관식 설문에 응답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미있고 실제적인 본문내용, 생활영어강화, 듣기강화, 목표문화에 대한 설명 및 다양한 문화소개, 실용적인 문법제시 및 설명, 발음, 강세, 억양 강화, 심화, 보충학습강화, 어휘 뜻풀이, 교과서의 외형적인면 강화, 쉬어가는 코너 마련, 수능과 관련된 것들을 언급하였다.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 해당 교과서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원하는 내용이 고루한 분포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재미있고 실제적인 본문내용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은 어느 교과서 설문지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많은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항목이다. 전체 의견의 20.5%에 해당된다. 생활영어강화(회화적인 표현)에서는 학생들은 교과서가 실제생활영어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 기능의 역할을 바라고 있다.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내용이 아닌 외국인을 만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표현을 많이 넣어 달라는 것이다. 이 문항에서는 설문내용에 14%의 높은 비율을 보여 교과서를 통해 의사소통기능 향상에 대한 기대를 바라고 있다. 목표문화에 대한 설명 및 다양한 문화소개, 사진 첨부에서는 의외로 문화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나라의 문화적 특징과, 우리 나라 문화와 다른점, 학생또래의 다른 나라 친구들의 이야기를 실어 달라는 내용이 많았다. 실용적인 문법 제시 및 설명은 13.7% 학생의 응답으로 다소 많은 학생들의 요구사항이다. 교과서에 제시된 문법을 좀 더 자세히 더 많은 내용을 넣어 달라는 의견과 예시문을 통한 제시는 좋으나 막상 시험 문제에 나오면 모르겠다는 의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더 많은 설명을 구체적으로 제시, 문법에 대한 더 많은 지면의 할애 등을 각 교과서마다 더 첨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발음, 강세의

강화는 대체적으로 저조하게 언급한 반면, 한국 교육미디어에서 5개의 학생 의견이 나왔는데, 이는 본문내용에서 어휘에 대한 발음기호가 전혀 표시되지 않아 학생들의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는 본 연구자의 의견과 일치된 결과이다. 심화, 보충학습의 강화에서는 실제 수업시간에서 활용하지 않는 그룹별 활동이나 과제제시 방식이 아니라 본문 내용에 관한 문제를 많이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기능별로 구분을 나누어 보충·심화학습을 상세히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교과서에는 대한이 11개로 제일 많은 언급을 하였다. 어휘에 대한 뜻풀이와 학습자 수준에 맞는 어휘를 제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교과서의 외형적인 면에서는 응답한 학생들 모두 교과서를 칼라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사진 첨부도 적절한 지면에 실제성 있는 것을 실어 줄 것과 만화와 다양한 그림 등을 첨부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다소 낮은 8.3% 응답 율을 보였다. 쉬어 가는 코너를 따로 만들어 넣어달라는 의견도 보였다. 팝송이나 재미있는 폰트를 새로운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달아 주거나 하여 쉬어 가는 코너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내용을 언급했는데, 쉬어 가는 코너에서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이나 신문기사, 퍼즐등 흥미로운 내용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수능과 관련된 글이나 문제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제시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다. 내신과 수능의 영어 공부를 따로 해야 하는 현실이 싫다는 학생의 의견을 볼 때 안타깝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제작된 고등학교 2학년 영어(I)교과서 8종에 대해 그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 7차 교육과정의 목적과 성취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과서의 단원구성방식, 언어 네 기능 및 활동, 의사소통능력, 문화, 소재, 언어형식, 보충, 심화 학습 등 교과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객관적인 정보와 현실적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의 항목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2학년 영어(I)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1. 교과서 단원 구성 및 기본체제: 전체적으로 각 교과서의 구성 면에 있어서는 7차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지침에 따라 법문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과서가 Part I, II로 나누어 6단원씩 총 12단원으로 구성하고 있고, 언어기능의 제시는 모든 교과서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각 단원에서는 언어기능과 다양한 활동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였고, 의사소통 기능의 제시에 있어서도 현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에 준수하여 대체로 고루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문화에 대한 소개와 학생들의 흥미와 능동적인 학습참여 형태의 Group Activity 도 고려하였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난이도는 어렵지 않다는 설문결과로 학습자 수준에 맞는 혹은 학습자의 수준보다 조금 앞서는 정도(Krashen의 $i+1$)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더 많은 연구를 통한 지역별 개인별 학습대상의 수준을 고려한 교과서 구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언어기능 및 활동: 본문 내용과 관련하여 언어 네 기능의 영역은 대체로 각 기능에 다양한 활동과 구성으로 제 영역에 충실하게 제시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교과서가 각 기능의 영역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여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내용에 따라 그 영역의 심도 있는 학습을 이끌기 위해 보충, 심화학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활동과 심화, 보충 학습에 대해 교사와 학생의 낮은 호응으로 학습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을 고려한다면 이는 활동량과 수준, 내용에 관한 연구가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진정으로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3. 의사소통기능 및 언어형식: 대부분의 교과서가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의사소통 예시문을 골고루 잘 반영하고 있다. 언어형식에 있어서는 위계적이고 점층적인 난이도의 구성의 제시는 미흡했으나 반복이나 심화의 형태로 단원마다 연계성 있는 제시함께 예시문 안에서 내용을 다루고 있어 문법 위주의 교육이 아닌 의사소통을 고려한 실질적인 학습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각 교과서마다 언어형식의 다양화와 양적인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고, 이에 학생들은 더 많은 언어형식의 제시와 구체적인 설명과 심화, 보충학습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4. 소재: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영역은 크게 다섯 가지의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첫째, 학교생활에 관련된 소재, 둘째, 정보화시대에 관련된 소재, 셋째, 문화의 다양성을 다루는 소재, 넷째, 건전한 사고와 합리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소재,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양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의 소재를 다루고 있다. 전반적으로 교과

서 소재의 내용은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17개항을 빠짐없이 소개하고 있어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맞춘 충실한 내용을 배울 수 있음은 인정하나, 교육적 가치만을 고려한 소재보다는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다양한 소재를 다루어 학생들의 지적호기심을 충족시켜 줘야 할 것이다.

5. 문화: 7차 교육과정에 추가된 문화영역은 2종의 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가 문화고정란을 두어 문화를 언어학습과 연계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정보에 대한 양과 질에서는 학습자가 문화의 다양성과 차이점을 이해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에 내재된 사회 문화적인 요소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올바른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의 문화교육의 취지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교과서는 학습자가 타문화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참신하고 다양한 소재의 문화를 소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한 문화적인 특징을 소개하기보다는 실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서 문화적인 차이로 생길 수 있는 발화적인 실수나 오해 등을 구체적인 설명이나 예를 들어 제시한다면 학습자가 문화를 이해하는데 더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6. 보충, 심화학습 및 모둠활동: 8종 교과서는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소집단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 학습의 접근 형태로 모둠활동을 구성하고 있고, 현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자의 수준별 학습을 고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과 언어의 네 기능을 바탕으로 한 보충·심화학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교과서마다 제시하고 있는 보충·심화학습의 양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교과서가 보충·심화학습에 쓰기과 읽기영역에 편중되어 제시하고 있다. 이에 각각의 언어기능의 고루한 제시로 학

습자가 제 영역에서 완전한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고등학교 2학년 영어(I)교과서 8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현 교육과정을 대체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기는 하나 각 항목에 따른 내용 구성 면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고 실제 학습현장에서는 실질적인 학습이나 활동을 위한 내용 제시는 그 이행에 있어 다소 어려움 점으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이에 교과서의 위상을 높이고 실용적인 교과서가 되기 위해서는 학습현장의 환경과 학습대상의 수준과 관심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과 연구를 통하여 교과서의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 교과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비교, 분석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각 교과서의 특징과 내용을 고려해 교과서 선택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이루어질 교과서 편찬에 있어 개선점을 찾아 영어학습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교과서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분석 영어교과서)

김충배, 최인철, 길준광, 이석, 이규표, 정석환, 박순주(2003).

High School English I. 서울: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이맹성, 황적륜, 김영석, 김길중, 양현권, 김진완, 엄상미(2003).

High School English I. 서울: (주)지학사

김덕기, 배종언, 안동환, 최종욱, 안병규, 오준일, Anna Dahland, 강대철, 신인숙, 김성령(2003). High School English I. 서울: (주)금성출판사

박영식, Kristen Myung Hee Cho, 윤정석, 박기원, 김진성, Stephen R. Piercy(2003). High School English I. 서울: (주)법문사

이홍수, 전병만, 차경환, 이영식, 신동일, 김석수, 김정훈, 유승일(2003).

High School English I. 서울: (주)한국교육미디어

이민호, 안정현, 박경수, 임호열, 신현주, 우순옥(2003).

High School English I. 서울: 대한교과서(주)

김성곤, 권혁승, 한정임, 박용예, 김재명, Phillip A. O'Neill(2003).

High School English I. 서울: (주)두산

신정현, 정상준, 장윤옥, 조청희, Leah K.Miller(2003).

High School English I. 서울: (주)시사영어사

교육부 (1997). 고등학교 외국어과 교육과정 해설(I) 서울: 대한교과서

배두본 (1997). 영어교육론. 서울: 한신문화사

배두본 (2000). 외국어 교육 과정론. 서울: 한국 문화사

민찬규 (1995). 교과서 없는 영어 교육은 불가능한가?

한국교원대 교수 논집. 11권 2호

용원진 (2002). 제 7차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비교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육개발원 (1997).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개발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장복명 (1995). 제 6차 교육과정과 영어 교과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Bachman, L. F. (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Brown, H. D. (1994:a).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Regents.

Bygate, M. (1987). *Speak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rooks, N. D. (1968). *Teaching Culture in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Foreign Language Annals.

Canale, M & Swain, M.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omsky, N. (1965). *Aspect of the theory of syntax*. MIT. Press.

Chastain. K. (1976). *Developing Second Language Skills: Theory to Practice*. Chicago: Rand McNally Collage Publishing Company.

Finocchiaro, M & Brumfit, C (1983). *The Functional-Notional Approach from Theory to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 Goodman, Kenneth S. (1970). *Reading: A psycholinguistic guessing game*. In Singer, H. and Ruddell, R.B (Eds.), *Theoretical Models and Progress Reading*. Newark, D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Hymes, Dell. (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Krashen S. D. and Terrell T.D. (1983). *The natural Approach: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 Oxford: Pergamon and Alemany.
- O'Malley, J. (1985). *Learning strategies used by beginning and intermediate ESL students*. Oxford. Modern English Publications.
- Paulston, C. B. and M. N. Bruder. (1991).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MA : Winthrop Publishers.
- Rivers, W. M. (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kierso, A. (1991). Textbook selection and evaluation. In M. Celce-Murcia(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Boston Mass: Heinle & Heinle.
- Seelye, H. N. (1974). *Teaching Cultures: Strategies for Foreign Language Educators*. Skokie, IL: National Textbook.
- Ur. P. (1999). *A course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Ek, J. (1980). *Threshold Level Englis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Wilkins, D.A (1976). *Notional Syllabuses*. Prentice-Hall
International Ltd.

Widdowson, H. G. (1978). *Teaching Language as a Communi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An Analysis of the High School English(I) Textbooks

-on the basis of the 7th curriculum-

Lee, Mi-ae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English education in Korea focuses on developing communication skills according to the 7th national curriculum. In this view, textbooks greatly influence on development of communicative competence in classroom activities. It's true that most teaching activities are dependent on the textbook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ent organization of high school English(I) textbooks and to provide some suggestion for improvement of high school English(I) textbooks.

This study focuses on the comparison and contrast of contents of high school English(I) textbooks (i.e. unit design, language four skills and activities, communicative functions, topics, culture, grammar, tasks)on the basis of the 7th curriculum.

The major result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1. The organization of the textbooks are analyzed by common and differentiated features. The organization of eight textbooks was L-S-R-W order. The whole approach of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is desirable in learning language. There is a great deal of interaction activities based on the “Four Skills” of the textbooks. Generally, the organization of each textbook is well-organized based on the curriculum and varied.

2. The communicative functions in all dialog parts are distributed regularly. But among seven communicative functions, ‘intellectual attitudes’ is much shown in the textbooks. Other communicative functions are not well distributed. A varied presentations of functions as well as the spiral organization of functions is needed.

3. Topics are composed of the appropriateness for the curriculum and offer topic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in relation to students enhance learners’ intrinsic motivation and learner-centered activities.

4. The understanding of cultural differences and diversity in textbooks helps to learn the language effectively, however there are textbooks which doesn’t catch up these current stream.

5. Language forms are lack of hierarchy, but suggested with various sample sentences, so they help students to learn language forms easily.

6. Textbooks give an opportunities to promote learner’s communicative competence through authentic classroom tasks with others.

I hope this paper will be of help for the improvement for the textbooks.

(부록)교사용 설문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교육현장에서 학생지도에 역량이 없으신 여러 선생님들께 번거로움을 끼쳐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이미애입니다.

본 설문지는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2학년 영어교과서 (영어I)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써 마련되었습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저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교수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 미 애

(기초 사항)

1. 교사의 성별: ① 남 ② 여
2. 학교: ① 일반계 고등학교 ②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
3.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어 교과서의 출판사 및 대표 저자:
① 출판사: ② 대표저자:

* 각각의 질문에 보기와 같이 해당되는 부분에 V를 해 주십시오

(보기)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소재가 다양하십니까?	V5	4	3	2	1

내 용	5	4	3	2	1
(단원구성방식)					
1. 학생들의 수준에 비추어 교과서의 난이도는 어렵습니까?					
2. 교과서의 매시간 학습지도 분량과 교과서의 양이 학생들에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3. 각 차시별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독립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각 단원 구성의 통합적인 제시정도는 잘 되어 있습니까?					
(언어기능 및 의사소통 활동)					
5. 의사소통 표현이 자연스러운 구어체입니까?					
6. 의사소통 기능 학습활동의 양은 많습니까?					
7. 의사소통의 활동이 본문의 내용과 함께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8. 교과서에서 담고 있는 초분절자질(강세 악센트, 연음 등)의 제시수준은 알맞고 양은 많은 편입니까?					
9. 듣기활동에 있어서 교과서의 구성이 짜임새가 있고,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10. 듣기 활동에 있어 학생 개개인의 수준별 학습 (보충, 심화) 제시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는 말하기 활동(게임, pair activity)의 제시가 많습니까?					
12. 읽기 지문의 소재는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시키는데 다양하고 흥미롭습니까?					
13. 읽기 지문의 자료는 실용문이면서 학생들의 지적관심과 흥미를 끄니까?					
14. 읽기 지문의 학습의 양과 수준은 학생들에게 적절합니까?					
15. 읽기 전 활동과 읽기 후 활동은 학생들의 읽기 학습에 충분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6. 제시된 쓰기연습은 교과서 전체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하도록 구성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7.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쓰기 소재(일기, 학습신문, 편지 등)가 제시되고 있습니까?					
18. 언어기능에서 제시된 각 활동들이 실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적절합니까?					
19. 소개된 모든 활동들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가능하게 합니까?					

언어재료(언어형식, 문화, 소재)					
20. 교과서에 제시된 언어형식표현이 말을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1. 문화에 대한 정보는 재미있고 학생들의 문화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흥미로운 내용으로 충분히 제시하고 있습니까?					
22. 문화학습과 영어학습의 연계성이 적절히 제시되고 있습니까?					
과제제시 및 수준별 학습활동					
23. 심화와 보충 학습을 위한 학습 내용의 양이 많습니까?					
24. 심화와 보충 학습의 수업지도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습니까?					
25.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 (task or activity)은 학생들에게 흥미롭고 의사소통을 돕는다고 생각하십니까?					
26. 그림, 사진, 삽화가 정성스러우며 효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선생님들의 고견을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 사용하고 계시는 교과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적어 주세요.
(교과서에 대한 개선사항, 더 첨가되기를 바라는 내용 등)

<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학생용 설문지

설문지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고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고등학교2학년 영어교과서(영어I)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고등학교2학년 학생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영어(I)에 대한 교과서의 전반적인 내용과 이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설문을 잘 읽고 성의껏 답해주시면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03. 10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연구자 이미애

(기초사항)

1. 학생의 성별: ① 남 ② 여
2. 학교: ① 일반계 고등학교 ②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
3.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어 교과서의 출판사 및 대표저자 ① 출판사: ②대표 저자:

(보기)

내용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교과서의 소재(글감)가 흥미로운가요?	√ 5	4	3	2	1

내 용	5	4	3	2	1
1. 영어교과서가 영어를 배우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2.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영어교과서는 여러분에게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까?					
3. 매시간 공부하는 교과서 분량이 여러분에게 많다고 생각하나요?					
4. 교과서에서 듣기활동은 재미있고 여러분의 듣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나요?					
5. Dialog에서 제시된 말하기 활동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나요?					
6. 본문내용의 읽기의 소재(글감)는 흥미로운가요?					
7. 본문내용과 연관된 읽기 전 학습활동과 읽고 난 후 학습활동은 본문내용을 이해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나요?					

8. 쓰기의 내용의 양과 수준은 여러분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나요?					
9. 교과서에 있는 언어형식(문법)은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도움을 주나요?					
10. 언어기능에서 제시된 제 활동들이 실제 여러분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나요?					
11. 수업 중에 하는 활동(task or activity)은 재미있나요?					
12. 활동을 할 때 배운 영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나요?					
13. 교과서에 있는 발음, 강세, 억양 등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의 발음공부를 하는데 충분히 제시되고 있나요?					
14. 문화에 대한 정보는 재미있고 새로운 내용인가요?					
15. 교과서에 나오는 문화내용은 여러분이 영어권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16. 심화. 보충 학습활동의 학습내용이 여러분의 수준에 적당하고 생각하나요?					
17. 교과서에서 제시된 과제 활동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유의미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나요?					
18. 교과서내의 삽화(사진, 그림, 만화 등)는 여러분의 영어 공부를 하는데 있어 흥미롭게 꾸며져 있나요?					

♣ (19-20) 다음은 학생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대해 느끼는 점을 적어주세요.

19. 교과서에 더 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적어 주세요.

20. 현재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 대해서 의견을 적어 주세요.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